



# 2026년 경제·산업 전망





# 2026년 경제·산업 전망





# 차례

요약 .....	9
제1장 거시경제 전망 .....	25
1. 국내 실물경제 동향 .....	25
2. 대내외 여건 전망 .....	28
3. 2026년 국내 경제 전망 .....	38
〈참고〉 2026년 대외 리스크 진단 및 국내 경제 영향 .....	56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	61
1. 2026년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	61
2.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부문별 전망 .....	74
3. 종합 및 시사점 .....	89

## 표 차례

〈표 1-1〉 세계 경제 성장을 추이와 전망 .....	29
〈표 1-2〉 세계 주요 권역별 및 국가별 경기선행지수(CLI) 추이 .....	30
〈표 1-3〉 국제유가 전망(EIA 기준) .....	35
〈표 1-4〉 2026년 국제유가 전망 .....	35
〈표 1-5〉 원/달러 환율 전망 .....	37
〈표 1-6〉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39
〈표 1-7〉 민간소비 관련 지표 증감률 .....	40
〈표 1-8〉 민간소비 전망 .....	42
〈표 1-9〉 설비투자 추이 .....	43
〈표 1-10〉 부문별 설비투자 추이 .....	43
〈표 1-11〉 설비투자조정압력 추이 .....	45
〈표 1-12〉 설비투자 전망 .....	46
〈표 1-13〉 건설투자 추이 .....	48
〈표 1-14〉 건설투자 전망 .....	49
〈표 1-15〉 산업별 수출 증가율 .....	53
〈표 1-16〉 가공 단계별 수입 .....	54
〈표 1-17〉 수출입 전망 .....	55
〈표 2-1〉 2026년 13대 주력산업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 .....	62
〈표 2-2〉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제품 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64
〈표 2-3〉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해외 생산 전망 .....	66
〈표 2-4〉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67
〈표 2-5〉 2026년 미국 관세 및 수출 영향 .....	70
〈표 2-6〉 2026년 산업별 기타 주요 이슈 및 수출 영향 .....	72
〈표 2-7〉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	76
〈표 2-8〉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	80
〈표 2-9〉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	84
〈표 2-10〉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	87

〈표 2-11〉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산업 전망 기상도	89
〈표 2-12〉 2026년 13대 주력산업 정책 과제 및 대응 방안	92
〈표 2-13〉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달러 기준)	94
〈표 2-14〉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물량, 원화 기준)	95
〈표 2-15〉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전망	96
〈표 2-16〉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전망	97
〈표 2-17〉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달러 기준)	98
〈표 2-18〉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물량, 원화 기준)	99

## 그림 차례

〈그림 1-1〉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26
〈그림 1-2〉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추이	27
〈그림 1-3〉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27
〈그림 1-4〉 무역정책·지정학적 불확실성 지수 추이	28
〈그림 1-5〉 전 세계 및 권역별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28
〈그림 1-6〉 OECD 산업생산과 G20 경기선행지수 추이	29
〈그림 1-7〉 세계 주요국의 경제지표 및 체감지표 추이(월별)	30
〈그림 1-8〉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실질GDP 성장률(분기별)	31
〈그림 1-9〉 세계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및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분기별)	32
〈그림 1-10〉 전 세계 주요 업종별 생산 증가율(월별)	33
〈그림 1-11〉 국제유가 추이	34
〈그림 1-12〉 원/달러, 달러 인덱스 추이	36
〈그림 1-13〉 소비지표 추이	40
〈그림 1-14〉 고용지표 추이	41
〈그림 1-15〉 소비자심리지수, 가계부채 및 대출금리 추이	42
〈그림 1-16〉 설비투자 증감률 추이	44
〈그림 1-17〉 설비투자 선행지표 추이	44
〈그림 1-18〉 제조업 재고율과 자본재 수입 추이	46
〈그림 1-19〉 건설투자와 건설기성액 추이	47
〈그림 1-20〉 건설투자 선행지표 추이	48
〈그림 1-21〉 건물건설 인허가 및 착공 추이	49
〈그림 1-22〉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추이	50
〈그림 1-23〉 수출물량 및 단가, 금액지수 추이	51
〈그림 1-24〉 지역별 수출 증가율	52
〈그림 1-25〉 대미국 및 비미국 수출 증가율 추이	52
〈그림 1-26〉 반도체와 비반도체 수출 증가율 추이	53
〈그림 2-1〉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전망	74

〈그림 2-2〉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률 전망	78
〈그림 2-3〉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률 전망	83
〈그림 2-4〉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률 전망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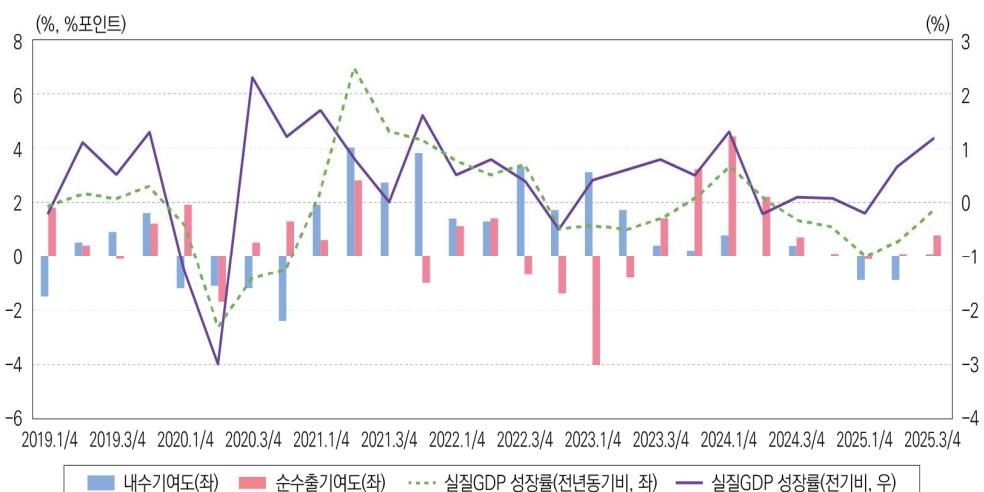


## 요약

### 제1장 거시경제 전망

- 현 경기 판단: 하반기 들어 내수 반등과 수출 확대에 힘입어 회복세 강화
- 국내 실물경기는 소비와 수출이 2025년 2분기에 회복세를 보이고, 3분기 들어 정부의 소비 지원책과 글로벌 IT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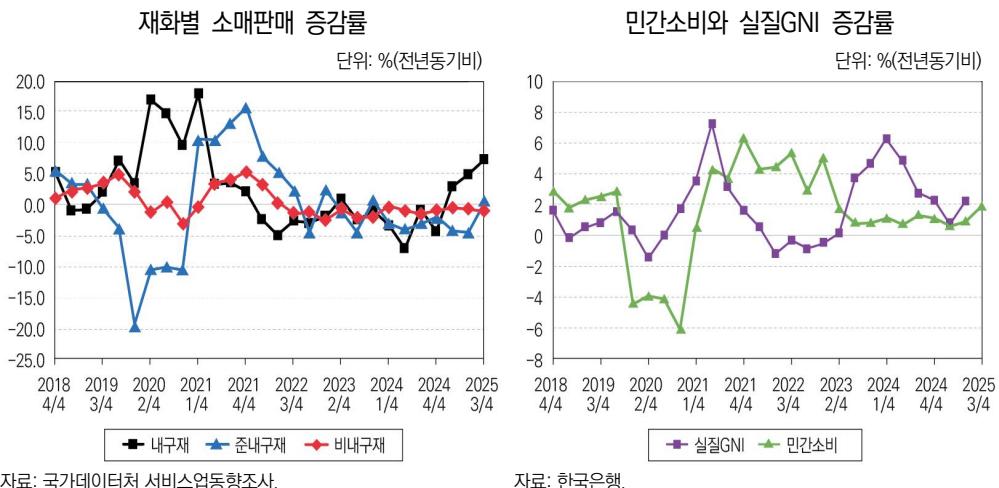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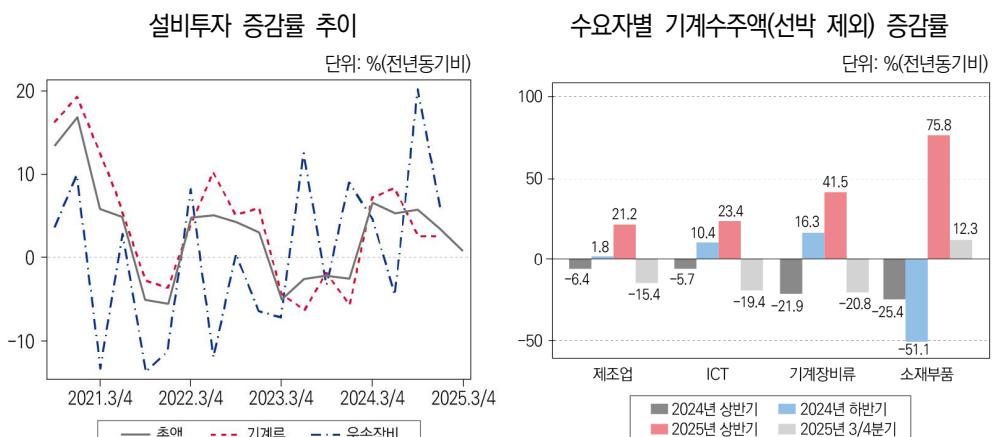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주: 내수는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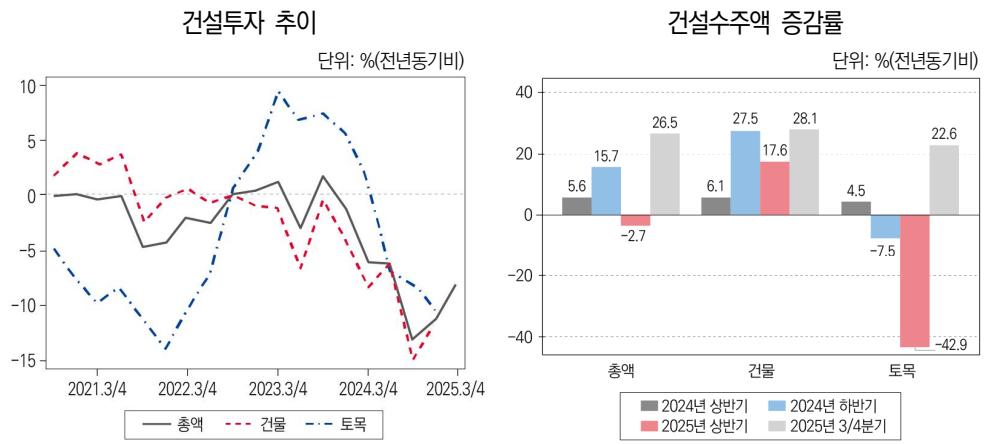
- 민간소비는 연초 소비심리 악화로 둔화세를 보인 이후 3분기 들어 국내 물가 안정과 소득 여건 개선, 정부 소비 지원책 등에 힘입어 내구재와 서비스 중심으로 상당폭 회복



- 설비투자는 글로벌 무역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기업들의 투자심리 악화 등 하방 요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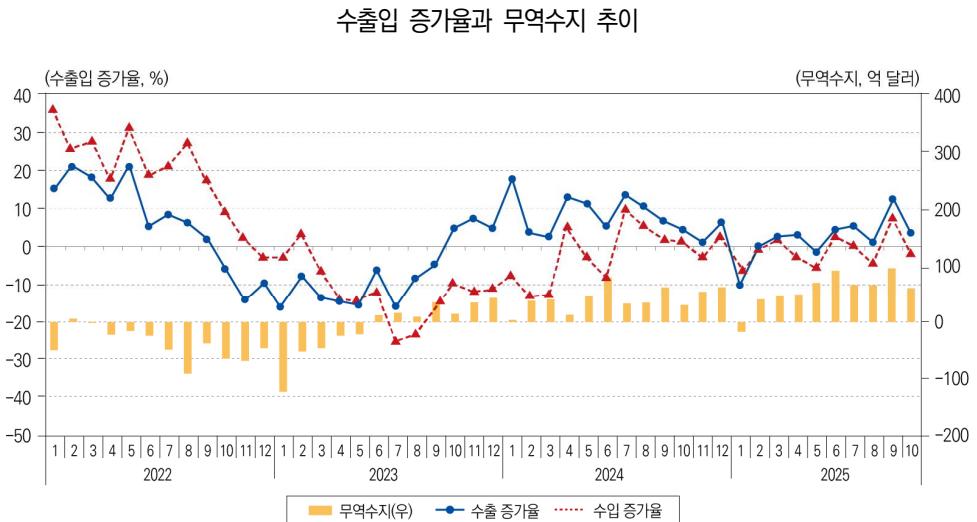


- 건설투자는 2024년에 상당폭 감소한 데 이어 2025년 들어서도 건축부문의 착공 감소, 공공 SOC 지출 축소 등 영향으로 6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부진 지속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 수출(통관 기준)은 미국의 관세 부과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도 관세 대응을 위한 선(先)적재(front-loading) 수요, AI(인공지능) 투자 확대와 관련된 반도체 수요 증가, 기(期)수주한 선박 인도 물량 지속 등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



자료: 한국무역협회.

□ (전제) 2026년 세계 경제: 관세 영향과 경기 부양 기조하에서 전년보다 낮은 성장 예상

○ 2026년 세계 경제는 미국발(發) 통상 질서의 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세 문제가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기조 등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년보다 낮은 성장률이 예상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을 추이와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2024	2025			2025(연간)		2026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IMF	OECD	IMF	OECD
전 세계	3.3 (2.8)	-	-	-	3.2 (2.6)	3.2	3.1 (2.6)	2.9
선진권	(1.8)	-	-	-	1.6	-	1.6	-
미국	2.8	2.0	2.1	-	2.0	1.8	2.1	1.5
유로존	0.8	1.6	1.5	-	1.2	1.2	1.1	1.0
일본	0.1	1.7	1.7	-	1.1	1.1	0.6	0.5
신흥권	(4.3)	-	-	-	4.2	-	4.0	-
중국	5.0	5.4	5.2	4.8	5.2	-	4.7	-
세계교역 (재화)	2.8	-	-	-	3.4 (2.4)	-	2.0 (0.5)	-

자료: IMF(2025. 10월); OECD(2025. 9월); WTO(2025. 10월).

주: 1) 전 세계 팔호 안의 수치는 시장환율 적용 기준.  
2) 세계교역 팔호 안의 수치는 WTO 전망치 기준.

□ (전제) 2026년 유가 및 환율: 유가 배럴당 59달러, 환율 1,390원 내외 전망

○ 2026년 국제유가는 글로벌 원유 수요가 제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산유국들의 생산조정 강도 및 재고 둔화 여부 등이 주요 관건으로 작용하면서 2025년보다 낮은 수준이 예상

2025년 국제유가 전망

단위: 달러/배럴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두바이유	71.9 (-13.6)	68.1 (-10.4)	70.2 (-11.9)	57.5 (-20.1)	60.0 (-11.8)	58.8 (-16.2)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2) 2025년 하반기 및 연간은 11월 20일 현재 기준.

- 2026년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달러화 약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 지속과 우리나라 수출 둔화 가능성 등으로 인해 원화 강세 폭이 제한되면서 2025년보다는 낮은 수준이 예상

#### 2025년 원/달러 환율 전망

단위: 원/달러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426.7 (5.7)	1,406.8 (2.2)	1,417.7 (4.0)	1,400.8 (-1.8)	1,382.5 (-1.7)	1,391.7 (-1.8)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단위 %.

2) 2025년 하반기 및 연간은 11월 20일 현재 기준.

#### □ 2026년 국내 경제: 연간 성장을 1.9% 전망

- 2026년 국내 경제는 미국발 무역 갈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이 전년도의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이나, 소비의 견조한 증가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등으로 내수가 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연간 1.9% 성장이 예상
- 2026년에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관세 부담에 따른 거시적 영향 정도, AI 중심 ICT 경기 회복의 지속 여부, 주요국 재정·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대내적으로는 내수 회복의 강도 및 지속 여부, 수출 둔화 정도 등이 변수

#### □ 2026년 소비: 전년 대비 1.7% 증가 예상

- 민간소비는 물가와 금리의 하향 안정화 속에 실질소득 및 가계소득 증가, 정부 지원책 등이 소비 여건의 개선과 소비심리의 안정세로 이어지면서 성장을 주도할 전망

#### □ 2026년 투자: 설비투자 1.9% 증가, 건설투자 2.7% 증가 전망

- 설비투자는 기업들의 자본조달 여건 개선, AI 관련 첨단산업 투자 수요 등으로 증가세가 유지되나, 글로벌 경기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제한적 증가세가 예상

-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비용의 안정화, 정부의 SOC 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감소세를 벗어 날 것으로 예상되나, 누적된 미분양 주택, 주택 입주 물량 감소 등이 제약 요인

□ 2026년 수출입: 수출 -0.5%, 수입 -0.3%, 무역수지 675억 달러 전망

- 수출(통관 기준)은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 기조,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의 일부 완화, AI 관련 반도체 수요 증가세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글로벌 경기 부진 및 교역 둔화, 전년도의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가 예상

####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

	2024	2025			2026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2.0	0.3	1.7	1.0	2.2	1.5	1.9
민간소비	1.1	0.7	1.8	1.3	1.9	1.4	1.7
설비투자	1.7	4.5	0.4	2.4	1.7	1.9	1.9
건설투자	-3.3	-12.2	-5.7	-8.9	3.2	2.1	2.7
통관 수출	6,836 (8.1)	3,347 (0.0)	3,657 (4.8)	7,005 (2.5)	3,445 (2.9)	3,526 (-3.6)	6,971 (-0.5)
통관 수입	6,318 (-1.7)	3,069 (-1.6)	3,244 (1.4)	6,313 (-0.1)	3,128 (1.9)	3,168 (-2.3)	6,296 (-0.3)
무역수지	518	278	413	692	317	358	675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5년 하반기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 1. 2026년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 AI 및 신흥국 투자 확대 등의 성장요인에도 불구하고 통상여건 악화, 중국 경기 둔화 및 경쟁력 강화 등으로 산업별 차별적 성장세가 심화되는 한편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생산은 확대
- (세계 수요 여건) AI 중심의 IT 투자 호조가 지속되며 IT신산업군이 글로벌 산업 수요를 견인하겠지만 미국 관세 강화, 미·중 갈등, 중국의 경기 둔화 및 자급률 향상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미국과 중국은 관세리스크와 경기 둔화가 일부 산업 수요를 제약하는 반면 신흥국은 대부분 산업에서 견조한 수출 성장이 예상, 유럽은 친환경 및 설비투자 회복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미국) 자동차와 일반기계 수요는 고관세와 제조업 비용 상승 등으로 제한적이지만 AI, 데이터센터, ESS 및 바이오시밀러 등 IT신산업 관련 수요는 견조하게 성장할 전망
  - 인프라 투자 확대로 철강 수요는 증가하지만 전기차용 이차전지 등은 관세 및 정책 변화 영향으로 수요 둔화가 예상
  - (유럽)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등의 수요는 경기 둔화 속에서도 친환경 정책과 설비투자 회복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
  - (중국) 자동차, 일반기계 및 철강 등 전통 산업 수요는 경기 둔화와 구조전환 정책으로 정체 또는 감소세 지속
  - IT신산업 수요는 AI 서비스 및 관련 제품 수요 확대로 견조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가전은 지난 2년간 정부 보조금에 따른 교체 수요 소진으로 전반적 수요는 감소할 전망
- (제품단가 변화) AI·전동화·고성능화 등 기술 고도화와 프리미엄화가 진행되는 산업에서 전반적으로 상승 압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 고관세로 인한 비용 전가도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

- 정유·이차전지는 국제유가 하락, 광물 가격 안정 및 공급 우위 상황 지속으로 단가 하락 가능성이 높으며, 철강, 석유 및 가전은 수요 둔화 및 중국과의 가격경쟁 심화로 단가 상승폭이 제한적
- 조선은 우리나라의 선별 수주 및 가스운반선 시장의 발주량 증가 등으로 선가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
- 바이오헬스는 제네릭 공급 확대와 미국의 최혜국 대우 가격(MFN) 정책 등으로 가격 하향 압력이 커지는 반면, 위탁생산개발(CDMO) 분야는 수요 증가로 안정적 단가 유지

○ (해외 생산 전망) 2026에도 주요 산업의 해외 생산은 각국의 보호무역, 관세, 현지 수요 대응, 신산업 투자 확대 등의 요인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미국, 유럽, 인도 등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생산능력 확충과 라인 조정이 활발히 추진될 예정

#### □ 국내 공급능력은 IT신산업군을 중심으로 소폭 확대 예상

- (공급능력 여건) 반도체 및 바이오헬스 중심으로 국내 생산이 확대되는 반면 철강, 석유화학 및 정유산업의 가동률 감소, 이차전지 및 자동차, 정보통신기기 등의 해외 생산 비중 증가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주요 이슈: 미국 관세)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및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며 파생상품 관세 확대 적용의 경우 파급효과 확대
  - (자동차) 미국 정부의 자동차 품목관세가 15%로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지만 고관세 수준으로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
  - (일반기계) 일반기계류 품목에 대한 미국의 무역규제 및 관세 정책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를 확대 적용하며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넘어 점차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
  - (철강)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에 대한 고강도 관세정책 시행(25%, 3월 12일) 및 확대(50%, 6월 4일)되어 적용 중
    - 미국 시장으로의 선수출, 미국 내 가격 인상 등의 요인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는 관세 영향이 미미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대미 수출이 급감하며 고율 관세의 영향이 가시화

## 2026년 미국 관세 및 수출 영향

	영향 정도	내용 설명
자동차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수출) 미국 비중이 37%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으로 부정적 영향</li> <li>(대미 수출) 미국 내 수요 감소로 대미 수출 감소 지속</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업은 수주산업이므로 관세정책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li> <li>다만 대미 관세로 인한 공급망 변화, 해상물동량 변화에 따른 신규 수주 영향의 우려는 있으나, 국내 조선사의 수주잔량이 많아 큰 영향은 없을 전망</li> </ul>
일반기계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수출) 글로벌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일반기계 전체 세계 수요 회복 모멘텀을 제약</li> </ul>
	X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미 수출) 미국 내 일반기계 가격 상승과 건설부문 투자 위축,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현지 수요가 둔화되면서 대미 수출 감소</li> </ul>
철강	X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수출) 대미 수출 감소에 따라 대체국에서의 수출경쟁 격화 예상</li> <li>(대미 수출) 50% 수준의 고율 관세로 미국의 수입의존도는 하락하고 주요 수출국인 한국의 대미 수출 규모 감소 불가피할 전망</li> </ul>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수출)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지만 간접적 영향 우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미 수출) 석유제품은 직접적인 관세 대상에서 제외</li> </ul>
석유화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수출) 감소한 미국형 물량을 아시아 시장(아세안, 인도 등)으로 대체</li> </ul>
	X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미 수출) 관세 인상으로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수출액 감소</li> </ul>
섬유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수출) 공급망 재편에 따른 편의 한계 및 간접수출 위축으로 부정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기업의 공급망 탈중국 및 다변화 혜택은 동남아 등지에 집중되고, 미국 수출에 막힌 중국 제품의 세계시장 확대로 국산 제품의 입지 악화</li> <li>- 미국 시장 위축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생산 물량 및 섬유소재의 대미 간접수출 큰 타격</li> <li>-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한 중국 기업이 생산거점을 베트남, 인도 등 제3국 이전 가속화 또는 중국 정부의 중국 섬유기업 내수 시장 진출 지원으로 한국 수출은 부정적</li> </ul> </li> <li>(대미 수출) 미국 내 수입 물가 상승 압력으로 섬유 수요 위축 및 수출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중국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회 반면, 수출 확대의 지속성 한계</li> </ul> </li> </ul>
정보통신기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C, SSD, 스마트폰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세 영향은 미미</li> <li>다만, 미 관세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으며, SSD의 경우 중국에서 조립된 완제품의 경우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성이 상존</li> </ul>
가전	X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수출) 최대 수요처인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부진</li> <li>(대미 수출) 관세 영향이 낮은 미국·멕시코 등 해외 생산 확대로 국내 생산 감소</li> </ul>
반도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수출) 전체 반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li> <li>(대미 수출) 대체상품이 없어 가격 전가가 가능하므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li> </ul>
디스플레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수출) 직접 수출액이 적어 영향력은 제한적</li> </ul>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미 수출) 관세 영향력이 부품사로 전가되어 가격하락 압력으로 작용</li> </ul>
이차전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수출) 대미 관세가 한국 이차전지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li> <li>(대미 수출) 현지화가 많이 이루어져 대미 수출에 미칠 영향 미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수출)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미국 이외의 수요처 발굴 필요</li> </ul>
바이오헬스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미 수출) 주력 수출품인 바이오시밀러 관세 부과에 대비, 미국 내 생산 비중 확대 또는 현지 생산공장 인수·신설에 따른 국내 생산량 감소</li> </ul>

- (석유화학) 미국 정부의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상호관세가 당초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된 후, 관세 인상 또는 면제 조치에 대한 동향은 제한적
  - 미국발 관세 인상 이후,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가 심화
- (반도체) 2025년 4월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반도체는 별도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이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 ○ (주요 이슈: 산업별) 탄소증립 및 중국과 경쟁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자동차) 주요국의 환경정책 완화로 인해 전기차 수요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2026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나 국가별 상황에 따라 상이
- (조선) USTR의 중국 해운사 및 선박에 대한 입항세 부과가 1년 유예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환 발주 기대감은 약화되겠지만, 수주잔량이 많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 (철강) 2026년부터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시행으로 배출권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고 기업의 감축 의무가 이전 대비 급격히 확대될 전망이며 생산 위축 가능성 존재
- (정유) 석유제품 수요 증가폭 둔화로 인한 정제마진 및 수출 하락
  - 2026년 글로벌 석유제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약 0.67% 정도로 1.0% 이상을 유지하던 2010년대 대비 증가폭이 둔화
- (석유화학) 중국 석유화학 시장 내 주요 제품의 자급률이 상승하면서 중국 시장 내 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
  - 2030년까지 세계 석유화학 시장 내 생산시설 신증설 규모의 44%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범용제품뿐만 아니라 기초유분 제품군까지 국내 유입 규모가 증가
- (반도체) 중국 반도체 기업의 생산능력 향상으로 중국을 비롯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이 확대
- (이차전지) 미국의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폐지로 미국 배터리 시장 위축이 불가피해 (상호관세 부과 이상의) 부정적 영향

- (바이오헬스) 미국의 생물보안법 재추진 및 유럽에서의 중국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제한은 국내 기업에 기회로 작용

## 2. 2026년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 수출: IT산업과 바이오산업이 13대 산업 전체 수출의 증가를 주도할 전망이나 소재산업군의 부진 지속으로 소폭 감소 전망
- 2026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중심의 IT신산업군 수출 증가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소재 및 기계산업군의 부진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
  - 2025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약 30.2%의 비중을 차지한 반도체산업이 16.6%나 증가하며 조선과 바이오헬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부진에도 2.1% 증가
  - 글로벌 통상여건의 불확실성 지속, 이차전지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확대와 중국의 경제성장을 정체, 제품 경쟁력 및 자급률 상승이 제약 요건으로 작용
- (기계산업군)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해외 생산 및 현지 부품 조달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0.6%, 조선 -4.0%, 일반기계 -3.7% 등 전반적으로 부진하며 기계산업군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0% 감소
- (소재산업군) 섬유는 0.9% 소폭 증가로 전환되는 반면 정유 -16.3%, 철강 -5.0% 및 석유화학 -2.0%의 수출 감소 추세가 지속되며 전년 대비 7.6% 감소
- (IT 신산업군) AI 수요 증가 및 IT 기기용 고부가가치 부품 수요 확대로 4.2%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해외 생산 확대, 전기차 수요 증가율 둔화 및 중국의 경쟁력 제고는 수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 반도체는 AI 투자가 지속되어 HBM과 DDR5 등 고부가 제품의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겠지만 기저효과 및 수요 안정화로 증가폭(2025년 16.6% → 2026년 4.7%)은 감소
  - 바이오헬스는 수출 호조 지속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하고 정보통신기기 4.9%, 가전 0.4%, 디스플레이 2.7% 증가로 전환되는 반면, 이차전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확대로 인해 수출 부진이 지속되며 12.0% 감소 전망

□ 내수: 민간소비, 설비 및 건설투자 개선으로 대부분 산업의 국내 수요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

○ (기계산업군) 일반기계는 2.3% 증가하나 자동차는 주력 차종의 모델 노후화로 0.3% 소폭 감소하는 반면, 조선은 LNG운반선·컨테이너선 수요 위축으로 61.1%나 감소

○ (소재산업군) 전년 대비 기저효과 및 하반기 반등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섬유 0.8%, 석유화학 2.0%, 철강 0.8%, 정유는 0.7%로 소폭 확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IT신산업군) AI 중심의 투자 및 수요 확대로 반도체 70.4% 및 가전은 1.3%의 증가 전환이 예상되며, 정보통신기기 2.8%, 디스플레이 2.9%, 이차전지 35.7%, 바이오헬스는 10.9%로 내수 확대 추세가 지속

□ 생산: IT신산업군 중심의 생산 확대는 지속되는 반면, 소재산업군의 생산이 부진한 가운데 해외 생산 대체 영향이 큰 이차전지는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

○ (기계산업군) 자동차는 국내 전기차 신규 공장 가동으로 0.5% 증가하는 반면, 조선은 기저 효과 영향으로 9.7% 감소하고 기계는 내수 개선으로 -0.6%의 소폭 감소에 그칠 전망

○ (소재산업군) 섬유는 0.8% 소폭 증가로 전환되는 반면, 철강 -2.0%, 석유화학 -0.5%, 정유 -0.1%로 수출 감소 등에 따른 가동률 하락으로 감소세 지속 전망

○ (IT신산업군) 수출 호조 및 내수 개선 영향으로 반도체 20.5%, 정보통신기기 4.3%, 바이오헬스 9.4%로 전년 대비 생산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가전은 0.6% 증가로 전환되는 반면 이차전지는 -9.8%로 해외 생산 확대 가속화에 따른 감소세 지속

□ 수입: IT신산업군의 수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

○ (기계산업군) 일반기계는 IT 경기 호조로 2.7% 증가, 조선은 중국 및 일본으로부터의 선박 수입이 유지되며 9.3% 확대로 증가세가 지속되는 반면, 자동차는 국산차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으로 인해 0.3% 감소로 전환하며 전체적으로는 2.1% 증가

○ (소재산업군) 섬유는 전년 대비 1.4%, 석유화학은 0.3% 증가하지만 전방산업 수요 부진으로 철강 -1.7%, 정유는 -15.9% 축소되며 소재산업군 전체 수입은 4.9% 감소

- (IT신산업군) 반도체 6.9%, 정보통신기기 3.7%, 이차전지 17.6%, 바이오헬스 11.4%로 주요 IT산업의 수입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한편 디스플레이와 가전도 각각 1.9% 및 2.3%로 증가 전환하며 전체 수입은 7.0% 증가

### 3. 종합 및 시사점

#### □ 2026년 13대 주력산업 전망 종합

- 반도체 · ICT · 조선 · 바이오헬스가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고 일반기계 · 가전 · 디스플레이는 회복세에 진입하는 반면, 자동차 · 섬유는 성장 정체, 철강 · 석유화학 · 정유는 침체 지속이 예상되며 이차전지는 내수는 확대되지만 수출 · 생산 위축이 지속될 전망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산업 전망 기상도

		수출	내수	생산	수입
기계 산업군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소재 산업군	철강	☂	∞	☁	☁
	정유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IT 신산업군	정보통신기기	∞	∞	∞	∞
	가전	∞	∞	∞	∞
	반도체	∞	☀☀	☀☀	☀
	디스플레이	∞	∞	∞	∞
	이차전지	☂☂	☀☀	☂	☀☀
	바이오헬스	☀	☀☀	☀	☀☀

주: 1) 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 -5%, ☁ -5~0%, ∞ 0~5%, ☀ 5~10%, ☀☀ 10% 이상.

2) 내수와 생산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려화 가격 기준.

- 2026년에도 13대 주력산업은 보호무역 · 통상환경 변화 · 대미 관세 리스크에 대응할 안정적 수출 · 공급망 체계 구축과 함께 AI · 친환경 · 모빌리티 · 스마트 제조 등 기술 전환에 대비한 경쟁력 · 생산기반 강화가 필요
  - 이를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 세제 · 금융 · R&D 확대, 통상 협력 및 규제 개선, 친환경 ·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 지원이 요구

## 제1장

# 거시경제 전망



# 제1장 거시경제 전망

## 1. 국내 실물경제 동향

### □ 현 경기 판단: 하반기 들어 내수 반등과 수출의 견조한 증가로 회복 흐름

- 국내 실물경기는 소비와 수출이 2025년 2분기에 반등하고, 3분기 들어 정부의 소비 지원책과 글로벌 IT 경기의 개선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견인
  - 내수는 소비가 물가 안정과 정부의 소비 지원책 등에 하반기 들어 상당폭 증가하고, 설비 투자가 대외 불확실성과 기업들의 투자심리 약화 등 하방 요인에도 증가세가 이어지는 반면에, 건설투자는 토목과 건축 등 전 부문의 부진 여파로 6분기 연속 감소세가 지속
  - 수출(통관 기준)은 미국의 관세 부과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부정적 영향에도 관세 대응을 위한 선(先)적재(front-loading) 수요, AI(인공지능) 투자 확대와 관련된 반도체 주문 증가, 기(期)수주한 선박 인도 물량 지속 등에 힘입어 비교적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
    - 실질GDP(전기비, %) : (2024.3/4) 0.1 → (4/4) 0.1 → (2025.1/4) -0.2 → (2/4) 0.7 → (3/4) 1.2
    - 실질GDP(전년동기비, 이하-동일, %): (2024.4/4) 1.1 → (2025.1/4) 0.0 → (2/4) 0.6 → (3/4) 1.7
    - 민간소비(%): (2024.3/4) 1.3 → (4/4) 1.1 → (2025.1/4) 0.6 → (2/4) 0.9 → (3/4) 1.9
    - 설비투자(%): (2024.3/4) 6.6 → (4/4) 5.3 → (2025.1/4) 5.8 → (2/4) 3.4 → (3/4) 0.7
    - 건설투자(%): (2024.3/4) -6.2 → (4/4) -6.4 → (2025.1/4) -13.3 → (2/4) -11.4 → (3/4) -8.2
    - 통관수출(%): (2024.3/4) 10.5 → (4/4) 4.2 → (2025.1/4) -2.3 → (2/4) 2.1 → (3/4) 6.5

〈그림 1-1〉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내수는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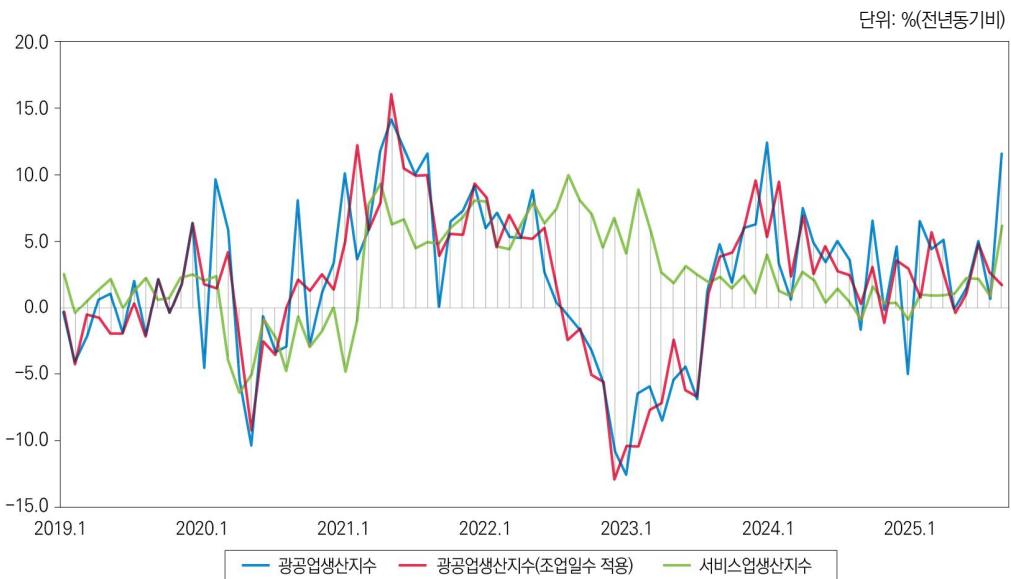
○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 생산이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서비스업 생산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증가세를 이어오다 2025년 하반기 들어서는 증가세가 모두 확대되면서 회복세가 강화되는 모습

- 전 산업(%): (2024.3/4) 0.5 → (4/4) 0.6 → (2025.1/4) -0.5 → (2/4) 0.3 → (3/4) 2.8
- 광공업(%): (2024.3/4) 2.4 → (4/4) 3.5 → (2025.1/4) 2.0 → (2/4) 2.1 → (3/4) 5.8
- 제조업(%): (2024.3/4) 2.2 → (4/4) 3.7 → (2025.1/4) 2.0 → (2/4) 2.3 → (3/4) 6.0
- 서비스(%): (2024.3/4) 0.2 → (4/4) 0.6 → (2025.1/4) 0.4 → (2/4) 1.4 → (3/4) 3.1

○ 경기지표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5년 중반부터 하락세가 둔화되거나 상승 전환하면서 실물경기 부진의 완화 가능성을 반영하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특히 하반기 들어 상승세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물경기 회복 가능성은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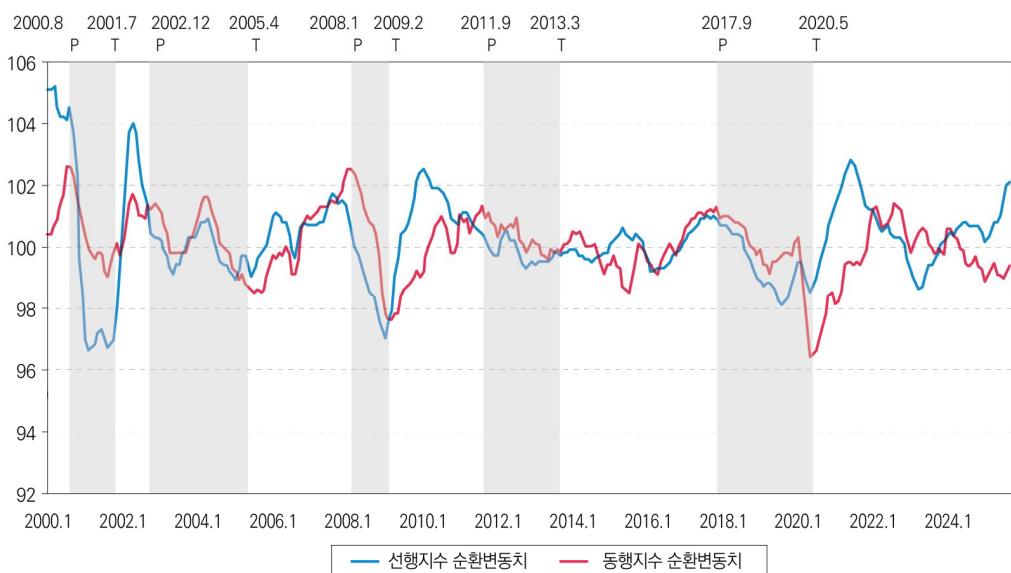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전월차: (2025.4월) 0.2 → (5월) -0.4 → (6월) 0.0 → (7월) -0.1 → (8월) 0.2 → (9월) 0.2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전월차: (2025.4월) 0.3 → (5월) 0.0 → (6월) 0.2 → (7월) 0.6 → (8월) 0.4 → (9월) 0.1

〈그림 1-2〉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1-3〉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 2. 대내외 여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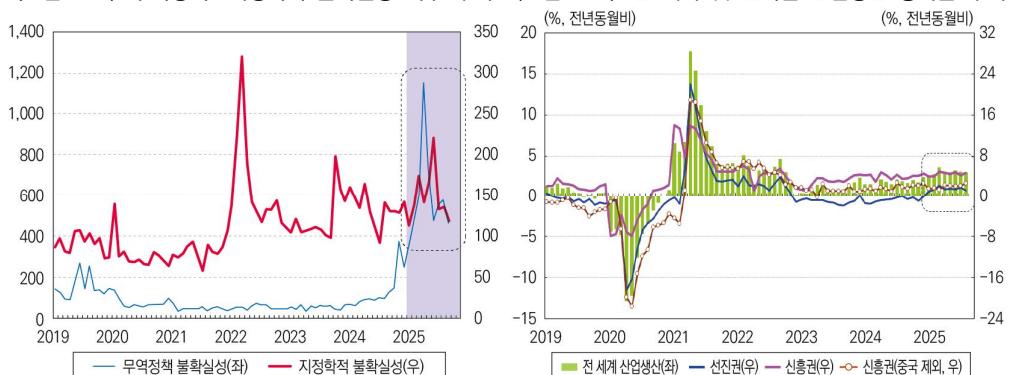
### (1) 세계 경제

#### □ 2025년 동향: 무역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로 실물경기는 완만한 흐름

○ 세계 실물경기는 2025년 들어 미국의 관세 부과와 지정학적 분쟁 등 영향이 다소 완화되면서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하반기 들어서도 주요국 실물경기는 아직 견조한 추세

- 전 세계 무역 갈등 및 지정학적 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연초에 크게 높아지면서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되었으나, 이후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정되면서 실물경기와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 영향도 크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
  -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TPU): (2025.4월) 1,151.4pt(사상 최고치) → (2025.9월) 465.3pt
  - 지정학적 위험도 지수(GPR): (2025.6월) 220.1pt(2022.3월 이후 최고치) → (2025.9월) 119.5pt
- 전 세계 산업생산은 주요국들의 인플레 안정화와 경기 부양 기조 등에 힘입어 특히 일본과 유로권 등 선진권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권에서도 전년도 하반기보다는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시현
  - 선진권 산업생산(전년동기비): (2024년) -0.7% (2025년 상반기) 1.4% (2025년 7~8월) 1.4%
  - 신흥권 산업생산(전년동기비): (2024년) 4.0% (2025년 상반기) 4.4% (2025년 7~8월) 4.5%

〈그림 1-4〉 무역정책 · 지정학적 불확실성 지수 추이 〈그림 1-5〉 전 세계 및 권역별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 □ 2026년 전망: 관세 영향과 경기 부양 기조하에서 전년보다 낮은 성장 예상

- 2026년 세계 경제는 미국발(發) 통상 질서의 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세 문제가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기조 등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년보다 낮은 성장률이 예상
  -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세 정책이 서로 상충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관세 부담에 따른 고용 억제와 인플레 심화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가 경기 침체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유로존은 지정학적 불안정성(러·우 전쟁)과 주요국(독일·프랑스) 경기의 더딘 회복 흐름에도 역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등이 성장의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일본은 새로 출범한 다카이치 정부의 경기 부양(확장 재정·완화적 통화) 기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완만한 성장 흐름을 보일 전망
  -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진의 지속과 내수 중심의 구조전환 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잉 공급 및 수출 둔화에 따른 투자 부진의 지속 여부가 주요 관건이며, 인민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와 시진핑 정부의 재정 확대 등 항방이 성장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
  - 무역 갈등과 관세 문제, 지정학적 분쟁 등이 현재보다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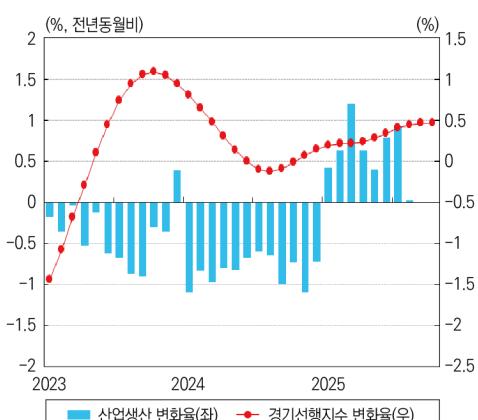
〈표 1-1〉 세계 경제 성장을 추이와 전망

	2024		2025		2025 (연간)		2026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IMF	OECD	IMF	OECD
전 세계	3.3 (2.8)	-	-	-	3.2 (2.6)	3.2	3.1 (2.6)	2.9
선진권	(1.8)	-	-	-	1.6	-	1.6	-
미국	2.8	2.0	2.1	-	2.0	1.8	2.1	1.5
유로존	0.8	1.6	1.5	1.4	1.2	1.2	1.1	1.0
일본	-0.2	1.8	2.0	1.1	1.1	1.1	0.6	0.5
신흥권	(4.3)	-	-	-	4.2	-	4.0	-
중국	5.0	5.4	5.2	4.8	5.2	-	4.7	-
세계교역 (재화)	2.8			-	3.4 (2.4)	-	2.0 (0.5)	-

자료: IMF(2025. 10월); OECD(2025. 9월); WTO(2025. 10월).

주: 1) 전 세계 팔호 안의 수치는 시장환율 적용 기준.  
2) 세계교역 팔호 안의 수치는 WTO 전망치 기준.

〈그림 1-6〉 OECD 산업생산과 G20 경기선행지수 추이



자료: OECD.

하에서 2026년 세계 경제는 2025년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미국의 관세 부담에 따른 거시적 영향 정도, AI 중심 ICT 경기 호조의 지속 여부, 주요국 재정·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표 1-2〉 세계 주요 권역별 및 국가별 경기선행지수(CLI) 추이

	경기선행지수 <sup>1)</sup> (장기 추세=100)						전기(월)비 변화율(%)						전년 동월비	
	2024		2025				2024		2025					
	9월	12월	3월	6월	9월	10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0월		
G20개국	99.89	100.12	100.14	100.15	100.35	100.43	0.08	0.23	0.02	0.02	0.20	0.08	0.46	
G7(선진권)	99.84	100.07	100.14	100.29	100.56	100.63	0.17	0.23	0.07	0.16	0.26	0.08	0.72	
유럽 4개국 <sup>2)</sup>	99.83	99.84	100.12	100.57	101.07	101.22	0.09	0.02	0.28	0.45	0.50	0.16	1.41	
아시아 5개국 <sup>2)</sup>	99.80	100.02	100.02	99.92	100.05	100.13	▲0.02	0.23	▲0.00	▲0.10	0.13	0.08	0.26	
미국	99.85	100.26	100.24	100.23	100.29	100.30	0.22	0.41	▲0.01	▲0.01	0.06	0.00	0.30	
독일	99.66	99.65	100.06	100.65	101.04	101.14	▲0.03	▲0.01	0.41	0.59	0.39	0.10	1.51	
프랑스	99.09	99.42	99.83	100.12	100.75	101.05	0.05	0.33	0.41	0.29	0.63	0.30	1.89	
영국	100.76	100.48	100.65	101.03	101.41	101.44	0.08	▲0.28	0.17	0.38	0.37	0.04	0.80	
일본	100.01	99.87	99.74	99.79	100.13	100.25	▲0.12	▲0.14	▲0.13	0.05	0.34	0.12	0.29	
브라질	102.04	101.55	101.35	101.37	101.12	101.07	0.07	▲0.49	▲0.20	0.02	▲0.25	▲0.05	▲0.84	
중국	99.50	99.91	99.87	99.52	99.52	99.59	▲0.13	0.41	▲0.03	▲0.35	0.00	0.07	▲0.04	
인도	99.91	100.02	100.18	100.41	100.63	100.71	0.12	0.11	0.17	0.22	0.23	0.08	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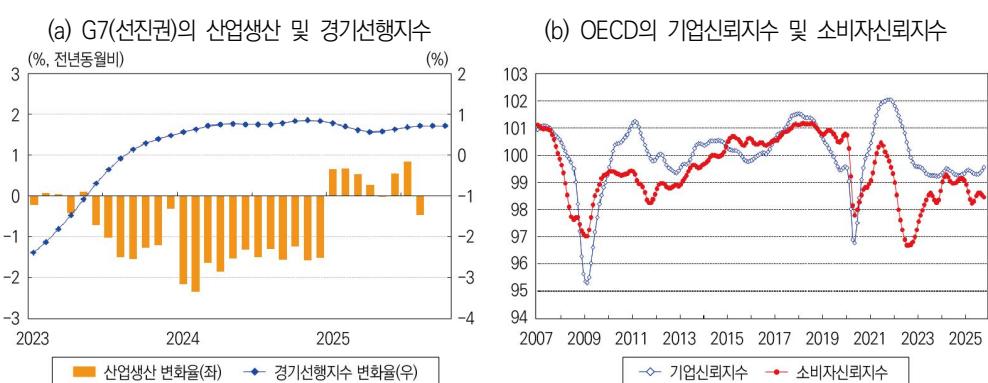
자료: OECD.

주: 1) 지수가 100 이상에서 상승(또는 하락) 시 경기 확장(또는 수축), 100 미만에서 상승(또는 하락) 시 경기 회복(또는 하강)을 의미.

2) 유럽 4개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아시아 5개국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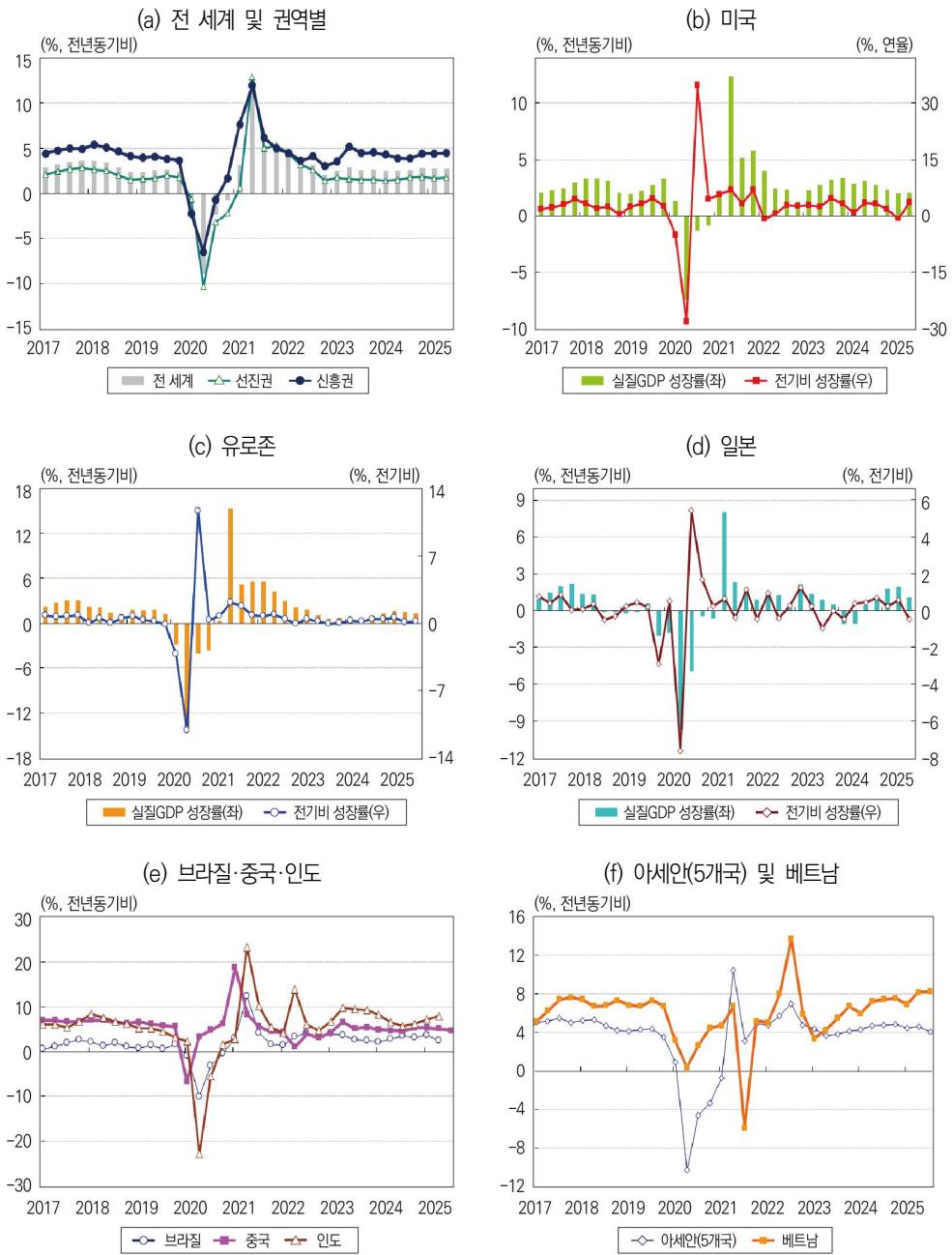
3) ▲는 마이너스를 의미.

〈그림 1-7〉 세계 주요국의 경제지표 및 제감지표 추이(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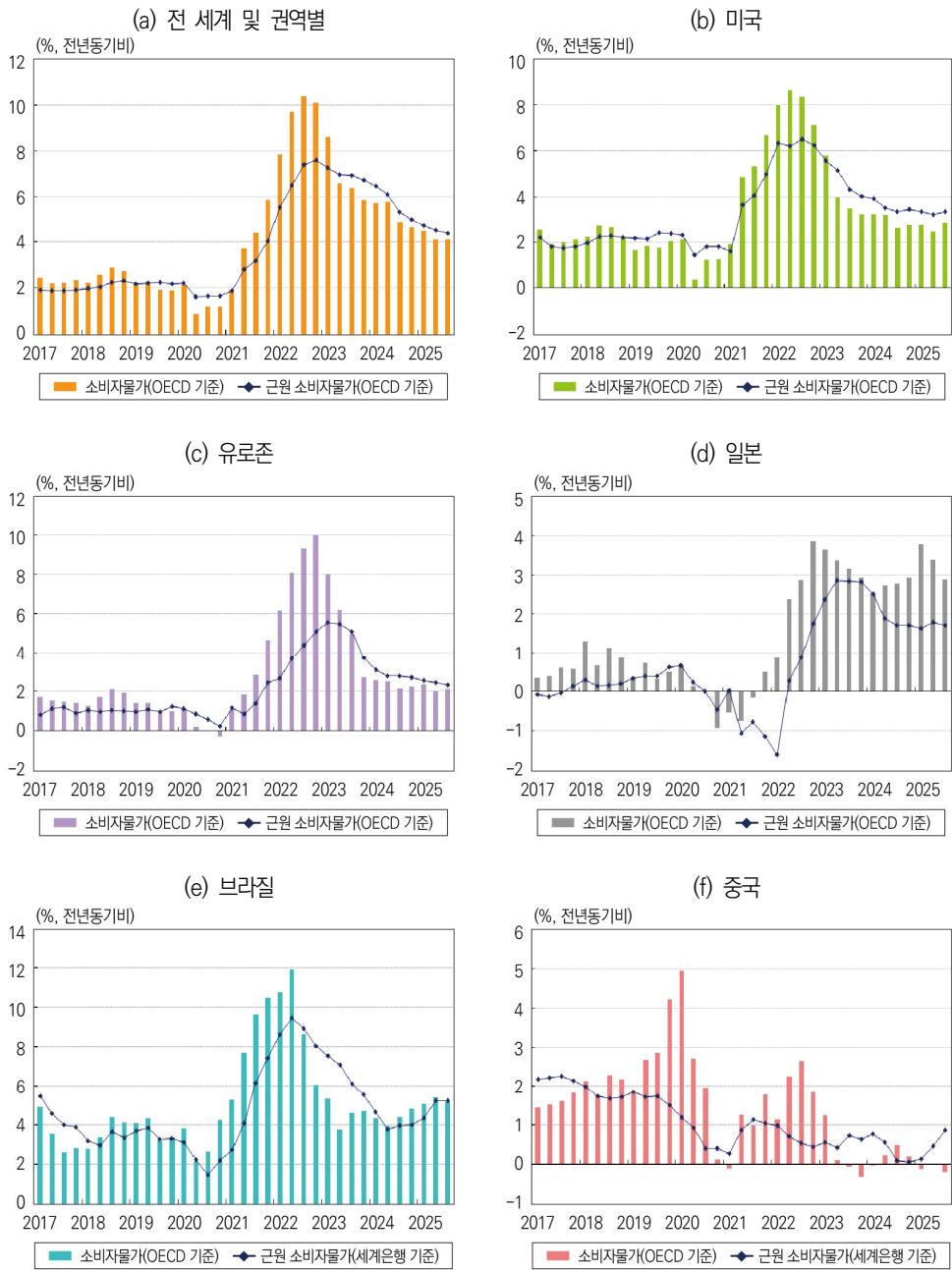
자료: OECD.

〈그림 1-8〉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실질GDP 성장률(분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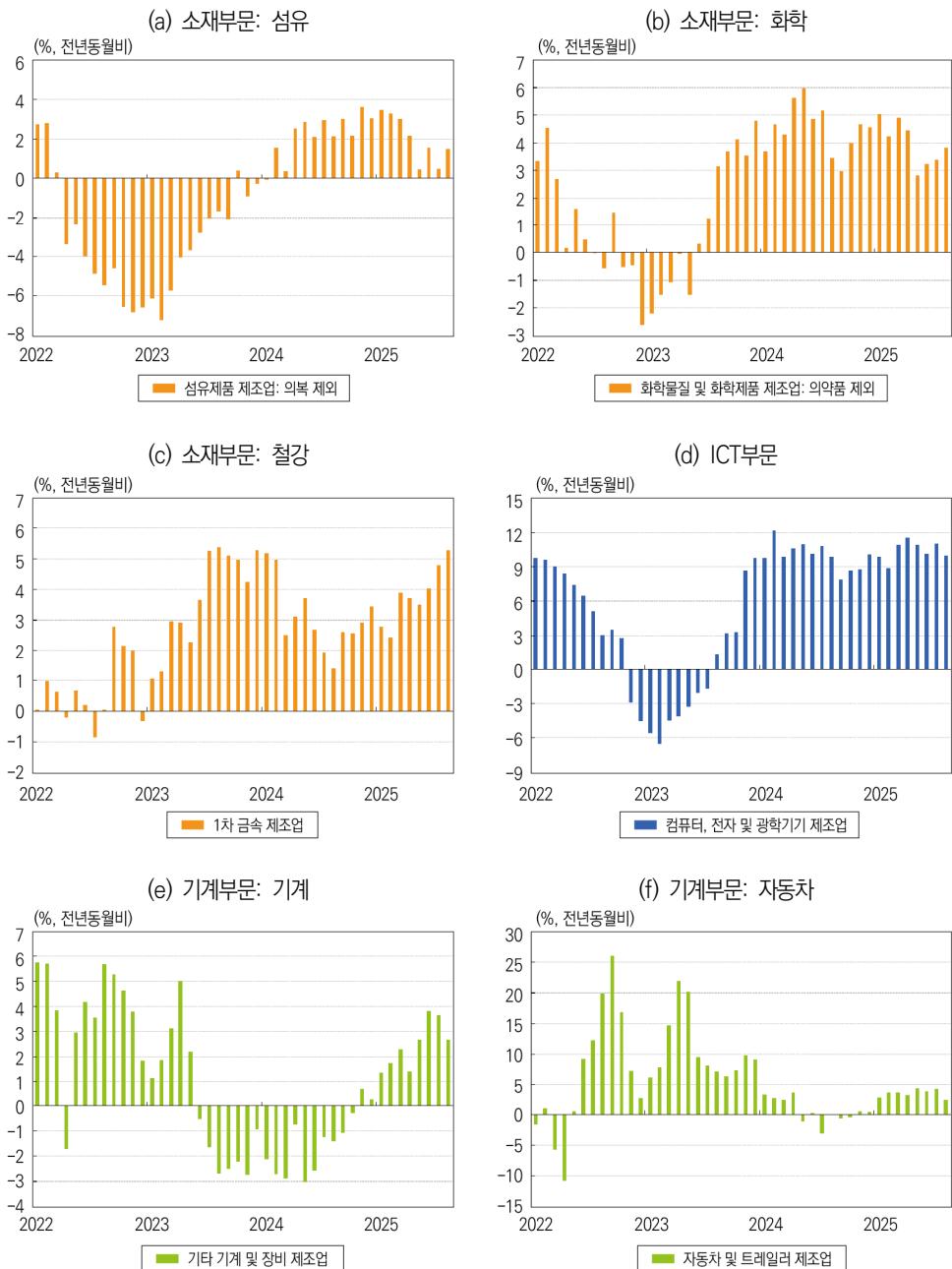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GEM Database; OECD Data Explorer.

〈그림 1-9〉 세계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및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분기별)



자료: OECD; World Bank GEM Database.

〈그림 1-10〉 전 세계 주요 업종별 생산 증가율(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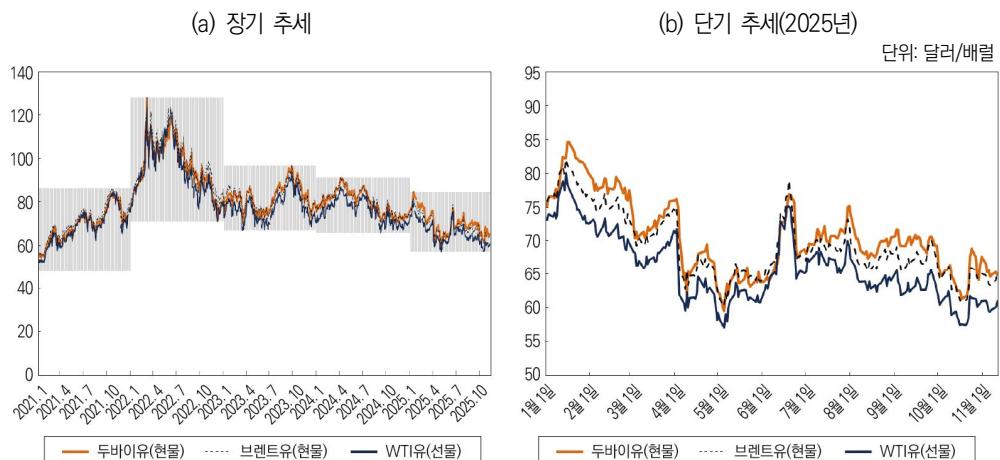


자료: UNIDO, World Manufacturing Production.

## (2) 유가: 배럴당 58달러 내외로 하락 예상

- 국제유가는 2025년 들어 산유국들의 증산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지정학적 불확실성, 미국의 대(對)러시아 제재, 글로벌 원유 수요 회복 기대감 등이 하방 압력 제한
  - 유가는 2025년 초 계절적 수요 증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감 등 수요 확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 둔화 등 우려가 높아지면서 연중 최저치로 하락
    - 유가 연중 최고/최저점(두바이유 배럴당 기준): 84.6달러(1월 17일) / 59.6달러(5월 5일)
  - 하반기 들어 유가는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 격화, 러·우 분쟁 지속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일시 상승한 이후, 산유국들의 증산 확대 전망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 속에 달러화 강세와 함께 원유 구매 부담 가중 및 수요 둔화 우려까지 부상하면서 하락세
  - 다만, 미국 정부의 러시아 석유기업 제재(10월 23일)로 공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고, 미·중 정상회담, 미·인도 무역 합의 등으로 글로벌 수요 회복 기대가 강화되며 하락세 제한

〈그림 1-11〉 국제유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

주: 음영 부분은 연간 변동 범위(최솟값~최댓값)임.

- 2026년 국제유가는 글로벌 원유 수요가 제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산유국들의 생산조정 강도 및 재고 둔화 여부 등이 주요 관건으로 작용하면서 하락이 예상
    - 수요 측면에서는 인도 등 신흥국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완만한 원유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글로벌 원유 재고의 높은 수준이 제한 요인
    - 공급 측면에서는 OPEC의 2026년 1분기 중 증산 규모 동결 합의\*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OPEC 국가들의 원유 생산량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유가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 OPEC은 2025년 12월까지의 원유 증산 기조를 유지하되, 2026년 1분기에는 추가 생산량 확대를 일시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2025년 11월 2일)
  - 다만, 유가 하락에 대응하여 산유국들의 추가 생산조정 및 재고 증가세 둔화로 공급 확대 압력이 완화되고,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유가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유가의 향방과 관련해서는 러·우 전쟁 지속 여부,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세계 원유 수요 조정, 공급과잉에 대응한 OPEC의 산유량 조정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 2026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상반기 평균 57.5달러(전년동기비 20.1% 하락), 하반기 60.0달러(11.8% 하락)로, 연평균 58.8달러(전년 대비 16.2% 하락)에 이를 전망

〈표 1-3〉 국제유가 전망(EIA 기준)

	2025					2026(e)				
	1/4	2/4	3/4	4/4(e)	연간(e)	1/4	2/4	3/4	4/4	연간
WTI유	71.9	64.6	65.8	58.1	65.0	48.0	48.3	48.7	49.0	48.5
브렌트유	75.8	68.0	69.0	62.1	68.6	52.0	51.7	52.0	53.0	52.2

자료: EIA 단기에너지전망 보고서(2025.10월)

〈표 1-4〉 2026년 국제유가 전망

단위: 달러/배럴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두바이유	71.9 (-13.6)	68.1 (-10.4)	70.2 (-11.9)	57.5 (-20.1)	60.0 (-11.8)	58.8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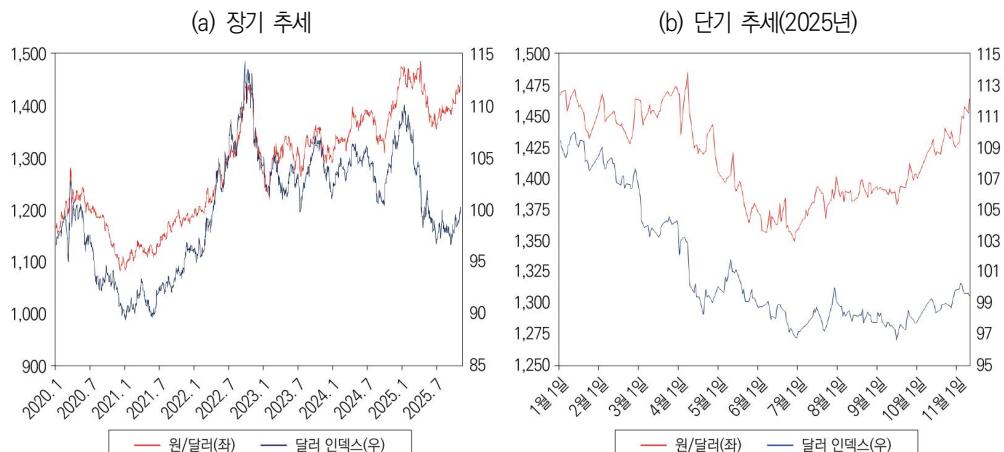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단위 %.

2) 2025년 하반기 및 연간은 11월 20일 현재 기준.

### (3) 환율: 연평균 1,390원 내외로 하락 예상

- 2025년 원/달러 환율은 대내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의 관세 부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오다, 미국과 주요국의 무역 협상 타결, 국내 수출 개선 등으로 하락하고, 이후 한·미 무역 협상 불확실성과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 등이 원화 약세를 이끌면서 상승
  - 연초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상승세를 보인 이후, 미국과 주요국의 무역 협상이 전개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하면서 하락세가 진행
  - 6월 이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달러 강세 요인과 미국 경제지표 부진과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달러 약세 요인이 공존하면서 1,300원대를 유지

〈그림 1-12〉 원/달러, 달러 인덱스 추이



자료: ICE Data Services, 한국은행.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연준의 첫 금리 인하(9월 18일)에도 불구하고 추가 금리 인하 관련 불확실성과 한·미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상승 전환
- 이후 국내 주식시장 강세와 한·미 무역합의(10월 29일) 등에도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감 약화, 대규모 대(對)미국 투자(3,500억 달러) 우려 등으로 7개월 만에 다시 1,460 원(11월 12일)을 상향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치에 육박

- 원/달러 환율 연중 최고/최저점: 1,484.1원(4월 9일) / 1,350.0원(6월 30일)

○ 2026년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 약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원화 강세 폭이 제한적일 전망

- 미국 연준의 원화적 통화정책이 2026년에도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우려 등은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
- 한·미 간 금리 차 축소는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나,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우리나라 수출 둔화, G2(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은 원화 강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 대미국 투자 연간 규모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 집행 방식과 시기에 따라서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향후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분쟁의 전개 방향,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하 속도 등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 2026년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평균 1,400.8원(전년동기비 1.8% 하락), 하반기 1,382.5 원(전년동기비 1.7% 하락)으로, 연평균 1,391.7원(전년 대비 1.8% 하락) 내외가 예상

〈표 1-5〉 원/달러 환율 전망

단위: 원/달러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426.7 (5.7)	1,406.8 (2.2)	1,417.7 (4.0)	1,400.8 (-1.8)	1,382.5 (-1.7)	1,391.7 (-1.8)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단위 %.

2) 2025년 하반기 및 연간은 11월 20일 현재 기준.

### 3. 2026년 국내 경제 전망

#### (1) 경제성장

- 2026년 국내 경제는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이 전년도의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의 감소가 예상되나, 소비의 견조한 증가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등으로 내수가 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연간 1.9%의 성장률이 예상
- 민간소비는 물가와 금리의 하향 안정화 속에 실질소득 및 가계소득 증가, 정부 지원책 등 소비 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2025년보다 높은 연간 1.7%의 증가율이 예상되나, 체감물가 변화와 가계부채 문제 등이 주요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
- 설비투자는 국내 기업들의 자본조달 여건 개선과 AI 관련 첨단산업 투자 수요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나,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와 대외 불확실성 지속 등의 영향으로 2025년보다 약간 낮은 연간 1.9%의 증가율이 예상
-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비용의 안정화, 정부의 SOC 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연간 2.7% 증가하면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누적과 주택 입주 물량 감소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수출(통관 기준)은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 기조,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의 일부 완화, AI 관련 반도체 수요 증가세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 둔화, 전년도의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감소(-0.5%)가 예상
- 2026년에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관세 부담에 따른 거시적 영향 정도, AI 중심 ICT 경기 호조의 지속 여부, 주요국 재정·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대내적으로는 내수 회복의 강도 및 지속 여부, 수출 둔화 정도 등이 변수
  - 해외 수요와 세계 교역 변화에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과 정부 정책 의존도가 높은 내수의 회복 정도가 주요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

〈표 1-6〉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

	2024	2025			2026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2.0	0.3	1.7	1.0	2.2	1.5	1.9
민간소비	1.1	0.7	1.8	1.3	1.9	1.4	1.7
설비투자	1.7	4.5	0.4	2.4	1.7	1.9	1.9
건설투자	-3.3	-12.2	-5.7	-8.9	3.2	2.1	2.7
통관 수출	6,836 (8.1)	3,347 (0.0)	3,657 (4.8)	7,005 (2.5)	3,445 (2.9)	3,526 (-3.6)	6,971 (-0.5)
통관 수입	6,318 (-1.7)	3,069 (-1.6)	3,244 (1.4)	6,313 (-0.1)	3,128 (1.9)	3,168 (-2.3)	6,296 (-0.3)
무역수지	518	278	413	692	317	358	675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5년 하반기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 (2) 부문별 전망

### 1) 민간소비

○ 민간소비는 2025년 초 소비심리 악화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이후 3분기 들어 물가 안정 및 소득 여건 개선, 정부의 소비 지원책 등에 힘입어 내구재와 서비스 중심으로 회복

- 소비는 연초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상반기까지도 0% 내외의 부진한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하반기 들어 물가 안정과 정부 소비 지원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확대
- 실질GNI(국민총소득)는 수입물가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물량 확대로 인한 (소득)교역조건의 개선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지속
  - 수입물가 변화율(전년동기비, %, 달러 기준): (2025.1/4) -4.2 → (2/4) -6.7 → (3/4) -4.5
  - 소득교역조건지수 변화율(전년동기비, %): (2025.1/4) 0.1 → (2/4) 8.6 → (3/4) 12.3
- 소매판매는 내구재(승용차·통신기기 등) 판매가 올해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인 데 힘입어 2022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개인서비스(숙박·음식점 등) 생산도 2024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하면서 서비스 소비의 회복 가능성은 시사

- 내구재 판매(전년동기비, %): (2025.1/4) 3.0 → (2/4) 4.9 → (3/4) 7.3
- 준내구재 판매(전년동기비, %): (2025.1/4) -4.2 → (2/4) -4.5 → (3/4) 0.8
- 개인서비스 생산<sup>1)</sup>(전년동기비, %): (2025.1/4) -2.8 → (2/4) -1.6 → (3/4) 1.2

〈표 1-7〉 민간소비 관련 지표 증감률

단위: %(전년동기비), 원계열

	2023	2024					2025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민간소비	2.0	1.1 (0.5)	0.7 (0.0)	1.3 (0.4)	1.1 (0.2)	1.1	0.6 (-0.1)	0.9 (0.5)	1.9 (1.3)
소매판매액지수	-1.4	-1.6 (-2.2)	-3.1 (-0.3)	-1.5 (0.7)	-2.0 (-0.4)	-2.1	-0.3 (0.4)	0.0 (-0.9)	1.5 (1.5)
실질 GNI	2.1	6.2 (1.7)	4.8 (-0.5)	2.7 (0.3)	2.3 (0.7)	4.0	0.7 (0.1)	2.2 (1.0)	-
실질 가계총처분가능소득	2.0	5.8 (2.1)	2.2 (-0.6)	2.0 (-0.7)	3.4 (2.8)	3.4	-0.7 (-2.2)	1.2 (1.7)	-
평균소비성향	70.4	71.9 (2.6)	71.0 (-1.3)	69.4 (-2.2)	69.0 (-0.6)	70.3 (-0.2)	69.8 (1.1)	70.5 (1.0)	-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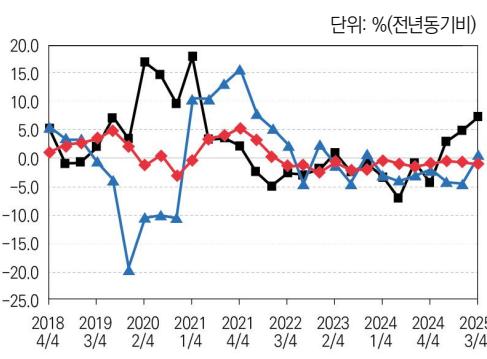
주: 1) ( ) 안은 계절조정 자료의 전기비.

2) 평균소비성향(%)은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1인 이상, 실질) 자료.

3)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

〈그림 1-13〉 소비지표 추이

(a) 재화별 소매판매 증감률



(b) 민간소비와 실질GNI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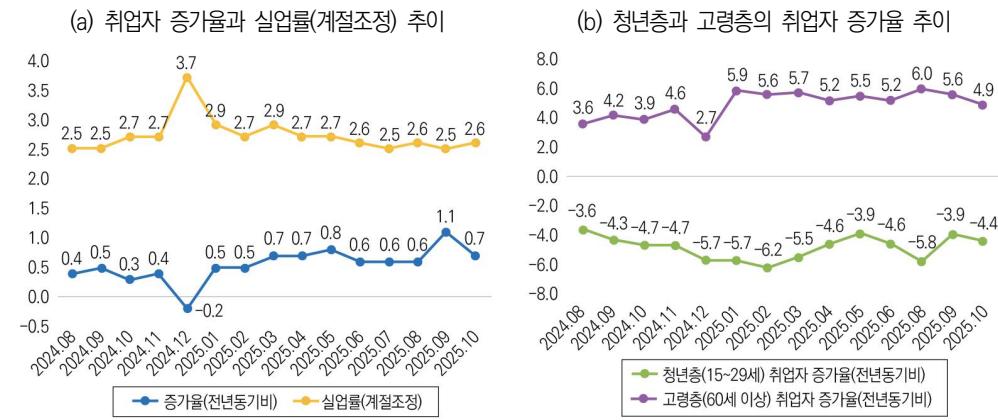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자료: 한국은행.

1) 서비스생산지수에서 숙박·음식점, 예술·스포츠·여가, 협회·수리·개인,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등의 가중합산 기준.

- 고용 여건은 전 산업 취업자 수가 2025년 들어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유지하고, 실업률이 2%대 중반 수준을 이어가는 등 대체로 안정적이나, 연령 간 양극화 현상은 부담 요인
  - 취업자 수는 2025년 3분기 현재 전년동기비 0.8% 증가한 21만 7,000명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실업률은 2.5% 수준으로 지난 2024년 3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
  - 취업자 수(전년동기비, %): (2025. 1/4) 0.6 → (2/4) 0.7 → (3/4) 0.8
  - 계절조정 실업률(%): (2025. 1/4) 2.8 → (2/4) 2.7 → (3/4) 2.5
- 다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가 2025년 3분기 현재 전년동기비 4.6% 감소한 반면에, 고령층(60세 이상)에서 5.6% 증가하는 등 연령 간 고용 양극화 문제는 상존

〈그림 1-14〉 고용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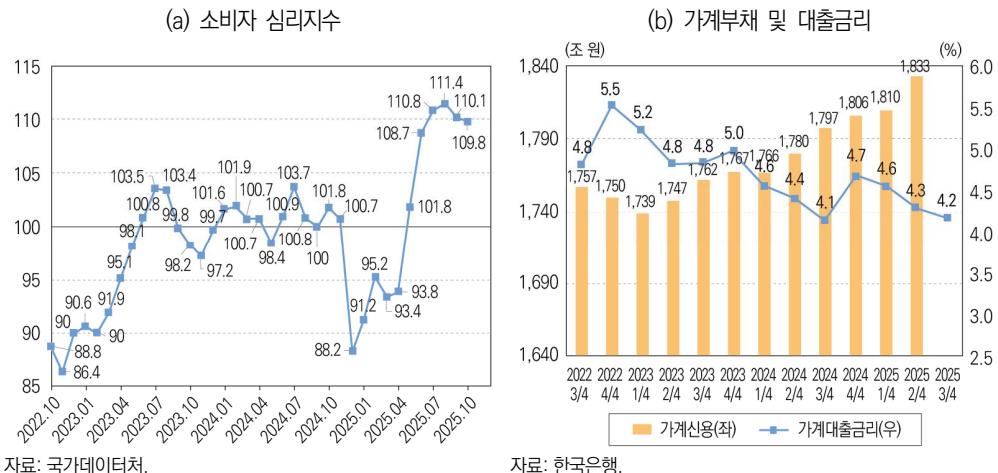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자료: 국가데이터처.

- 소비심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로 확대되었으나, 금리 하향세가 이어지고 있어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
  - 소비자 심리지수는 2024년 12월에 급락(88.2)한 이후 2025년 1월에 반등(91.2)하고, 8월에 연중 최고치(111.4)를 기록한 이후 100을 지속 상회하면서 긍정적인 모습
  - 가계부채가 2024년 2분기부터 5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계대출 금리가 한 은의 금리 인하(2월 25일, 5월 29일)로 낮아지면서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은 완화

〈그림 1-15〉 소비자심리지수, 가계부채 및 대출금리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자료: 한국은행.

- 2026년 민간소비는 체감물가 변화와 가계부채 부담 등의 리스크 요인에도 실질소득 및 가계소득 증가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물가 안정세 및 금리 하향세 등을 바탕으로 소비 여건의 개선과 소비심리의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연간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2%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기대인플레율(1년 후 %, 소비자동향조사): (2024.12월) 2.9 (2025.6월) 2.4 (10월) 2.6
- 민간소비는 물가와 금리의 하향 안정화 속에 실질소득 및 가계소득 증가와 정부 지원책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25년보다 약간 높은 1.7%의 증가율이 예상

〈표 1-8〉 민간소비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민간소비	0.7	1.8	1.3	1.9	1.4	1.7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5년 하반기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 2) 설비투자

- 설비투자는 2025년 들어 글로벌 무역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 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비 증가세가 지속

〈표 1-9〉 설비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2024					2025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설비투자	1.7	-2.2 (-1.0)	-2.5 (0.0)	6.6 (5.4)	5.3 (0.8)	5.8 (-0.4)	3.4 (-2.1)	0.7 (2.4)
기계류	1.8	-1.8 (0.9)	-5.7 (-1.8)	7.2 (6.9)	8.2 (1.8)	2.5 (-4.6)	2.6 (-1.0)	
운송장비	1.4	-3.4 (-7.9)	9.0 (6.7)	4.6 (0.0)	-4.7 (-3.0)	20.4 (15.9)	5.8 (-5.8)	

자료: 한국은행.

주: 1) 2025년 3분기는 잠정치.

2) ( ) 안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 설비투자지수도 기계류와 운송장비의 동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024년 하반기부터의 회복 기조가 이어지는 모습이나, 2025년 3분기에는 증가세가 둔화(전년동기비 2.0%)

〈표 1-10〉 부문별 설비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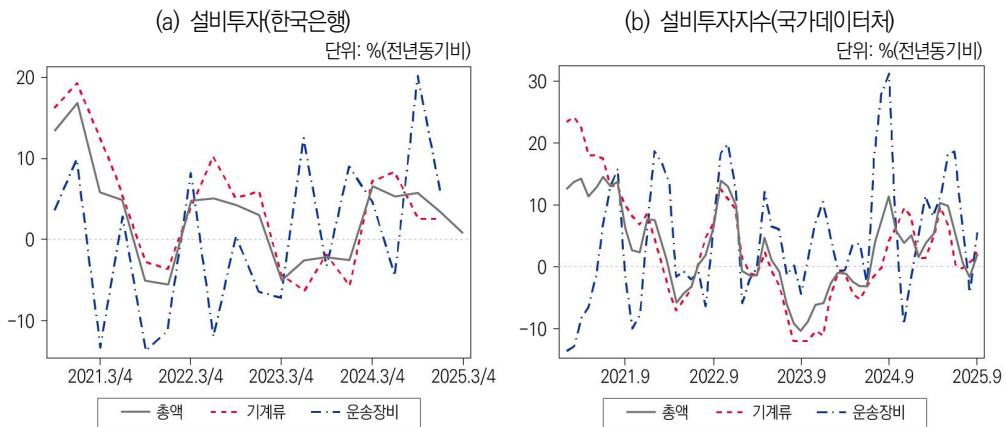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비)

부문별	2024				202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7월	8월 <sup>1)</sup>	9월 <sup>1)</sup>
총지수	-1.4	-3.3	11.5	5.3	5.7	5.3	2.0	-5.7	-0.6	12.8
기계류	-1.4	-3.1	4.4	8.0	4.8	0.4	2.6	2.0	1.9	3.7
일반기계류	0.6	-5.7	11.2	14.6	8.7	-0.4	-0.3	1.3	0.9	-2.5
전기 및 전자기기	-0.1	5.7	-9.4	-6.4	-4.6	-1.8	7.2	4.7	2.3	14.5
정밀기기	-10.0	-4.9	7.9	11.6	9.2	12.0	9.2	3.2	8.9	15.4
기타기기	-5.2	-3.8	-6.6	-1.8	-3.5	-6.8	-1.6	-5.5	-7.6	8.7
운송장비	-0.1	-3.8	30.0	-1.8	8.1	18.3	1.1	-18.1	-5.1	40.1
자동차	-15.9	-13.9	13.5	-6.7	7.5	16.7	21.1	11.0	18.6	35.5
기타운송장비	45.7	22.4	62.5	7.7	6.3	15.9	-32.5	-48.8	-50.2	40.5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 1) 잠정치.

〈그림 1-16〉 설비투자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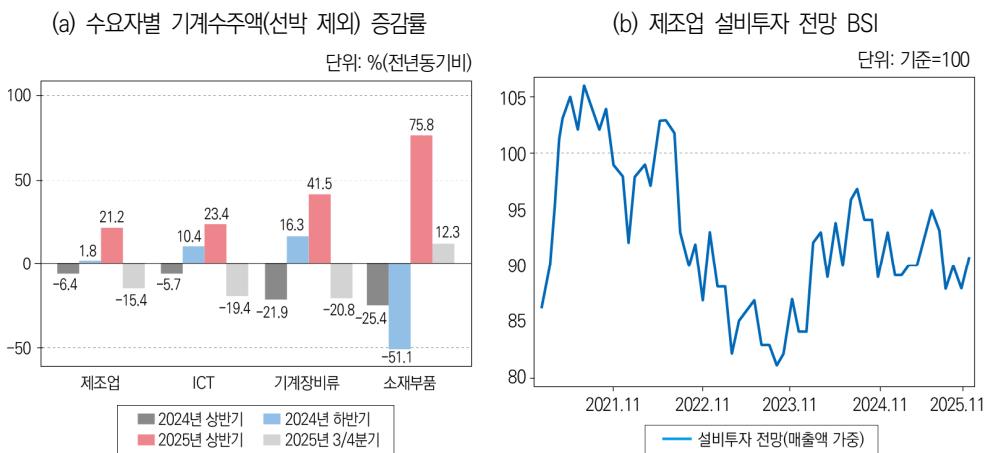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주: 설비투자지수 증감률은 3개월 중심항 이동평균.

- 설비투자 선행지표는 제조업 기계수주액이 2025년 상반기에 두 자릿수 증가율(21.2%)을 기록하고, 3분기에는 ICT(-15.4%)와 기계장비(-20.8%)의 동반 감소로 15.4% 감소
  - 설비투자 BSI(한은 기업경기실사지수)는 2025년 상반기에 일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 다시 낮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심리 약화 및 투자 지연 가능성은 시사

〈그림 1-17〉 설비투자 선행지표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주: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은 다음 달 전망.

- 제조업 설비투자조정압력은 2025년 3분기에 운송장비(자동차 8.6%포인트, 기타운송장비 20.4%포인트)와 ICT(6.0%포인트) 부문에서 상당폭 높아지고, 소재부품에서도 소폭 확대

〈표 1-11〉 설비투자조정압력 추이

단위: %포인트

		2024				202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7월	8월 <sup>1)</sup>	9월 <sup>1)</sup>
제조업		4.8	4.4	1.9	3.1	1.3	1.3	4.6	3.9	-0.1	10.3
ICT		26.0	15.7	8.7	6.7	7.5	3.5	6.0	5.7	0.2	12.0
기계 장비류	자동차	-4.0	-0.8	-5.2	-1.2	1.1	-0.5	8.6	6.8	7.3	12.0
	기타운송장비	14.3	13.4	13.1	9.4	16.6	20.0	20.4	22.9	-0.4	39.8
	일반기계	-6.1	-1.2	2.1	5.1	1.7	4.6	7.4	10.0	4.1	7.7
소재 부품	석유정제	3.9	0.7	6.9	-3.7	-6.3	-1.2	2.2	5.1	-0.8	2.5
	화학제품	-2.0	4.4	3.9	4.3	-0.1	-2.6	0.7	-0.6	-1.3	4.1
	1차금속	0.6	-6.2	-3.2	-1.8	-7.4	-0.1	0.3	0.3	-4.2	4.9
	섬유제품	-6.8	0.4	-3.9	4.4	1.1	-5.1	2.5	1.2	-2.8	9.6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 1) 절정치.

2) 설비투자조정압력 =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 제조업 생산능력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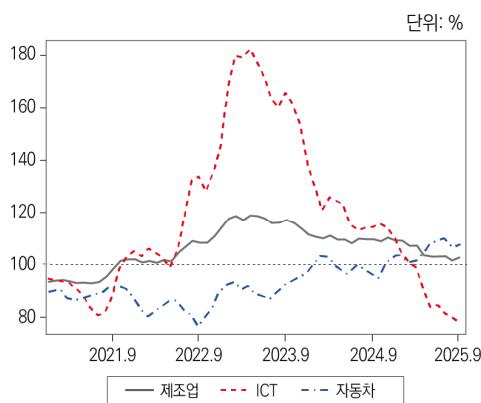
- 제조업 재고율은 반도체 등 ICT 업종(79%, 2025년 9월)에서 빠르게 하락하면서 ICT 관련 투자 수요의 지속 가능성은 시사하나, 자동차 업종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조적 양상

- 제조업 재고율(%): (2024.3/4) 109.7 → (4/4) 109.4 → (2025.1/4) 106.8 → (2/4) 103.1  
→ (3/4) 1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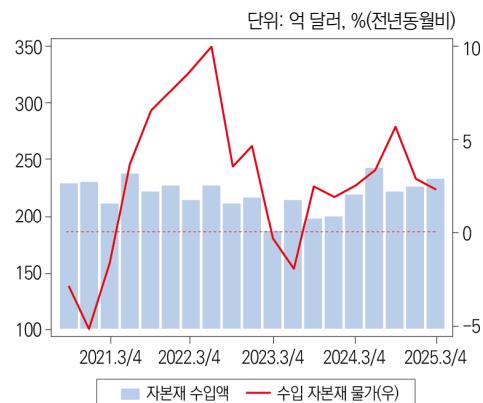
- 자본재 수입액이 2025년 3분기에 전년동기비 6.8% 증가한 것은 수입 자본재 가격의 상승세 둔화와 함께 향후 설비투자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

〈그림 1-18〉 제조업 재고율과 자본재 수입 추이

(a) 주요 업종별 재고율



(b) 자본재 수입과 수입 자본재 물가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주: 1) 재고율 = (계절조정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2) 재고율은 3개월 중심형 이동평균. 자본재수입액은 달러 기준, 수입자본재물가는 원화 기준.

- 2026년 설비투자는 금리 하락 기조에 따른 자본 조달 여건 개선, AI 관련 첨단산업 투자 수요, 주요 기업의 투자계획 발표 등이 이어지면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sup>2)3)</sup>
  - 단, 글로벌 경기둔화, 보호무역주의(미국 관세의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

〈표 1-12〉 설비투자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설비투자	4.5	0.4	2.4	1.7	1.9	1.9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5년 하반기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 2) 주요 기업들의 2025년 3분기 콘퍼런스콜에서의 설비투자 계획에 대한 언급.

· SK하이닉스: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업계 설비투자 증가는 불가피하고, 당사의 내년도 설비투자도 올해 비해서는 상당한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삼성전자: “2026년 당사 메모리 투자는 적극 투자 기조하에 전년비 상당 수준 증기를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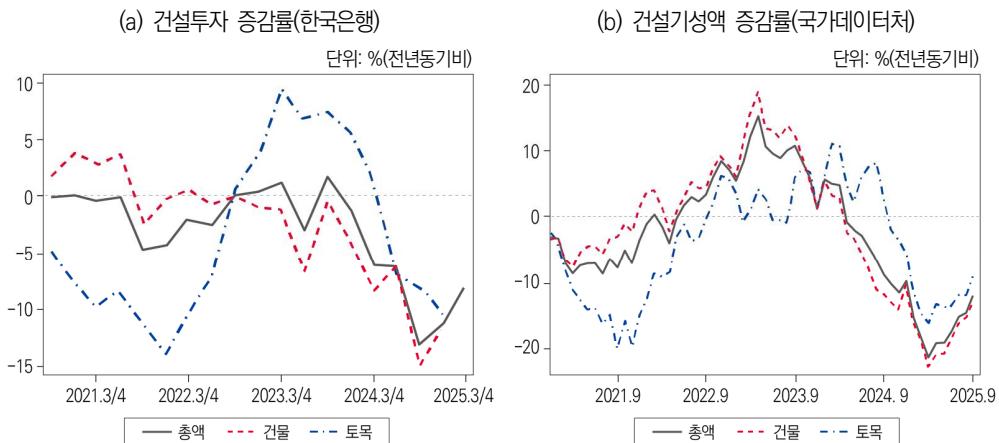
- 3)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2025년 11월 16일).

· 7대 그룹, 향후 5년간 국내에 833조 원 투자계획 발표(삼성: 450조 원, SK: 128조 원, 현대차: 125조 2천억 원, LG: 100조 원, HD현대: 15조 원, 한화: 11조 원, 셀트리온: 4조 원 등).

### 3) 건설투자

- 건설투자는 2025년 들어서도 건축 착공 감소, 공공 SOC 예산 축소 등 영향으로 인해 2024년 2분기부터 시작된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
  - 건물건설은 지난 2022~23년에 걸쳐 주거용 건물 등 건축 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남에 따라 2025년에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토목건설은 2024년 4분기부터 시작된 감소세가 지속되는 모습
  - 건설기성액은 2024년 5월부터 전년동월비 기준 감소세가 이어지고,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부문 모두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 건설기성액(불변, 전년동기 대비, %): (2025.1/4) -21.2 → (2/4) -17.4 → (3/4) -12.0
    - \* 건물건설(불변, 전년동기 대비, %): (2025.1/4) -22.7 → (2/4) -18.5 → (3/4) -13.0
    - \* 토목건설(불변, 전년동기 대비, %): (2025.1/4) -16.1 → (2/4) -14.1 → (3/4) -8.9

〈그림 1-19〉 건설투자와 건설기성액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주: 건설기성액(불변)은 3개월 중심항 이동평균.

〈표 1-13〉 건설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2024					2025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건설투자	건설투자	-3.3	1.6 (4.5)	-1.2 (-3.3)	-6.2 (-3.6)	-6.4 (-4.1)	-13.3 (-3.1)	-11.4 (-1.2)	-8.2 (-0.1)
형태별	건물건설	-5.0	-0.5 (4.5)	-4.0 (-3.9)	-8.5 (-4.6)	-6.3 (-2.4)	-15.3 (-5.4)	-11.8 (0.1)	
	주거용 건물	-5.8	-0.9 (6.2)	-5.7 (-5.4)	-8.5 (-4.7)	-7.6 (-3.4)	-20.5 (-8.8)	-14.3 (1.9)	
	비주거용 건물	-4.3	-0.1 (3.1)	-2.4 (-2.4)	-8.5 (-4.4)	-5.1 (-1.6)	-9.9 (-2.3)	-9.5 (-1.5)	
	토목건설	1.3	7.4 (4.3)	5.6 (-2.1)	1.4 (-1.2)	-6.9 (-8.1)	-8.2 (2.6)	-10.5 (-4.0)	
주체별	민간	-4.6	0.3 (6.8)	-2.7 (-3.1)	-7.4 (-5.8)	-7.6 (-5.0)	-17.3 (-5.0)	-13.8 (1.6)	
	정부	1.6	7.2 (-3.1)	3.6 (-4.1)	2.0 (4.7)	-3.3 (-1.2)	3.3 (3.2)	-4.1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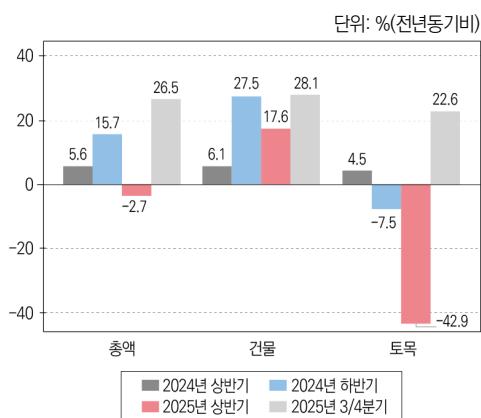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주: 1) 2025년 3분기는 잠정치.  
2) ( ) 안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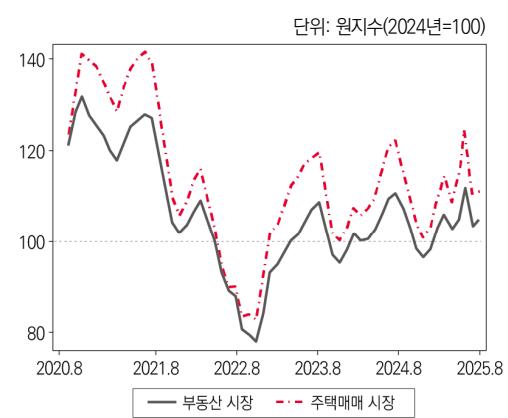
-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2025년 상반기에 토목 부문의 부진 여파로 감소하고, 3분기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향후 건설투자 회복 가능성을 시사

〈그림 1-20〉 건설투자 선행지표 추이

(a) 건설수주액 증감률



(b) 부동산 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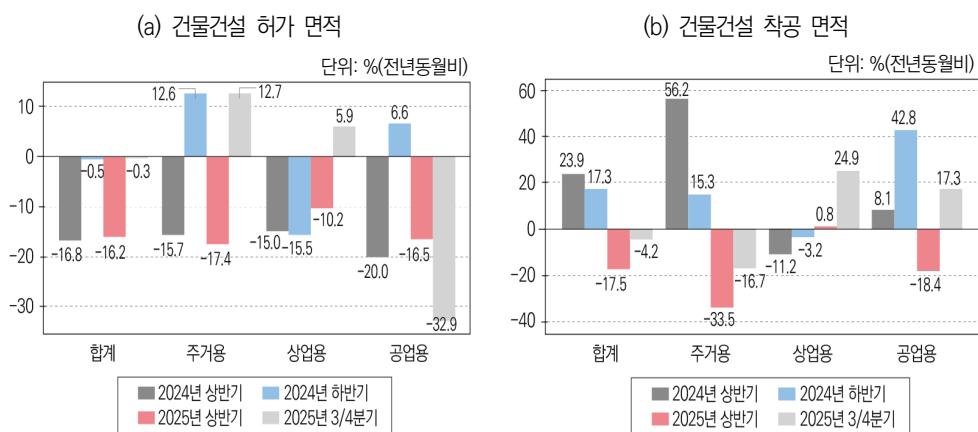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자료: 국토연구원.

- 부동산 심리지수도 2025년 들어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기준선(100)을 웃도는 수준이 이어지면서 향후 건설경기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반면에 건물건설 허가 실적은 주거용 및 상업용 부문의 개선에도 2025년 3분기에 공업용 실적이 크게 부진하면서 정체를 보이고, 착공 실적은 주거용 실적이 2025년 상반기에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수주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

〈그림 1-21〉 건물건설 인허가 및 착공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토교통부.

주: 2025년 7~9월은 잠정치.

- 2026년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비용의 안정화, 정부의 SOC 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감소세를 벗어날 것이나, 미분양 주택 문제의 해소 지연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26년 정부 SOC 예산안 규모는 27조 5,000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2조 원 증가

〈표 1-14〉 건설투자 전망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투자	-12.2	-5.7	-8.9	3.2	2.1	2.7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5년 하반기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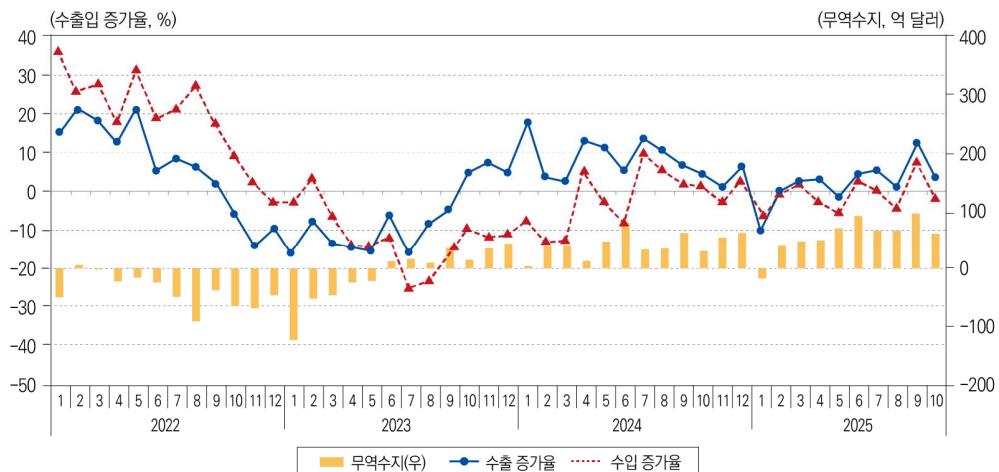
#### 4) 수출입(통관 기준)

##### □ 2025년 동향: 반도체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

○ 수출은 2025년 들어 미국의 관세 부과와 주요국 경기 약세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응한 선제적 주문(front-loading)과 AI 관련 투자 확대로 인한 반도체 수요 지속 등에 힘입어 비교적 견조한 증가 흐름을 시현

- 글로벌 경기 약세와 수요둔화 영향으로 수출이 2025년 1분기에 감소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하면서 2분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
- 수입은 에너지 수입의 감소 영향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증가세로 전환
  - 수출(전년동기비, %): (2024년) 8.1 → (2025.1/4) -2.3 → (2/4) 2.1 → (3/4) 6.5 → (10월) 3.5
  - 수입(전년동기비, %): (2024년) -1.7 → (2025.1/4) -1.4 (2/4) -1.8 → (3/4) 1.5 → (10월) -1.5
  - 무역수지(억 달러): (2024년) 518 → (2025.1/4) 69 → (2/4) 209 → (3/4) 225

〈그림 1-22〉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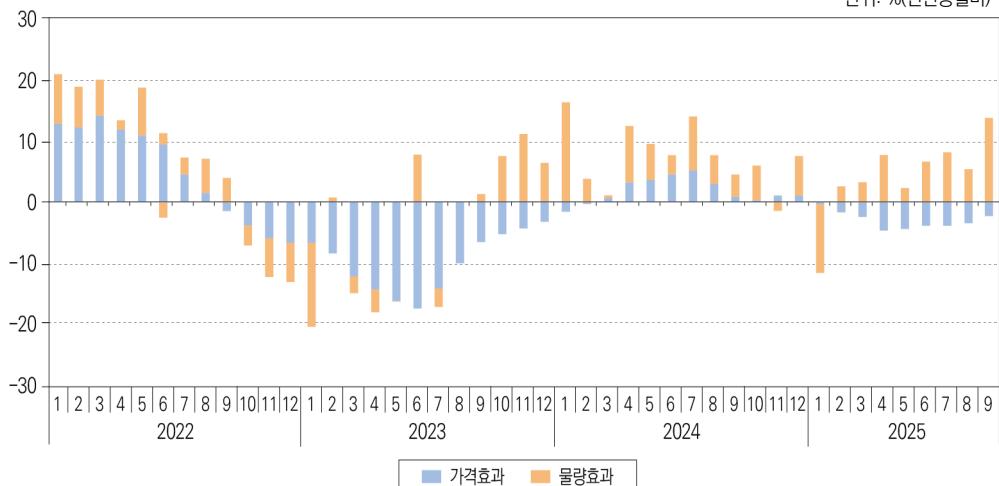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 수출금액을 단가와 물량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수출물량은 일정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호조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단가는 원자재가격 및 유가 하락 등에 기인하여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
  - 수출물량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수출단가는 석유제품 등 일부 품목의 단가 하락 영향으로 인해 하락세가 지속
  - 수출물량(전년동기비, %): (2024) 5.5 → (2025.1/4) -1.6 → (2/4) 5.6 → (3/4) 9.5
  - 수출단가(전년동기비, %): (2024) 1.8 → (2025.1/4) -1.4 → (2/4) -4.1 → (3/4) -3.0

〈그림 1-23〉 수출물량 및 단가, 금액지수 추이

단위: %(전년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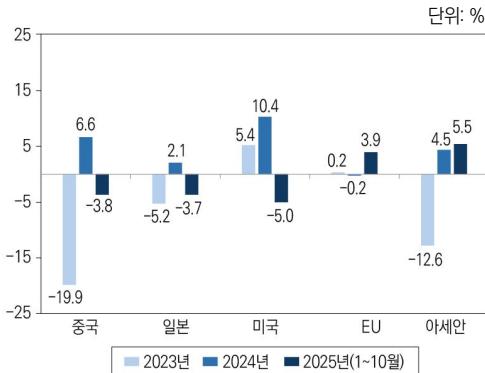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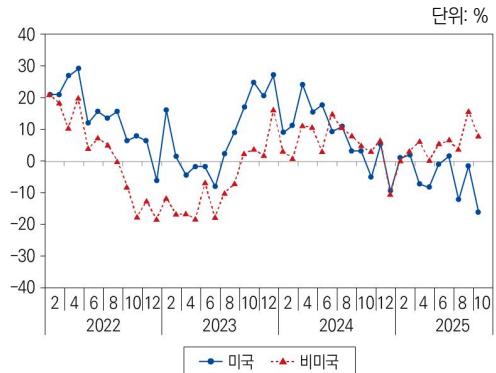
주: 수출단가지수는 수출금액지수를 수출물량지수로 나누어 산정.

- 지역별 수출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아세안(ASEAN)과 EU 지역 수출은 증가
  - 대미국 수출은 AI 인프라 확장 수요로 반도체가 견조한 반면, 미국의 보호무역·관세 리스크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
    - \* 특히 10월 대미국 수출이 전년동월비 16.1% 감소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나,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10월 29일)로 향후 대미국 수출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

〈그림 1-24〉 지역별 수출 증가율



〈그림 1-25〉 대미국 및 비미국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 대중국 수출은 중국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 지속 등의 여파로 반도체,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이 부진하면서 다시 감소 전환

\*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1~10월 누계 기준 17.8% 증가한 것과 달리,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372억 달러로 전년동기비 3.5% 감소하고,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이 2024년 32.8%에서 27.4%로 하락한 반면, 대만과 아세안의 비중이 각각 2024년 15.2%→ 21.7%와 19.8%→ 23.1%로 확대

- 대EU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선박, 석유제품 등 다수 품목에서 증가세

\* EU의 러시아산 경제품 수입 규제 강화와 정유 설비 공급 차질로 연료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2024년 -67.9%→ 2025년 1~10월 누계 기준 57.8%)

-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부품 등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대일본 수출은 석유제품을 포함한 일부 품목의 부진으로 감소

○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와 선박 등에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일반기계, 철강 등은 부진이 지속

- 반도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서버 투자 확대와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진 데 힘입어 수출 호조세가 지속

\* 2025년 1~10월 누계 기준으로 중국향 반도체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대만과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각각 81.1%, 35.1% 증가하며 반도체 수출 증가를 견인

- 선박은 고선가로 수주한 LNG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의 인도량 증가로 수출 증가세 지속

〈표 1-15〉 산업별 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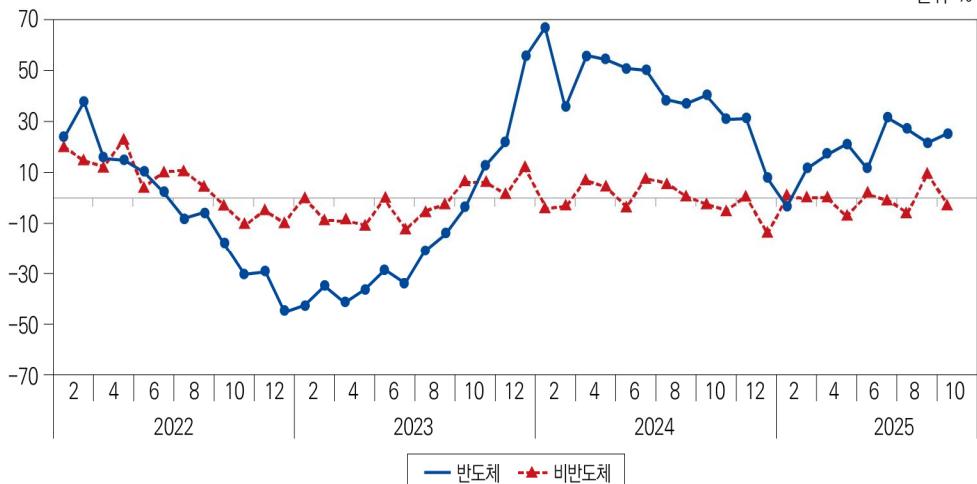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비)

	2024	2025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자동차	-0.1	-1.4	-2.1	11.5	2.3	8.8	8.5	16.8	-10.5	
자동차부품	-1.8	-8.4	-1.1	-3.5	2.5	-7.2	-8.8	6.2	-18.8	
선박류	17.6	13.7	25.5	31.9	64.0	107.7	11.3	21.9	131.0	
일반기계	-4.2	-12.4	-6.4	-7.1	-7.7	-17.5	-10.4	10.5	-15.9	
철강	-5.4	-6.9	-5.2	-7.6	-8.3	-3.0	-15.5	-4.3	-21.5	
석유화학	5.0	-7.2	-14.8	-9.4	-13.7	-9.0	-17.2	-1.4	-21.0	
석유제품	-3.2	-23.5	-12.8	-2.4	0.8	-5.8	-5.3	4.5	12.2	
섬유	-4.1	-8.0	-8.4	-3.7	-9.8	-5.5	-12.6	7.1	-16.9	
가전	0.4	-9.7	-11.6	-5.1	-15.6	-12.1	-14.0	12.0	-19.7	
무선통신기기	11.1	8.0	9.1	-12.7	-3.8	-17.8	-14.1	-7.4	-10.9	
컴퓨터	76.7	26.0	2.6	-16.4	15.0	-18.5	-18.1	-13.2	1.7	
반도체	43.9	6.0	16.3	26.5	11.5	31.5	27.1	21.9	25.2	
디스플레이	0.9	-6.0	-21.5	-5.8	-36.1	-9.0	-9.2	0.9	-8.7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1-26〉 반도체와 비반도체 수출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 자동차 수출은 최대 시장인 미국의 관세 부과와 현지 생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반면, EU에서는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증가세
  - 일반기계는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주요 수출국 경기둔화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의 영향을 받았고, 철강 역시 미국의 고율 관세와 EU의 수입 규제 강화 등 통상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감소세
- 수입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의 증가 등 영향으로 자본재 수입이 증가한 반면, 유가 하락에 따른 1차 산품의 수입 감소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0.6% 감소
- 1차 산품의 수입이 원유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은 감소폭이 축소되고, 일본과 미국 등지로부터의 자본재 수입은 증가

〈표 1-16〉 가공 단계별 수입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비)

	2024			2025(1~9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총수입	6,318	-1.7	100.0	5,228	-0.6	100.0
1차 산품	1,402	-4.2	22.2	1,075	-9.8	20.6
(원유)	853	-1.0	13.5	638	-12.3	12.2
중간재	3,213	-1.7	50.9	2,671	0.2	51.1
자본재	858	3.6	13.6	759	9.6	14.5
소비재	817	-2.6	12.9	699	1.3	13.4

자료: 한국무역협회.

#### □ 2026년 전망: 수출 -0.5%, 수입 -0.3%, 무역수지 675억 달러 전망

- 수출(통관 기준)은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 기조,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의 일부 완화, AI 관련 반도체의 수요 증가세 유지 등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 둔화, 전년도의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2025년보다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대외적으로 G2(미·중) 무역 갈등, 미국의 품목 관세 인상 및 확대 가능성 등이 2026년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표 1-17〉 수출입 전망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비)

	2024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통관 기준 수출	6,836 (8.1)	3,347 (0.0)	3,657 (4.8)	7,005 (2.5)	3,445 (2.9)	3,526 (-3.6)	6,971 (-0.5)
통관 기준 수입	6,318 (-1.7)	3,069 (-1.6)	3,244 (1.4)	6,313 (-0.1)	3,128 (1.9)	3,168 (-2.3)	6,296 (-0.3)
무역수지	518	278	413	692	317	358	675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연구원.

주: 2025년 하반기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 품목별로는 대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및 공급과잉 등으로 석유화학 및 관련 제품 등에서 부진세가 예상
  - 지역별로는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대미국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나, 아세안·EU 등으로의 수출로 다소 보완 예상
  - 물량 측면에서는 미국발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속,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세계 교역 둔화의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
- 수입은 환율과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세 속에서도 수출 둔화에 따른 중간재 수요 감소로 2025년보다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환율 및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입 물가 하락 영향과 수출 둔화에 따른 중간재 수입 감소 영향 등 물량 요인에 기인하여 수입은 소폭 감소
- 2026년 무역수지는 67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2025년보다 흑자 규모가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참고〉 2026년 대외 리스크 진단 및 국내 경제 영향<sup>4)</sup>

- 2026년 핵심 대외 리스크 진단: ①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 ② 환율 변동성, ③ 글로벌 실물경기 부진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들로 인식
  - 2026년 한국경제에 대한 리스크 파악과 대응을 위해 전문가 인식 조사인 「2026년 대외 리스크 인식 조사」를 수행
    - 대외 리스크를 5대 부문, 28개 세부 요인으로 유형화하여 발생 가능성, 파급력, 핵심 리스크 등을 파악
- \* 대외 리스크 5대 부문: 경제 리스크, 사회 리스크, 기술 리스크, 환경 리스크, 지정학 리스크

### 2026년 핵심 대외 리스크 순위

순위	대외 리스크 요인	부정적 영향력	발생 가능성
1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	4.09	4.14
2	환율 변동성	4.18	3.95
3	글로벌 실물경기 부진	4.26	3.84
4	물가 불안정	3.99	3.93
5	지정학적 대립	3.83	3.97
6	유가 및 원자재 가격	4.14	3.50
7	금융시장 불안정성	4.03	3.56
8	공급망 위기(차질, 붕괴 등)	3.90	3.6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1) 발생 가능성은 5점 척도 기준으로 5에 가까울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음.

2) 부정적 영향력은 5점 척도 기준으로 5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영향력이 큼.

#### ①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 발생 가능성 1위, 부정적 영향력 4위

- 글로벌 통상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관세 인상, 공급망 재편, 전략적 동맹 강화 등 구조적 변화가 지속될 것을 예상
-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한국경제의 수출 및 무역구조 등에 직접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4) 국내 경제·산업 전문가 1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대외 리스크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한국경제가 직면할 복합 외부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 조사 기간은 2025년 7월 29일부터 8월 22일까지이며, 대외 리스크는 경제·지정학·환경·사회·기술의 5대 부문, 28개 변수로 구성.

## ② 환율 변동성: 발생 가능성 3위, 부정적 영향력 2위

- 글로벌 통화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에 따라 원/달러 환율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에 대응하여 수출·수입 가격 변동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에 대한 관심을 시사

## ③ 글로벌 실물경기 부진: 발생 가능성 5위, 부정적 영향력 1위

-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에 따라 전 세계 수요 부진 및 교역량 감소 우려
- 글로벌 실물경기 부진은 한국 수출 수요 감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수출·생산·투자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 2026년 대외 리스크 종합 진단: 경제 리스크를 중심으로 복합 위기 구조 심화 우려

○ 경제 리스크의 위험도가 높게 인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

- 경제 리스크의 9개 세부 요인이 모두 발생 가능성과 부정적 영향력에서 상위권을 차지

대외 리스크 발생 가능성과 부정적 파급효과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지정학 리스크는 지정학적 대립이, 기술 리스크는 사이버 리스크 확산 등의 실현 가능성과 부정적 영향력을 크게 평가
  - 지정학적 대립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 등을, 사이버 리스크는 사이버 공격·대규모 데이터 유출 등을 의미하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인식
- 경제 리스크는 내부 요인 간 연계성이 높은 반면, 사회·기술·환경·지정학 리스크는 타 부문의 세부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
  - 개별 리스크 요인은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고, 5대 부문별 리스크가 서로 결합해 충격을 확대하는 연계 구조가 뚜렷
  - 지정학 리스크는 지정학적 대립-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공급망 위기 등 경제 부문의 세부 요인과도 연계
  - 환경 리스크는 유가·원자재 가격 등 경제 리스크 요인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기술 리스크도 허위 정보 확산·양극화 등 사회 리스크 요인과 결합하여 영향

#### □ 거시 안정성 강화 및 복합 리스크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

- 우리 경제가 경제 리스크 요인에 노출 위험도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물가·환율·금융시장 안정성 등 거시경제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
  - 경제 리스크의 세부 요인들이 서로 연계되어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어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안정 조치와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가 필요
- 리스크 간 연계 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개별 리스크 대응’에서 ‘복합 리스크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
  - 리스크 간 상호 전이 가능성을 고려한 종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단일 부문 중심의 대응은 복합 리스크를 충분히 완화하지 못할 가능성
- 민·관이 공통의 위기 인식을 기반으로 선제적·체계적 대응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
  -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와 민간 간 정보 공유 체계와 조기 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

## 제2장

# 13대 주력산업 전망



##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 1. 2026년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 AI 및 신흥국 투자 확대 등의 성장요인에도 불구하고 통상여건 악화, 중국 경기 둔화 및 경쟁력 강화 등으로 산업별 차별적 성장세가 심화되는 한편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생산은 확대
- (세계 수요 여건) AI 중심의 투자가 지속되며 IT신산업군이 글로벌 산업 수요를 견인하겠지만 미국 관세 강화, 미·중 갈등, 중국의 경기 둔화 및 자급률 향상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자동차, 가전, 섬유 등 소비재 산업은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겠지만 통상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으로 증가폭이 제한
  - 조선산업은 컨테이너선사의 선대 확장 및 LNG운반선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통상여건 및 IMO 환경규제 강화 등의 불확실성 확대로 발주 여력 약세 지속
  - 일반기계 및 철강산업의 글로벌 수요는 유럽의 경기 회복 및 신흥국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지만 미국 관세 및 중국의 경기 부진은 하방 압력으로 작용
  - 정유산업은 석유제품 수요 증가폭이 둔화되고, 석유화학산업은 신흥국 중심의 완만한 수요 증가에도 중국 및 선진국의 건설경기 불황이 수요 확대를 제약
  -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가전 및 디스플레이에는 AI 확산 및 OLED 확대 등에 따른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으로, 바이오헬스는 항암·만성질환 및 비만치료제 등의 수요가 견조하게 증가하며 글로벌 산업 수요를 견인

-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미국과 중국은 관세 리스크와 경기둔화가 일부 산업 수요를 제약하는 반면 신흥국은 대부분 산업에서 견조한 수출 성장이 예상, 유럽은 친환경 및 설비투자 회복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미국) 자동차와 일반기계 수요는 고관세와 제조업 비용 상승 등으로 제한적이지만 AI, 데이터센터, ESS 및 바이오시밀러 등 IT신산업 관련 수요는 견조하게 성장할 전망
  - 철강은 OBBBA 법안 등에 따른 인프라 투자 확대로 소폭 증가하고 섬유,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 수요는 증가세 지속
  - (유럽)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등의 수요는 경기둔화 속에서도 친환경 정책과 설비투자 회복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
  - (중국) 자동차, 일반기계 및 철강 등 전통 산업 수요는 경기둔화와 구조전환 정책으로 정체 또는 감소세 지속

〈표 2-1〉 2026년 13대 주력산업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

	국가	비중 <sup>1)</sup>	전망	국가	비중	전망	국가	비중	전망	단위: %
자동차	미국	48.9	☂	서유럽	17.7	☁	CIS	1.6	☀	
일반기계	미국	27.4	☂	중국	13.4	☁	EU	12.6	☁	
철강	아세안, 인도	27.0	☀	EU, 미국	25.0	☁	중남미	12.0	☁	
정유	아시아 (중국 제외)	73.0	☁	미국	11.8	☁	중국	7.8	☁	
석유화학	중국	35.0	☁	아시아 (중국 제외)	28.0	☁	미국	15.0	☂	
섬유	베트남	20.6	☀	중국	13.9	☁	미국	13.0	☁	
정보통신기기	중국	28.6	☁	미국	25.2	☀☀	EU	14.9	☁	
가전	미국	42.9	☂	EU	10.4	☁	중국	7.1	☂	
반도체	중국	27.4	☂	대만	21.1	☀☀	베트남	14.9	☀☀	
디스플레이	베트남	58.9	☁	중국	27.4	☂	멕시코	5.1	☁	
이차전지	미국	44.9	☁	EU	16.1	☀	중국	5.3	☀	
바이오헬스	EU	23.1	☀	미국	19.3	☀	스위스	6.9	☀	

주: 1) 전체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2024년 기준).

2) (전년 대비) 증감률 기준, ☂☂ -10% 이하, ☂ -10~ -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IT신산업 수요는 AI 서비스 및 관련 제품 수요 확대로 견조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가전은 지난 2년간 정부 보조금에 따른 교체 수요 소진으로 전반적 수요는 감소할 전망
- (신흥국) 자동차, 일반기계 및 철강 등의 수요는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와 현지 생산능력 확충으로 견조하게 성장할 전망
- IT신산업 수요도 인프라와 소비재 수요 증가, 글로벌 OEM 계약 확대 등으로 증가하며 국내 관련 산업의 수출 기회 확대

○ (제품 단가 변화) AI · 전동화 · 고성능화 등 기술 고도화와 프리미엄화가 진행되는 산업에서 전반적으로 상승 압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 고관세로 인한 비용 전가도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

- 자동차는 AI 및 자율주행 시스템 등에 대한 투자 비용 확보와 수익성 낮은 전기차 판매 증가에 따른 이익 보존, 고관세 비용의 가격 전가 등 제품 단가 상승 요인이 우세
- 조선은 우리나라의 선별 수주 및 가스운반선 시장의 발주량 증가 등으로 선가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철강, 섬유 및 가전은 수요 둔화 및 중국과의 가격경쟁 심화로 단가 상승폭이 제한적이거나 하락 요인이 혼재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은 타이트한 수급 구조와 고부가 제품 수요 확대에 따른 단가 상승이 지속
- 석유화학은 시장 내 수급 상황 개선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스프레드 확대로 전년 대비 단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정유와 이차전지는 국제유가 하락, 광물 가격 안정 및 공급우위 상황 지속으로 하락
- 바이오헬스는 제네릭 공급 확대와 미국의 최혜국 대우 가격(MFN) 정책 등으로 가격 하향 압력이 커지는 반면, 위탁생산개발(CDMO) 분야는 수요 증가로 안정적 단가 유지

○ (해외 생산 전망) 2026에도 주요 산업의 해외 생산은 각국의 보호무역, 관세, 현지 수요 대응, 신산업 투자 확대 등의 요인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산업별로 미국, 유럽, 인도 등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생산능력 확충과 라인 조정이 활발히 추진될 예정

〈표 2-2〉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제품 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자동차	· 미국 고관세 정책 지속에 따른 관세 비용 전가	☒
	· 수익성 개선을 위한 SUV, 고급 브랜드 등 수익성 높은 차량에 마케팅 활동 강화	☒
	· 전기차 판매 확산을 위한 보급형 전기차 출시	☂
조선	· 세계 선박 발주량 감소에 따른 조선사 간 경쟁 심화	☂
	· 주요 기자재의 높은 가격과 인건비 상승	☒
	· 중국 조선사의 장남기, 한국 조선사의 선별 수주	☒
철강	· 글로벌 철강 수요의 회복	☒
	· 주요 시장에서의 관세 부과	☒
	· 중국의 설비 과잉 확대	☂
정유	· 국제유가 하락	☂☂
	· 중동, 인도 및 중국의 석유제품 공급 확대	☂
	· 글로벌 석유제품 공급 대비 수요 확대둔화	☂
	· 미국 및 유럽 등 OECD 국가의 노후정제설비 폐쇄	☒
석유화학	·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	☂
	· 국내외 시장 수급 상황	☒
	· 주요 제품 스프레드	☒
섬유	·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화(유가, 화학섬유 원료, 염료 등)	☂
	· 중국발 초저가 시장 확대 및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 인하 압력	☂
	· 고기능성 고부가 제품 수요 확대로 인한 단가 상승	☒
정보통신기기	· SSD 고사양화 및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SSD 시장 상황	☒
	· 스마트폰 및 PC 제품 고급화(AI 내재화, 슬림화 등)	☒
	· 미국의 관세 부과 및 이로 인한 공급망 조정 가능성 상존	☒
가전	· 프리미엄 제품 수요 확대	☒
	· 미국의 관세 부과	☒
	· 가격 상승 부담으로 가성비 또는 중저가 제품 수요 증가	☂
반도체	· HBM, DDR5 등 고부가 제품의 매출 증가	☒☒
	· 범용 제품의 공급 축소에 따라 수요 기업이 적극적으로 재고를 확보하면서 단가 상승	☒
디스플레이	· IT 기기 OLED 채택률 상승	☒
	· LCD 시장 독점력 상승	☒
	· 애플의 폴더블폰 발매로 고부가화	☒
	· 주요 수요처 IT 수요 회복 부진	☂
이차전지	·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광물 가격 안정화 추세	☂
	· 보급형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른 LFP 배터리의 점유율 상승	☂
	· 글로벌 이차전지 업황 부진에 따른 초과 공급 영향	☂
바이오헬스	· 인도산 제네릭 의약품 공급 증가	☂
	· 미국 내 의약품 MFN 정책 구체화	-

주: (전년 대비) 단가 변화, ☂☂ 큰 폭 하락, ☂ 다소 하락, ☒ 다소 상승, ☒☒ 큰 폭 상승.

- (자동차) 미국 조지아의 전기차 전용 신규공장, 인도의 연간 17만 대 생산 공장의 본격 가동, 유럽의 전기차 생산을 위한 라인 조정 등을 중심으로 현지 수요와 관세 대응에 주력
- (조선) 기존 해외 생산 공장의 높은 생산 수준은 유지되고 다양한 협력, 사업 확대를 위한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해외 생산이 증가할 전망
- (일반기계) 미국과 인도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멕시코 생산 거점의 적극적 활용이 예상되지만 중국 내 현지 생산활동은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부진이 지속될 전망
- (철강) 미국 및 인도 등 상공정 분야 및 강관 중심의 해외 생산 확대를 통해 국내 탄소비용 급증, 국내 수요 위축 장기화 및 수출 제약 등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계획
- (석유화학) 미국과 동남아 통합 프로젝트 중심으로 해외 생산의 강보합세 전환 및 수익성 안정화 기대
- (섬유) 미국 관세와 통상 리스크 대응으로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등 저비용 거점 중심의 생산 확대와 현지 범인 및 판매망 확보를 위한 대미 해외직접투자 증가
- (정보통신기기) 스마트폰 및 PC 수요 증가에 따라 베트남과 인도 중심 생산 증가로 지역별 생산 비중 변화 가능성 존재
- (가전산업) 미국, 멕시코 및 인도 등 해외 생산 확대를 통해 글로벌 수요 변화에 대응
- (반도체) 중국에서의 생산을 축소하는 반면, 미국 생산을 확대하며 미 정부 규제 및 투자 요청에 따라 조정
- (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OLED 공장을 중심으로 소폭의 생산 증가가 예상되지만 해외 공장 추가 확대는 제한적
- (이차전지) 미국 및 유럽 거점의 생산 확대와 더불어 EV 배터리 생산라인의 ESS로의 일부 전환을 통해 현지 수요 대응 강화
- (바이오헬스) 해외 생산거점이 중국·동남아 중심에서 미국·유럽으로 확장될 전망이며 CDMO 수주와 현지 문화·규제를 고려한 제품의 생산 증가 기대

〈표 2-3〉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해외 생산 전망

	해외 생산기지(생산 전망)
자동차	중국(C) 미국(◑) 브라질/멕시코(C) 체코/슬로바키아(◑) 튀르키예(●) 인도(◑) 인도네시아(C)
조선	중국(C) 베트남(◑◑) 미국(◑◑◑)
일반기계	중국(↑) 미국(C) 인도(◑)
철강	유럽(C) 아세안(C) 북중미(◑) 인도(C) 중국(●)
석유화학	중국(↑) 아세안(C) 미국(C)
섬유	베트남(C) 인도네시아(C) 중국(●)
정보통신기기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C) 브라질(C) 중국(●)
가전	동남아(C) 인도(◑) 동유럽(●) 멕시코(◑◑) 중남미(◑) 중국(C) 미국(◑)
반도체	중국(↑) 미국(◑)
디스플레이	중국(C)
이차전지	미국(◑) 유럽(◑) 중국(C)
바이오헬스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베트남(◑◑) 아일랜드/독일(◑)

주: (전년 대비) 증감률 기준, ↑↑ -10% 이하, ↑ -10~5%, ● -5~0%, C 0~5%, ◑ 5~10%, ◑◑ 10~20%, ◑◑◑ 20% 이상.

#### □ 국내 공급능력은 IT신산업군을 중심으로 소폭 확대 예상

○ (공급능력 여건) 반도체 및 바이오헬스 중심으로 국내 생산이 확대되는 반면, 철강, 석유화학 및 정유산업의 가동률 감소와 이차전지 및 자동차, 정보통신기기 등의 해외 생산비중 증가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자동차) 국내 자동차업체들의 전기차 생산투자가 지속되면서 2026년 1분기 울산에 연간 20만 대 규모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공장이 가동될 예정
- (조선) 해외 진출 확대와 국내 설비의 사업전환에도 대·중소 조선사 간 협력을 통한 선박 건조 협력으로 생산능력은 유지되거나 소폭 증가
- (일반기계) 첨단기계 및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제조장비 중심의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

〈표 2-4〉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자동차	· 전기차 전용 생산설비 본격 가동	☒
	· 중견 완성차 업체 전동화 전략 강화로 제품 및 생산설비 전환	☒
	·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국내 완성차 업체 해외 생산 물량 증가	↑
조선	· 특수선 시장 진출을 위한 설비 전환	↑
	· 대·중소 조선사 간 협력을 통한 선박 건조 협력	☒
철강	· 저탄소 생산 체계 구축	☒
	· 범용, 노후 설비 위주 폐쇄 검토	↑
정유	· 정제설비 가동률의 보수적 유지	↔
	· 정제설비의 효율 개선	☒
석유화학	· 업스트림 생산시설 신증설	☒
	· 자발적 구조조정	↑
섬유	· 산업용 신소재(탄소섬유, 아라미드) 확대	☒
	· 디지털화 및 AI 시스템 도입	☒
	· 통상 여건 불확실성 축소	☒
	· 범용 섬유 소재 및 봉제 의류의 생산설비 구조조정 지속	↑
정보통신기기	· SSD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 대용량·고성능 SSD 생산 능력 강화	☒
	· 해외 생산 확대로 인한 국내 생산 물량 축소	↑
가전	· 생산 효율화(스마트 공장 구축)	-
	· 프리미엄 제품의 생산 비중 확대	-
	· 해외 생산 확대	↑
반도체	·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DDR4에서 DDR5로 교체	☒
	· HBM 기술개발 경쟁 심화	☒☒
디스플레이	· 8.6세대 RGB-OLED 양산 규모 확대	☒
이차전지	· 해외 생산 비중 증가	↑↑
	· 신제품 개발 및 양산을 위한 국내 마더팩토리 투자 확대	☒
바이오헬스	· 생산설비 가동률 상향 조정	☒
	· 생산설비의 효율 개선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철강) 건설 시장 부진의 장기화, 전력비 급등 등 생산비용 증가 요인 지속에 따라 전기로 제강, 철근 등 건설용 강재 생산능력의 감소세는 이어질 전망
- (정유) 국내 정유사의 신규 경제설비 증설 계획은 없으며 생산공정 개선 등의 리벳팅 및 글로벌 수급 상황을 고려한 경제설비 가동률의 조정을 통해 공급 물량 확대를 추진
  - 2026년 글로벌 경제마진의 상승폭이 석유제품 공급 증가 대비 수요의 완만한 확대로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국내 경제설비 가동률은 보수적으로 유지될 전망
- (석유화학) 울산 산단 내 신증설된 생산설비가 상업 가동을 시작하며 국내 생산능력은 증가하겠으나,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자발적 구조조정으로 증가폭은 제한
  - 신규 생산설비 규모는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의 8%에 해당하지만 국내 주요 업스트림업체 중심의 자발적 구조조정으로 증가 효과의 상쇄 우려
- (섬유) 통상 환경 불확실성 축소에 힘입어 탄소섬유, 아라미드 등 고성능 산업용 신소재 개발과 생산 확대 중심으로 개선될 전망
- (정보통신기기) PC 및 스마트폰 등 완제품의 해외 생산 구조로 국내 공급능력 확대는 제한적이며, 국내 생산 품목은 핵심 부품과 일부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집중
- (가전) 국내 생산능력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프리미엄 제품 생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 해외 생산 확대로 전체 생산능력은 소폭 감소세를 유지할 전망
- (반도체) 메모리반도체 신제품 교체(DDR4 → DDR5)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와 HBM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발전으로 생산능력 향상
- (디스플레이) 8.6세대 RGB-OLED 설비의 본격 가동으로 다소 증가 전망
- (이차전지) 투자 여력 대부분을 해외 생산에 집중하고 있어 국내 설비투자와 생산능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 (바이오헬스) 해외 위탁생산계약 수주 확대 지속으로 생산설비의 상향조정 및 특화 제품 생산을 위한 대량생산 설비 증설 및 글로벌 기준(GMP) 수준의 고도화 추진

## □ 주요 이슈

- (주요 이슈: 미국 관세)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및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며 파생상품 관세 확대 적용의 경우 파급효과 확대
  - (자동차) 미국 정부의 자동차 품목관세가 15%로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지만 고관세 수준으로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
  - 부품의 경우 미국 내 자동차 생산 목적으로 수입된 자동차 부품의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관세 상쇄금 지급 비율이 2026년 5월부터 기존 15%에서 10%로 낮아질 예정으로 부품업체에는 부담 증가
  - 현지 동반 진출한 대형 부품업체의 경우 관세 부과 시 미국 생산 확대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공급망 및 생산량 조정 불가피
- (조선) 선박은 세계 단일 시장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수주산업으로 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며, 간접적인 영향도 크지 않을 전망
  -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핵심 이슈인 한·미 조선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투자와 수출로 이어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
- (일반기계) 일반기계류 품목에 대한 미국의 무역규제 및 관세 정책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를 확대 적용하며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넘어 점차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
  -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국내 일반기계 생산 및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
- (철강)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에 대한 고강도 관세정책 시행(25%, 3월 12일) 및 확대(50%, 6월 4일)되어 적용 중으로 2026년부터 관세 영향이 보다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기존에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 내 철강 수입 시 25%의 관세가 부과되었으나, 한국은 쿼터국으로 지정되어 263만 톤의 쿼터 물량 내에서 안정적으로 수출
  - 2025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시장으로의 선수출 및 미국 내 가격 인상 등의 요인으로 뚜렷

〈표 2-5〉 2026년 미국 관세 및 수출 영향

	영향 정도	내용 설명
자동차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수출) 미국 비중이 37%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으로 부정적 영향</li> <li>(대미 수출) 미국 내 수요 감소로 대미 수출 감소 지속</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업은 수주산업이므로 관세정책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li> <li>다만 대미 관세로 인한 공급망 변화, 해상물동량 변화에 따른 신규 수주 영향의 우려는 있으나, 국내 조선사의 수주잔량이 많아 큰 영향은 없을 전망</li> </ul>
일반기계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수출) 글로벌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일반기계 전체 세계 수요 회복 모멘텀을 제약</li> </ul>
	X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미 수출) 미국 내 일반기계 가격 상승과 건설부문 투자 위축,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현지 수요가 둔화되면서 대미 수출 감소</li> </ul>
철강	X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수출) 대미 수출 감소에 따라 대체국에서의 수출경쟁 격화 예상</li> <li>(대미 수출) 50% 수준의 고율 관세로 미국의 수입의존도는 하락하고 주요 수출국인 한국의 대미 수출 규모 감소 불가피할 전망</li> </ul>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수출)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지만 간접적 영향 우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미 수출) 석유제품은 직접적인 관세 대상에서 제외</li> </ul>
석유화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수출) 감소된 미국형 물량을 아시아 시장(아세안, 인도 등)으로 대체</li> </ul>
	X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미 수출) 관세 인상으로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수출액 감소</li> </ul>
섬유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수출) 공급망 재편에 따른 편의 한계 및 간접수출 위축으로 부정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기업의 공급망 탈중국 및 다변화 혜택은 동남아 등지에 집중되고, 미국 수출에 막힌 중국 제품의 세계시장 확대로 국산 제품의 입지 악화</li> <li>- 미국 시장 위축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생산 물량 및 섬유소재의 대미 간접수출 큰 타격</li> <li>-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한 중국 기업이 생산거점을 베트남, 인도 등 제3국 이전 가속화 또는 중국 정부의 중국 섬유기업 내수 시장 진출 지원으로 한국 수출은 부정적</li> </ul> </li> <li>(대미 수출) 미국 내 수입 물가 상승 압력으로 섬유 수요 위축 및 수출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중국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회 반면, 수출 확대의 지속성 한계</li> </ul> </li> </ul>
정보통신기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C, SSD, 스마트폰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세 영향은 미미</li> <li>다만, 미 관세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으며, SSD의 경우 중국에서 조립된 완제품의 경우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존</li> </ul>
가전	X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수출) 최대 수요처인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부진</li> <li>(대미 수출) 관세 영향이 낮은 미국·멕시코 등 해외 생산 확대로 국내 생산 감소</li> </ul>
반도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수출) 전체 반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li> <li>(대미 수출) 대체상품이 없어 가격 전가가 가능하므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li> </ul>
디스플레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수출) 직접 수출액이 적어 영향력은 제한적</li> </ul>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미 수출) 관세 영향력이 부품사로 전가되어 가격하락 압력으로 작용</li> </ul>
이차전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수출) 대미 관세가 한국 이차전지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li> <li>(대미 수출) 현지화가 많이 이루어져 대미 수출에 미칠 영향 미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수출)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미국 이외의 수요처 발굴 필요</li> </ul>
바이오헬스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미 수출) 주력 수출품인 바이오시밀러 관세 부과에 대비, 미국 내 생산 비중 확대 또는 현지 생산공장 인수·설립에 따른 국내 생산량 감소</li> </ul>

주: 매우 긍정적 ◎, 긍정적 ○, 중립 □, 부정적 X, 매우 부정적 XX.

한 관세 영향이 없었으나 하반기부터는 대미 수출이 급감하며 고율 관세의 영향이 가시화

- (석유화학) 미국 정부의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상호관세가 당초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된 후, 관세 인상 또는 면제 조치에 대한 동향은 제한적
  - 미국발 관세 인상 이후,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가 심화
- (섬유) 지난 7월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당초 미국이 예고했던 25%의 상호관세율은 15%로 최종 합의
  -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편익 한계 및 해외 생산 물량의 대미 간 접수출 위축 등 부정적 영향 예상
- (정보통신기기) 스마트폰, PC, 노트북, SSD 등 정보통신기기는 미국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 있으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상존
  - 스마트폰에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SSD 또는 SSD가 탑재된 서버 및 PC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의 영향이 예상
- (가전) 대미 수출 가전 품목은 상호관세 15%와 일부 품목에 대한 철·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부과 중으로 향후 철·알루미늄 파생상품으로의 범위 확대 우려
- (반도체) 2025년 4월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반도체는 별도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하였고, 수차례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을 언급하였으나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
  - 미국이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에서 한국 반도체를 완전히 대체할 기업이나 제품이 없는 상황으로 판매가격에 전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디스플레이) 직접 수출 비중이 적어 관세부과에 따른 대미 수출 변화가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나, 주요 수요제품 생산국의 관세 영향으로 간접적 영향력은 높음.
- (이차전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미 배터리 시장 위축이 일부 우려되나 이미 우리 업계가 현지화를 많이 이룬 상황에서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바이오헬스) 최대 15% 적용 예정이며 제네릭 의약품은 상호관세 면제이지만 수출 비중이 큰 바이오의약품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가별 생산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조정 필요

〈표 2-6〉 2026년 산업별 기타 주요 이슈 및 수출 영향

	주요 이슈	영향 정도	내용 설명
자동차	전기차 수요 둔화	□	· BEV 수요 둔화 예상되나 우리 업체가 경쟁력 지난 HEV로 이전되면서 수출 및 생산 영향 중립적
조선	한·미 조선 협력	○	· 우리나라 조선사의 미국 투자와 미국 시장 진출로 MRO를 비롯한 선박 관련 수출이 기대되며, 2026년은 한·미 조선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
	미·중 입항세 부과	□	· 미국과 중국의 입항세 부과로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반사이익이 기대됐으나, 미국의 입항세 부과 기준 완화, 1년 유예 등으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철강	기후·환경규제 강화	X	· (생산) 배출권가격 급등과 공급 감소로 배출권 이월 물량 소진한 기업 위주로 기후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가동률 감소 영향 발생 가능
정유	공급우위 수급 구조	X	· 석유제품 수요 증가폭 둔화로 인한 정제마진 및 수출 하락
석유화학	중국 자급률 상승	X	· 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중국 시장 내 수입 수요 감소
		X	· 국내 시장 내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 증가
정보통신기기	AI 스마트폰 전환 가속화와 폴더블폰 비중 확대	□	· 2026년 애플의 AI 스마트폰 및 폴더블폰 출시 가능성이 전망되며, 이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경쟁은 심화되는 반면, 국내 핵심 부품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AI 데이터센터	○	· AI 활용 수요 급증에 대응한 데이터센터 구축 및 AI 서버 투자가 크게 확대될 전망 · 이에 따라 대용량 OLC SSD 수요가 증가 전망
가전	중국 브랜드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X	· 유럽, 동남아 등 주요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이 더욱 심화
	중견 브랜드의 해외사업 성장	○	· 국내 생산기반을 보유한 주요 생활가전 브랜드의 해외사업 매출 확대
반도체	AI 확산	○	· AI 확산에 따라 기업과 정부가 AI 분야 투자를 늘리고 있어 반도체 수요가 증가
	중국 영향력 확대	X	·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 추진으로 첨단 반도체 생산에 성공 · 한국 메모리반도체 기업에 위협 요인으로 부상
디스플레이	8.6세대 양산 역량 확보	○	· IT용 OLED 시장 선점을 위해 양산역량 확보가 절실 · 시장 선점 시 지속적인 수출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ITC, BOE의 OLED 대미 수출 금지	○	· 직접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나, BOE와 애플 간의 협력에 장애요소로 작용 · 국내 기업의 점유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이차전지	미국 감세법(OBBA) 시행	X	·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폐지 → 미국 시장규모 축소, 현지 생산 감소 및 대미 수출 악영향
		○	· 생산세액공제(AMPC) 존속 → 기업의 수익성 확보, 대중 경쟁력 확보 등 긍정 영향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 관련 양대 시장의 중국 견제	◎	· (미국) 재추진 중인 생물보안법 최종 입법 시 중국 바이오 기업 견제 심화, 국내 제품 기회로 작용 · (유럽) EU는 중국 의료기기 기업의 EU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일부 기기의 경우 한국산 제품으로 대체되는 반사이익 시현

주: 매우 긍정적 ◎, 긍정적 ○, 중립 □, 부정적 X, 매우 부정적 X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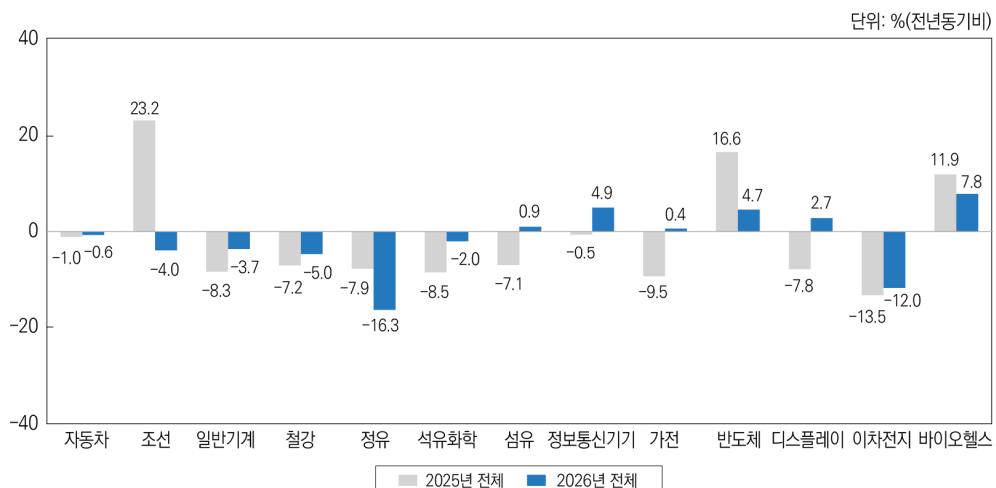
○ (주요 이슈: 산업별) 탄소중립 및 중국과 경쟁 등이 주요 이슈일 것으로 예상

- (자동차) 미국의 구매보조금 폐지 및 중국의 NEV 구매세 면제 혜택 축소 등으로 전기차 수요 둔화 추세가 지속되지만, 유럽 등은 보조금·세제 혜택 강화 및 보급형 전기차 출시 등에 따라 판매가 증가할 전망
- (조선) USTR의 중국 해운사 및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세 부과가 1년 유예됨에 따라, 중국 발주 해운사의 한국 전환 발주 기대감이 약화되나, 수주잔량이 많아 큰 영향은 없을 전망
- (철강) 2026년부터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시행으로 배출권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배출권 총량 축소, 유상할당 강화, 예비분 및 기업 감축 의무 확대로 생산 위축 가능성 존재
- (정유) 석유제품 수요 증가폭 둔화로 인한 정제마진 및 수출 하락
  - 2026년 글로벌 석유제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약 0.67% 정도로 1.0% 이상을 유지하던 2010년대 대비 증가폭이 둔화
- (석유화학) 중국 석유화학 시장 내 주요 제품의 자급률이 상승하면서 중국 시장 내 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
  - 2030년까지 세계 석유화학 시장 내 생산시설 신증설 규모의 44%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범용제품뿐만 아니라 기초유분 제품군까지 국내 유입 규모가 증가
- (가전) 중국 브랜드의 해외 진출 확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 관세는 미국 외 시장에서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반도체) 중국 반도체 기업의 생산능력 향상으로 중국을 비롯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이 확대
- (이차전지) 미국의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폐지로 미국 배터리 시장 위축이 불가피해 (상호관세 부과 이상의) 부정적 영향
- (바이오헬스) 미국의 생물보안법 재추진 및 유럽에서의 중국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제한은 국내 기업에 기회로 작용

## 2.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부문별 전망

- 수출: IT산업과 바이오산업이 13대 산업 전체 수출의 증가를 주도할 전망이나 소재산업군의 부진 지속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 전망
- 2026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중심의 IT신산업군 수출 증가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소재 및 기계산업군의 부진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
  - 2025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약 30.2%의 비중을 차지한 반도체산업이 16.6%나 증가하며 조선과 바이오헬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부진에도 2.1% 증가
  - 글로벌 통상여건의 불확실성 지속, 이차전지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확대와 중국의 경제성장을 정체, 제품 경쟁력 및 자급률 상승이 제약 요건으로 작용
- (기계산업군)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해외 생산 및 현지 부품 조달 등의 영향으로 기계산업군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0% 감소
  - (자동차) 완성차 수출은 물량기준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겠지만, 해외 생산 증가에 의한 수출 대체 및 부품 조달 현지화 확대로 자동차산업 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0.6%

〈그림 2-1〉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전망



주: 1) 달러화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감소한 919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로 전망

- (조선) 고가의 해양플랜트 수출 감소에 따른 일시적 영향으로 소폭 하락하나 고수준 유지
  - LNG운반선과 기자재 수출 확대로 높은 수준은 지속되나 해양플랜트 수출 및 컨테이너선 인도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4.0% 감소
- (일반기계) 미국의 232조 관세 확대 및 중국 경기둔화 등 유럽·인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서의 경기하방 압력이 수출 증가를 제약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전년 대비 3.7% 감소

○ (소재산업군) 섬유는 소폭 증가로 전환되는 반면 정유, 철강 및 석유화학 등의 수출 감소 추세가 지속되며 전년 대비 7.6% 감소 전망

- (철강) 미국의 관세 및 EU의 쿼터 규제 영향 본격화와 제한적 대체 수출 여력 등이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물량 및 금액 각각 전년 대비 6.4%, 5.0% 감소
- (정유) 글로벌 공급 우위 기조와 더불어 유가 하락( $70.4 \rightarrow 58.8$ 달러)으로 인한 단가 하락이 주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며 전년 대비 16.3% 감소
- (석유화학)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 내 자급률 상승으로 인한 수입 수요 감소와 미·중 갈등 및 관세 협상 등 시장 내 불확실성 증가로 전년 대비 2.0% 하락하며 감소세 지속
- (섬유) 미국의 대중국 고관세 부과에 따른 반사이익, 주요국의 금리 인하 기조, 중국 등 주요국의 내수 진작 정책, 첨단제품 수요 확대, 한류 확산에 따른 K-패션 수요 증대로 0.9% 확대되며 증가로 전환

○ (IT신산업군) 2026년에도 AI 수요 증가 및 IT 기기용 고부가가치 부품 수요 확대에 따라 4.2%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해외 생산 확대, 전기차 수요 증가율 둔화 및 중국의 경쟁력 제고는 수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 (반도체) AI 투자가 지속되어 HBM과 DDR5 등 고부가 제품의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겠지만 기저효과 및 수요 안정화로 증가폭( $2025년 16.6\% \rightarrow 2026년 4.7\%$ )은 감소
- (정보통신기기) 생성형 AI로 인한 AI 데이터센터 구축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HDD의 SSD 전환 확대에 따른 대용량·고사양 SSD 수요 증가 및 낸드플래시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 4.9% 증가 전망

- (가전) 미국 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의 회복세와 기저효과 영향으로 수출은 전년 대비 0.4% 증가
- (디스플레이) IT용 제품의 OLED 채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패널 기업의 OLED 역량 확대와 대미 통상여건의 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전년 대비 2.7% 증가
- (이차전지) ESS 수요 및 유럽의 EV 판매는 증가하겠지만 해외 주요 수요국에서의 현지 생산 확대 및 전기차 수요 증가율 둔화로 12.0% 감소
- (바이오헬스) 글로벌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바이오시밀러 등의 위탁생산(CDMO)과 더불어 주력 품목 수출 확대가 지속되며 전년 대비 7.8% 증가

〈표 2-7〉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경쟁업체 경쟁력 약화</li> <li>· HEV 경쟁 우위 지속</li> <li>· 주요 수출시장에서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업체 해외 생산 증가</li> <li>· 중국업체 글로벌 판매 전략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EV 수출 호조에도 부품조달 현지화 가속화와 대미 수출 감소 지속으로 소폭 감소</li> </ul>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가의 LNG운반선 인도 지속</li> <li>· 선박용 엔진을 비롯한 조선기자재 수출 호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고가의 해양플랜트 수출이 많았던 기저효과</li> <li>· 컨테이너선 인도 물량의 대폭 감소로 수출 척수 소폭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NG운반선 및 조선기자재 수출 증가에도 대형컨테이너선과 해양플랜트 감소로 소폭 감소</li> </ul>
일반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플랜트 및 EPC(설계·조달·시공) 부문의 수주가 꾸준히 확대 (2025년 8월 누계 기준 전년동기비 74.2% 증가)</li> <li>· 터빈, 펌프, 밸브 등 관련 기계 기자재 수출도 지속적인 증가세 전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대상에 일부 기계류(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건설기계 등)가 포함</li> <li>·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 우려가 확산되면서 한국산 기계류의 대미 수출 여건 악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플랜트 수요 확대에 힘입어 수출이 일정 부분 확대</li> <li>·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대미 수출 여건 악화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전반적인 감소세 지속 전망</li> </ul>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흥국 대체 수출</li> <li>· 철강산업 고도화 정책 추진에 따른 수출지원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및 EU 관세 영향 분격화</li> <li>· 일본, 아세안 등에서의 무역구제조치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 수출 여력이 제한적이고, 주요 시장의 보호조치 강화와 수출 경쟁 심화 등의 요인으로 물량, 금액 동반 감소 예상</li> </ul>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 하향 안정화에 따른 수요 확대</li> <li>· 항공유 및 나프타 중심의 수요 확대</li> <li>· 비OECD 중심의 수요 증가</li> <li>· OECD의 정제설비 폐쇄 및 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유가 하락</li> <li>· 글로벌 수요 증가폭 둔화</li> <li>· 중국, 인도 및 중동국가의 수출 확대로 인한 아시아 역내 수출 경쟁 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가 및 물량 동반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li> </ul>

(계속)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석유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단가 소폭 회복</li> <li>세계 경제성장을 소폭 성장(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시장 자급률 상승</li> <li>미중 갈등, 관세 협상 등 불확실성 상승으로 수요 관망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량, 수출액 전년비 소폭 감소</li> </ul>
석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li> <li>중국, 대만 등의 대미 수출 고관세에 따른 반사이익</li> <li>글로벌 경기부양 정책 및 금리 인하 기조에 따른 소비 증대</li> <li>한류 확산에 따른 K-패션 수요 확대</li> <li>경쟁국 대비 고환율 유지로 흰자익 및 수출경쟁력 유지</li> <li>첨단소재 생산설비 증설에 따른 수출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상호관세 효과의 본격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li> <li>미국 수입물가 본격 상승에 따른 수요 위축</li> <li>중국 이커머스의 급성장 및 대미 수출이 막힌 제품의 세계시장 잠식 확대</li> <li>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li> <li>해외 생산 확대 및 범용소재 경쟁력 약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6년 수출은 기저효과 · 경기부양 정책 · 한류 수요 · 고환율 · 첨단소재 수출 확대 등 개선 요인 불구하고, 미국발 경기 둔화와 중국 경쟁 심화 등의 제약 요인으로 0.9% 증가 전망</li> </ul>
정보 통신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 데이터센터 · 서버 투자 확대와 SSD 시장 성장</li> <li>AI 스마트폰 및 AI PC 시장 성장</li> <li>핵심 부품(카메라 모듈 등) 수요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폰 교체주기 연장</li> <li>미 · 중과 신제품 경쟁 심화</li> <li>IT 품목에 대한 미국 관세정책 변동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의 온디바이스 AI화 진전과 특히 서버 수요 급증으로 SSD 수출이 확대될 전망</li> <li>다만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포화 상태의 시장 구조는 변수 요인</li> </ul>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수요의 점진적 회복</li> <li>미국 주택경기 회복 및 금리 하락</li> <li>AI 가전 등 고부가 제품 수요 증가</li> <li>중견 브랜드의 해외사업 성과 창출</li> <li>주요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우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시장수요 위축과 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li> <li>미국 외 시장에서 경쟁 심화(특히, 중국)</li> <li>해외 생산 증가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관세는 부정적 요인이나 관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글로벌 수요 회복세 및 기저효과 영향으로 수출은 소폭 증가</li> </ul>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BM, DDR5 등 고부가 제품 수출 증가</li> <li>D램과 낸드플래시 단가 안정</li> <li>AI 확산으로 관련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반기 수요 안정과 기저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반기에는 현재 수출 증가 추세가 이어지겠으나, 하반기에는 수요가 안정화하면서 수출도 안정세로 전환</li> </ul>
디스 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폴더블폰 발매</li> <li>IT용 OLED 채택 확대</li> <li>고부가화로 인한 패널 단가 상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의 양산 역량 상승으로 인한 점유율 축소</li> <li>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가격 하락 압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반적인 시장 회복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프리미엄 제품 패널 비중 상승으로 소폭 상승</li> </ul>
이차 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ESS 수요 증가</li> <li>유럽 EV 판매 확대(독일 등 주요국의 전기차 보조금 재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현지 생산물량의 수출대체 확대</li> <li>미국의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소멸</li> <li>배터리 제품가격 하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SS 수요 증가, 유럽 EV 판매 확대 등 긍정 요인 있지만 해외 주요 수요국 현지 생산 확대 추세 구조화에 따라 수출 감소 불가피</li> </ul>
바이오 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바이오시밀러 승인 요건 완화 및 신규 허가 획득</li> <li>해외 CDMO 수주 확대</li> <li>필러 · 톡신, 백신 등 주력 제품 수출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내 의약품 관련 정책 본격 실시</li> <li>미국형 생산공장 이전 ·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력 수출품과 위탁 서비스를 중심으로 7%대 후반 성장</li> </ul>

□ 내수: 민간소비, 설비 및 건설투자 개선으로 대부분 산업의 국내 수요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

○ (기계산업군) 일반기계는 2.3% 증가, 자동차는 -0.3%로 소폭 감소하는 반면, 조선은 61.1% 나 감소

- (자동차) 주력 판매차종의 모델 노후화와 경기 침체 지속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한 170만 대 기록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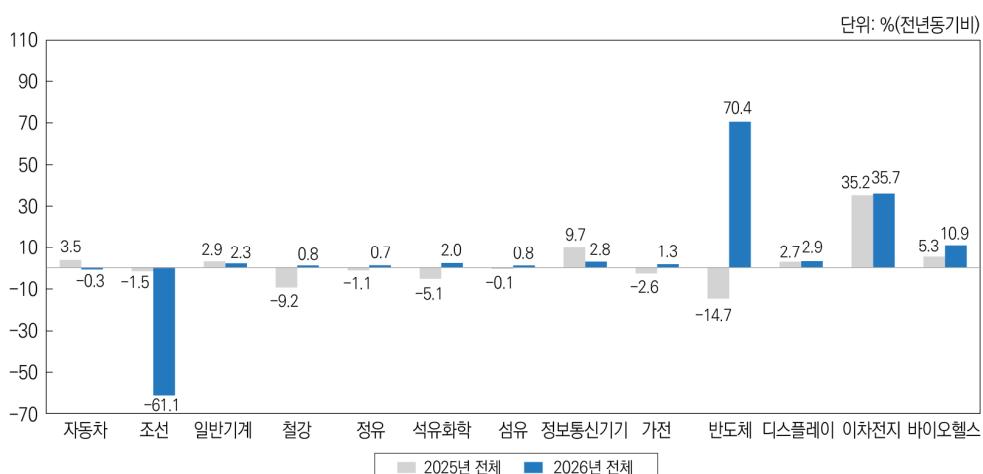
- (조선) 내수를 유지했던 LNG운반선 인수가 크게 감소하고 컨테이너선도 더욱 줄어들면서 벌크선과 유조선의 인수 증가에도 전년 대비 61.1% 감소

- (일반기계) 일부 전방산업 설비투자의 완만한 회복과 건설투자의 증가 전환 등 주요 수요 부문의 개선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할 전망

•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 (2025년) 2.4 → (2026년 상반기) 1.4 → (2026년 하반기) 1.8

• 건설투자 증감률 전망(%): (2025년) -8.9 → (2026년 상반기) 3.2 → (2026년 하반기) 2.1

〈그림 2-2〉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률 전망



주: 1)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

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2) 조선산업의 내수는 국적 선사가 국내 또는 해외 조선사에 빌주하여 인수받는 물량(CGT)으로 국내 해운사의 선박 빌주량이 많지 않고 일정하지 않으므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

○ (소재산업군) 철강은 전년 대비 0.8%, 석유화학 2.0%, 정유 0.7%, 섬유 0.8% 증가로 소재 산업군 전반이 소폭 확대에 그칠 전망

- (철강) 하반기 소폭 반등이 예상되나 뚜렷한 회복 모멘텀의 부재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며 부진 지속

• 2007년부터 5,000만 톤 이상을 유지(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팬데믹(2020년) 시기 제외)해 온 철강 내수는 지난 2024년 처음으로 5,000만 톤 미만으로 감소한 후 2025년 약 4,300만 톤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2002년 이후 최저 수준)

- (정유) 전년도 기저효과와 항공유 및 휘발유 중심의 수요 확대로 소폭 증가

• 2025년에는 정부 규제로 인한 경유 소비 감소와 석유화학용 석유제품(나프타 및 LPG)의 동반 수요 부진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

- (석유화학) 국내 경제성장률의 완만한 성장세 속에 전년 대비 2.0% 증가하겠지만, 구조 조정에 따른 공급제약으로 평년 수준까지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

• 업스트림 생산능력 감축과 자발적인 재고 조정으로 내수 증가분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 할 것으로 우려

- (섬유) 물가 안정화 및 내수 진작 정책에 따른 소비 확대, 수입 확대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로 전환

○ (IT신산업군) AI 중심의 투자 및 수요 확대로 반도체는 전년 대비 70.4% 및 가전 1.3%의 증가 전환 예상되며 이차전지는 35.7%, 바이오헬스는 10.9%로 내수 확대 추세 지속

- (정보통신기기산업) AI 스마트폰으로의 전환 본격화 및 AI 서비스 확산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2.8% 증가

• 하반기 애플의 AI 스마트폰 및 폴더블폰 신제품 출시 여부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 활성화의 변수로 작용

- (가전) 경제성장률 개선 및 민간소비 회복, AI 가전 등 프리미엄 제품 수요의 증가, 가전 구독서비스 확대, 2023~2025년 내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1.3% 증가

〈표 2-8〉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 평가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차급과 고급브랜드의 HEV 모델 출시</li> <li>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한 정부 인센티브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볼륨 차종 모델 노후화</li> <li>경기침체에 따른 낮은 구매 여력</li> <li>차량 가격 상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볼륨 차종 모델 노후화와 경기침체 등 부정적 요인 우세로 소폭 감소</li> </ul>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벌크선 인수 증가</li> <li>원유운반선 및 석유제품운반선 인수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NG운반선 인수 물량 급감</li> <li>컨테이너선 인수 물량 감소 지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수를 견인하던 LNG운반선과 컨테이너선 인수가 줄어들면서 크게 감소</li> </ul>
일반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요산업(반도체, 방산 등) 경기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li> <li>건설투자 증가세 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업 경기 회복 모멘텀 제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요산업 설비투자 회복과 건설투자 증가 전환 등으로 일부 개선될 전망이나, 경기하방 압력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여 회복세는 제한적</li> </ul>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성장률, 소비 및 투자 지표 개선</li> <li>건설투자의 증가 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 등 수요 산업 생산활동의 부진</li> <li>기계, 가전 등 수요산업의 관세 영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뚜렷한 회복 모멘텀 부재로 전년의 낮은 수준이 유지될 전망</li> </ul>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유가 하향안정화에 따른 항공유 및 휘발유 중심 운송용 수요 확대</li> <li>전년도 상반기 대비 기저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규제강화로 인한 경유 수요 감소</li> <li>유류세 환원 및 전기차 보급 확대</li> <li>정제마진 변동성 대응을 위한 낮은 재고 수준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휘발유 및 항공유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유 등의 수요 감소로 전제적으로는 소폭 확대에 그칠</li> </ul>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경제성장률 소폭 성장(1.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업스트림 생산능력 감축</li> <li>자발적 재고 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비 증가하나 평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함</li> </ul>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리 인하 및 물가 하락, 실질소득 증가로 소비 개선</li> <li>내수진작을 통한 소비 개선</li> <li>중저가 의류 및 섬유소재 수입 확대</li> <li>고부가가치 차별화 제품 수요 확대</li> <li>중국 과잉 물량 및 C-커머스 국내 진출 가속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계 부채 체증 및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li> <li>국내 섬유 생산기반 약화에 따른 섬유 소재 수요 부진</li> <li>온라인 쇼핑 전환에 따른 정통 오프라인 의류/액세서리 소매점 경쟁 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리·물가 안정과 실질소득 증가에 기인한 소비 개선이 내수를 견인하나 가계부채와 국내 생산기반 약화로 완만한 0.8% 증가</li> </ul>
정보통신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폰 신제품(AI폰, 폴더블폰 등) 출시 효과</li> <li>단통법 폐지와 이동통신사의 지원책 확대</li> <li>AI PC 교체 및 업그레이드 수요 증가</li> <li>기업들의 AI 활용 등 디지털 전환 투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계 대출 부담과 제품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저하</li> <li>국내 스마트폰 보급률 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높은 제품가격에도 불구하고 AI 기반 신제품 출시 등에 힘입어 내수가 증가할 전망</li> </ul>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성장률 및 민간소비 회복</li> <li>AI 가전 등 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li> <li>가전 구독 서비스 확대</li> <li>2023~2025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구재 소비심리 부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소비 회복이 기대되며, 장기간 지속된 내수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로 내수는 소폭 증가로 전환</li> </ul>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컴퓨터 부품, 정보통신기기 수출 증가</li> <li>AI 투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확실한 미국 관세 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정부의 AI 사업 투자 확대가 반도체 내수를 견인</li> </ul>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부가 패널 생산 비중 증가로 소재 부품 수요 확대</li> <li>차량용 디스플레이 대면적화 지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 부과로 인한 패널 및 소재부품 가격 하락 압력 상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패널 고부가화로 인한 소재부품 분야 단가 상승</li> </ul>

(계속)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 평가
이차 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차 보급 정책 강화</li> <li>국내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신차 라인업 확충</li> <li>국내 ESS 설치 수요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생산능력 정체 심화</li> <li>배터리 제품단가 하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차 출시 확대와 지원 정책 강화에 따른 전기차 판매 증가 영향으로 2026년 이차전지 내수는 전년에 이어 증가세 유지 전망</li> </ul>
바이오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정부 보건의료정책 발효</li> <li>창고형 약국·유통업체 통한 판매 확대</li> <li>국산 비만치료제 등 신약 출시 예정</li> <li>국내 희귀의약품 공급 확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적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기조에 따라 내수는 10% 이상 성장</li> </ul>

- (반도체) 컴퓨터용 부품 수출 증가와 AI 확산에 따라 내수는 70.4%로 큰 폭 증가
  - SSD 등 컴퓨터 부품 수출의 지속 증가 및 정부 주도의 AI 사업 본격화로 관련 반도체 수요도 증가
-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패널 생산 확대로 인한 소재부품 고도화로 전년 대비 2.9% 증가
  - 폴더블, IT용 패널에는 일반 스마트폰 OLED에 사용되지 않은 고부가 소재부품이 다수 채택되며, 자동차용 디스플레이의 대면적화로 수요 상승 전망
- (이차전지) 국내 전기차 생산·판매 증가세가 지속 및 ESS 설치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35.7% 증가
  - (바이오헬스) 국내 유통채널 확대와 국산 비만 신약·희귀의약품 공급 증가로 10.9% 확대

□ 생산: IT신산업군 중심의 생산 확대는 지속되는 반면, 소재산업군의 생산이 부진한 가운데 해외 생산 대체 영향이 큰 이차전지는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

- (기계산업군) 자동차는 0.5% 증가하고 일반기계는 내수 증가로 0.6%의 소폭 감소에 그치겠지만 조선은 기저효과 영향으로 9.7% 감소
  - (자동차) 울산의 전기차 생산 신규 공장 가동 및 중견업체의 전기차 위탁생산에도 불구하고 내수 및 수출 정체로 인해 전년 대비 0.5% 증가한 409만 대에 그칠 전망
    - 보호무역 정책 대응과 현지 수요 대응을 위한 해외 생산 증가가 수출물량을 대체하며 국내 생산에 부정적 영향

- (조선) 높은 수준의 가스운반선 생산이 지속되는 반면, 컨테이너선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9.7% 감소한 1,117만CGT가 될 전망
  - 2025년에는 컨테이너선의 건조 감소에도 LNG운반선의 대규모 건조 및 유조선 건조 확대로 전년 대비 7.4% 증가한 1,237만CGT로 추정
- (일반기계) 수출 감소폭은 축소(-8.3% → -4.3%)되고, 내수는 소폭 증가세(+2.3%)를 유지하며 전년 대비 -0.6% 수준의 보합세가 예상
  - 2025년은 수출이 8.3%나 감소한 반면, 내수는 2.9%의 증가에 그치면서 전년 대비 2.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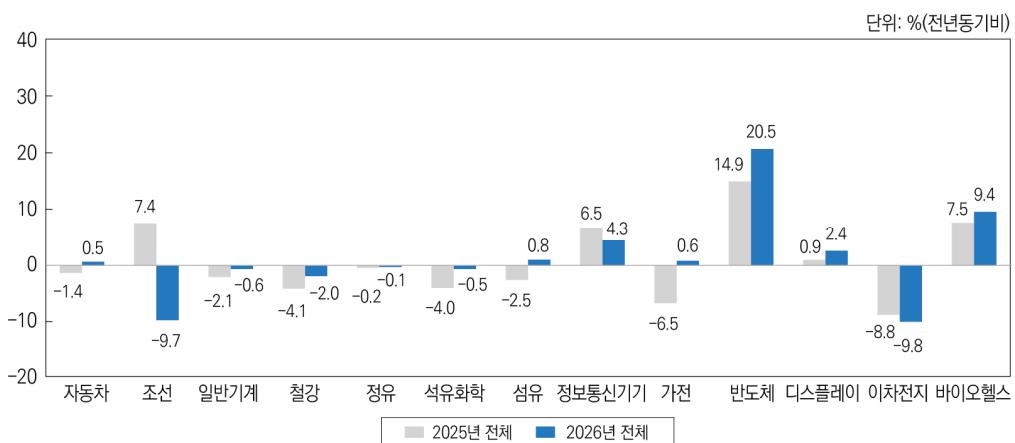
○ (소재산업군) 섬유는 전년 대비 0.8% 확대로 소폭 증가로 전환되는 반면, 철강 -2.0%, 석유화학 -0.5%, 정유 -0.1%로 생산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

- (철강) 수요 절벽 상황 지속과 수출 감소에 따라 2026년 철강재 생산은 3년 연속 감소할 전망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한 6,350만 톤 규모 기록 예상
  - 2025년 생산은 수출의 소폭 증가에도 큰 폭의 내수 감소 영향으로 주요 철강 생산 지역에서의 설비 가동 중단 사례가 발생하는 등 철강재 생산 4.1% 감소
- (정유) 글로벌 공급우위 기조 상황에서 정제설비의 보수적 가동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겠지만 유사한 수준을 유지
- (석유화학) 전년 대비 0.5% 감소하겠지만 생산능력 확충과 내수 회복으로 감소폭이 축소
  - 2025년은 국내 수요 부진과 중국발 신증설 물량 및 중동발 저가 제품의 동아시아 시장 유입으로 인한 수출 감소로 가동률이 80% 이하로 하향 조정되며 전년 대비 4.0% 감소
- (섬유) 수출 확대 및 내수 증가, 첨단소재 생산설비 증설 및 본격 가동, 기능성 소재 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0.8% 늘어나며 증가로 전환

○ (IT신산업군) 수출 호조 및 내수 개선 영향으로 반도체 20.5%, 정보통신기기 4.3%, 바이오헬스 9.4%로 전년 대비 생산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이차전지는 -9.8%로 해외 생산 확대 가속화에 따른 감소세 지속

- (정보통신기기) 해외 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과 SSD 수출 확대에 힘입어 2026년 생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
- 반면 스마트폰 및 주요 부품의 해외 생산 확대,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지속 등은 국내 수출 및 생산 확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가전) 수출 및 내수가 회복세로 전환되고 AI 가전 등 프리미엄 제품 생산 증가 및 기저 효과 영향으로 전년 대비 0.6% 확대되며 2025년 -6.5%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 (반도체) 세계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HBM과 고부가 제품의 생산 확대로 전년 대비 20.5% 증가
- (디스플레이) IT용 전용설비 가동 및 OLED 고부가 패널 생산 확대로 전년 대비 2.4% 증가
  - 태블릿, 노트북 전용 설비인 8.6세대 출하 시작으로 생산 증가 및 폴더블폰 시장 성장으로 OLED 고부가 패널 비중 상승
- (이차전지) 국내 생산능력 정체, 관세 부과 및 보조금(구매세액공제) 폐지 영향에 따른 대미 수출여건 악화와 현지 생산 확대 가속화 등으로 전년 대비 9.8% 감소하며 감소폭이 확대

〈그림 2-3〉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률 전망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표 2-9〉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차 전용 신규 공장 가동</li> <li>중견업체 전기차 OEM 생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고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 정책 강화로 해외 생산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공장 가동, 중견업체 생산활동 강화 등으로 소폭 증가</li> </ul>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NG운반선의 높은 건조 수준 지속</li> <li>LPG운반선 건조량 증가</li> <li>주요 조선사의 생산 현장 안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컨테이너선 생산 지속 감소로 전반적인 건조 척수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컨테이너선 건조가 감소하고 가스 운반선 중심으로 생산하면서 높은 수준의 건조가 지속되지만 물량은 감소</li> </ul>
일반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요산업 점진적 회복 국면 진입 기대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 감소</li> <li>대내외 기계류 투자심리 위축 요인 상존(저성장,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 감소폭 축소와 내수 회복으로 보합세 전환 예상</li> </ul>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 설비 능력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 부진과 국내 신규 수요처 부재</li> <li>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가동률 하향 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 및 수요 부진 효과가 우세하여 생산 감소세 지속 예상</li> </ul>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가 하향 안정화에 따른 수요 확대</li> <li>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석유제품 생산 감소</li> <li>비OECD 국가 중심의 견조한 석유제품 수요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 우위 기조하에서의 국내 정제설비 가동률의 보수적 운영</li> <li>인도 및 중국의 생산 확대로 글로벌 수출 경쟁 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공급우위 기조로 정제마진 상승폭이 제한된 상황에서 국내 정제 설비 가동률의 보수적 운영</li> </ul>
석유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능력 확충(사한 프로젝트)</li> <li>내수 회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스트림 생산능력 감소(자발적 구조 개편)</li> <li>가동률 소폭 하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 대비 약보합</li> </ul>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소비 개선에 따른 내수 증가</li> <li>디지털 전환, 친환경 트렌드 대응 고부가 제품 생산 및 투자 확대</li> <li>냉감기능성, 스판덱스 등 고기능성 섬유소재 및 의류 수요 증가</li> <li>화섬기업의 고기능성 소재 증설분의 본격 가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용 원자재 전방산업인 직면물, 염색 가공 등의 연쇄적 생산 및 수출 부진</li> <li>중국산 과잉 물량 등 해외 중저가 섬유 소재 및 의류 수입 확대 및 경쟁 심화</li> <li>수요 위축에 따른 재고 증가</li> <li>해외 생산 지속 확대 및 수입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6년 생산은 내수 회복과 고부가·고기능성 중심의 투자·가동 확대 및 수출 증가로 생산 확대</li> <li>범용 부문의 부진과 중국발 공급과잉 경쟁이 제약해 0.8% 수준의 원만한 증가</li> </ul>
정보 통신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 및 내수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폰 해외 생산 확대</li> <li>주요 부품의 해외 현지 조달 및 생산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생산 구조에도 불구하고 SSD 및 주요 스마트폰 부품 중심으로 생산 증가</li> </ul>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과 내수의 회복</li> <li>2023~2025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li> <li>프리미엄 제품 생산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li> <li>글로벌 경쟁 심화 및 현지 수요 대응 해외 생산 확대</li> <li>중국 브랜드의 국내시장 진입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관세, 중국 브랜드의 국내시장 진입 등 부정적 요인이 존재하나, 수출과 내수 회복으로 생산은 소폭 증가로 전환</li> </ul>

(계속)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관련 수요 확대에 대응</li> <li>제조 공정 효율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AI향 제품의 생산을 늘리고 제조 기술 발달로 생산 효율성 증대</li> </ul>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용 전용 설비인 8.6세대 양산 확대</li> <li>폴더블폰 시장 성장으로 고부기화 지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로 인한 수요 기업의 조달 비용 감축을 위한 패널 가격 하락 압력</li> <li>미국 내 스마트폰 수요 회복 지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의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측됨에도, 신규 생산설비 확장으로 인한 확대 전망</li> </ul>
이차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전기차 및 ESS 수요 확대 대응을 위한 생산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생산능력 정체 추세 지속</li> <li>최대 수출국 미국 수출여건 악화에 따른 현지 생산 증가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생산 비중이 계속 늘어나면서 국내 생산 감소 불가피</li> </ul>
바이오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산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로 생산 확대</li> <li>국내 바이오헬스 산업계 생산역량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핵심 소부장 공급망 경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내외 바이오헬스 수요 증가 및 생산 역량 개선으로 생산량 확대</li> </ul>

- (바이오헬스) 대내외 수요 증가와 주요 기업들의 대량 생산설비 및 R&D 투자 확대에 따른 생산 역량 개선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

#### □ 수입: IT신산업군의 수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

○ (기계산업군) 일반기계는 IT 경기호조로 2.7% 증가, 조선은 중국 및 일본으로부터의 선박 수입이 유지되며 9.3% 확대로 증가세가 지속되는 반면, 자동차는 국산차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으로 인해 0.3% 감소로 전환하며 전체적으로는 2.1% 증가

- (자동차) 국내 업체의 고급브랜드 라인업 확대 및 소비자 인식 제고 등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한 217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를 기록할 전망

- (조선) 수입 기자재가 많은 가스선 생산 증가와 중국 및 일본 등으로부터의 선박 수입은 유지되면서 전년 대비 9.3% 증가

- (일반기계) 반도체·IT 경기의 회복 기대에 따른 관련 설비투자 확대로 전년 대비 2.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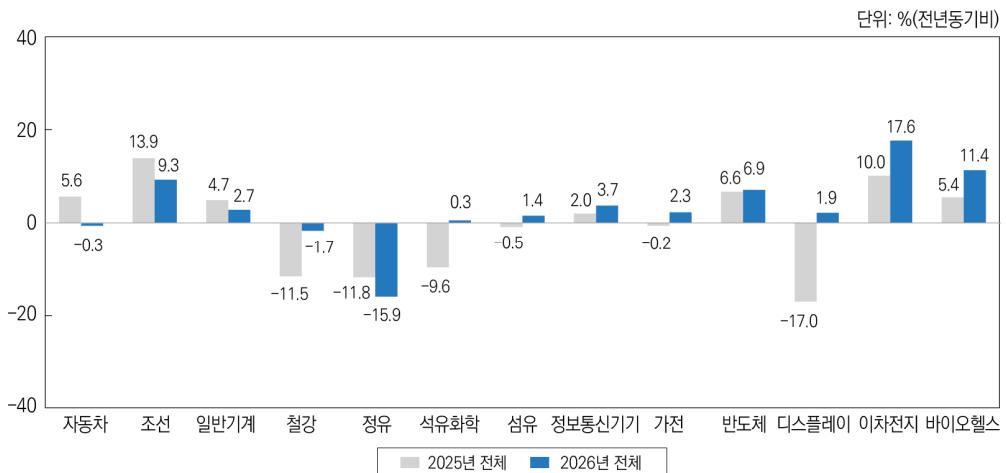
○ (소재산업군) 섬유는 전년 대비 1.4, 석유화학 0.3%로 수입이 증가 전환되지만 철강 및 정유의 수입 감소세 지속으로 소비재산업군 전체 수입은 4.9% 감소

- (철강) 저가 수입재 유입 환경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큰 폭 감소의 기저효과와 반덤핑 조치 및 비관세 조치 강화 등의 영향으로 2025년 -11.5%에서 -1.7%로 감소폭이 축소
- (정유) 전년도 상반기 기저효과에 따른 수입물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입단가 하락으로 전년 대비 15.9% 감소
- (석유화학) 내수 회복 및 국내 가동률 하향 조정으로 수입량과 수입액 모두 전년 수준을 소폭 상회
- (섬유) 중국 과잉 물량의 국내 유입, 가성비 중시 의류 수요, 국내 생산이 감소한 범용 원자의 수입 및 해외 생산 제품의 역수입 확대와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1.4% 증가

#### ○ (IT 신산업군) 디스플레이 및 가전산업의 수입도 증가로 전환

- (정보통신기기) 국내외 신규 AI 스마트폰과 AI PC 신제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3.7% 증가
- (가전) 내수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중국 브랜드의 국내 시장 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전년 대비 2.3% 확대되며 증가로 전환
- (반도체) AI,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산업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사용되는 시스템 반도체 중심의 제품 수입이 지속되며 전년 대비 6.9% 증가
  -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최종 처리를 한국에서 하기 위한 수입이 증가
- (디스플레이) 국내 LCD 조달이 어려워진 수요처의 수입이 지속 증가하고 패널 대면적화로 인한 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1.9% 확대되며 2025년 -17.0%에서 증가로 전환
- (이차전지) 내수 성장세와 더불어 기저효과 영향으로 상반기 고성장 기록하며 전년 대비 17.6% 확대되며 증가세 지속
- (바이오헬스) 정부가 희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기반 강화하는 가운데 의약품 유통기업의 공급 대폭 확대로 수입물량 및 단가가 상승하며 11.4% 증가

〈그림 2-4〉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률 전망



주: 1) 달러화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표 2-10〉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전기차 경쟁력 향상</li> <li>· HEV, EV 수요 확대</li> <li>· AS 및 OEM 부품 수요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차 브랜드 감소</li> <li>· 국내 완성차 고급브랜드 라인업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EV 수요 증가 지속되나 전년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와 수입차 브랜드 감소 등에 따른 소폭 감소</li> </ul>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기자재가 많은 가스운반선의 고 수준 생산 지속</li> <li>· 국내 해운사의 선박 수입 물량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테이너선 및 해양플랜트 건조 감소로 해외 생산 블록 및 모듈 감소 가능성</li> <li>· 기자재 국산화 및 국산 기자재 탑재 노력을 통한 수입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해운사의 해외 선박 도입 및 해외 블록 · 모듈 · 기자재 수입으로 지속 증가</li> </ul>
일반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 IT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관리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li> <li>· AI 자율제조 혁신과 디지털 · 그린 전환(DX · GX)에 대응한 생산공정 고도화, 저탄소 · 친환경 제조장비 및 산업 기계투자 수요 지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전반의 내수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투자 심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설비 투자 회복과 AI · 디지털 · 그린 전환 (AX · DX · GX) 대응 투자 확대가 수입 증가를 견인</li> <li>· 글로벌 · 대내외 불확실성이 완화되지 않아 증가폭은 제한적</li> </ul>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비용 절감을 위한 저가 수입재 활용 유인 증가</li> <li>· 중국, 일본 등 인접국의 내수상황 부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회덤핑 제도 강화, 수입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의 국내 무역구제정책의 실효성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 침체 및 반덤핑 정책 강화로 소폭 감소 전망</li> </ul>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상반기 기저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방산업인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 및 생산량 감소</li> <li>· 국제유가 하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물량은 기저효과로 소폭 확대되겠지만 수입단가 하락으로 감소</li> </ul>

(계속)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수 회복</li> <li>중국산 범용제품군 중심 수입 규모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조조정에 따른 중간재 수요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량, 수입액 전년비 흥보</li> </ul>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리 인하, 경기부양책에 따른 소비 증가</li> <li>실질소득 증가 및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여건 개선</li> <li>해외 생산 제품의 역수입 증가</li> <li>중저가 섬유소재 수입 확대</li> <li>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계 부채 체증 및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리 인하 및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여건 개선, 중저가 제품의 수입 확대,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1.4% 증가</li> </ul>
정보통신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산 신제품 수요 증가</li> <li>해외 생산 제품의 역수입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가격 상승 등에 따른 구매심리 위축</li> <li>국내 정보통신기기 제품의 경쟁력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기반 신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에 힘입어 수입 증가 전망</li> </ul>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수 회복</li> <li>중국 브랜드의 국내시장 진입 확대 (출시 품목의 확대)</li> <li>동남아, 인도, 중국 등 해외 생산 확대로 인한 역수입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브랜드의 경쟁력 우위</li> <li>스마트홈 플랫폼, 구독 서비스 등 서비스 결합 시장에서 국내 기업 우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수 회복과 중국 기업의 국내시장 진입 확대로 한국 기업의 경쟁우위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증가</li> </ul>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를 비롯하여 신산업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하지만, 국내 생산이 어려운 시스템반도체 수요 증가</li> <li>국내 후공정 처리를 위해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공정 처리 웨이퍼 수입 증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모리반도체는 제품화를 위한 수입이 늘어나고 시스템반도체는 국내 신산업 발전을 위한 수요 증가</li> </ul>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과점화로 인한 LCD 패널 단가 상승</li> <li>자동차용 패널의 대면적화 지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재고 조정용 재수입 축소</li> <li>공급 확대로 인한 OLED 패널 단가 하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과점화 및 대형화로 인한 패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폭 증가</li> </ul>
이차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6년 상반기는 기저효과 영향으로 큰 폭 증가</li> <li>국내 전기차 판매 증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배터리 수입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터리 제품단가 하락</li> <li>중국(BYD) 전기차 국내 점유율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전기차 내수 확대가 이어지면서 이차전지 수입 증가 추세 유지할 전망</li> </ul>
바이오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희귀의약품 유통 확대</li> <li>비만치료제 수요 지속</li> <li>국내 첨단신약 개발 수요 증가로 후방산업인 원료의약품·핵심 소부장 수입 증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 물량 및 단가 상승으로 11% 이상 증가</li> </ul>

### 3. 종합 및 시사점

#### □ 2026년 13대 주력산업 전망 종합

○ 2026년에도 반도체·정보통신기기·조선·바이오헬스산업은 견고한 성장이 예상되며 일반기계·가전·디스플레이산업은 완만한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평가

- 자동차·섬유는 성장세 정체의 가능성이 있으며 철강·석유화학·정유는 다소의 침체 국면이 이어질 전망
- 이차전지는 내수는 증가하나 해외 생산 비중이 높아 수출과 국내 생산 위축은 지속

○〈자동차〉 대전환 국면에서 유연한 대응으로 소폭의 생산 증가

- 주요국의 보호무역정책 강화로 인해 해외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과거와 다르게 해외 생산 증가가 국내 부품산업 생태계와 연계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생산기반 유지

〈표 2-11〉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산업 전망 기상도

		수출	내수	생산	수입
기계 산업군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소재 산업군	철강	☂	∞	☁	☁
	정유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IT 신산업군	정보통신기기	∞	∞	∞	∞
	가전	∞	∞	∞	∞
	반도체	∞	☒☒	☒☒	☀
	디스플레이	∞	∞	∞	∞
	이차전지	☂☂	☒☒	☂	☒☒
	바이오헬스	☀	☒☒	☀	☒☒

주: 1) 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 -5%, ☃ -5~0%, ☄ 0~5%, ★ 5~10%, ☖ 10% 이상.

2) 내수와 생산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기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및 강화를 위한 투자 환경개선 및 기술경쟁력 확보 필요

- <조선> 컨테이너선과 해양플랜트 수출 감소로 수출액과 생산량이 소폭 감소하겠지만 LNG 및 LPG운반선 수주 증가로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며 해외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
  - 납기나 수출 선종 변화로 인해 소폭 조정되더라도 높은 수준의 생산 및 수출이 지속되겠으며, 가스운반선 시장 호조로 수주도 증가할 전망
- <일반기계> 수출 감소폭 완화와 제한적 내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완만한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 글로벌 통상 리스크 완화와 국내 투자 환경 개선 여부에 따라 본격적인 성장세 전환 기대
- <철강> 내수 감소세가 둔화되나 수출 부진 영향으로 업황 회복은 지연
  - 수출 환경 악화로 국내 수요 부진을 수출로 만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과잉 공급 상황 지속으로 수입도 크게 감소하기 어려워 국내 생산 규모의 축소 추세는 지속될 전망
- <정유> 석유제품의 글로벌 공급우위 기조 속에 전반적으로 약보합세 전망
  -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전년 대비 16.5%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수출 물량 및 단가 동반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 전망
- <석유화학> 수출 감소와 국내 생산 정체로 저성장 및 저수익 상황 지속
  - 국산 석유화학제품 생산과 수출은 저점 부근을 통과한 후 조정 단계에 진입했고, 내수는 소폭 반등하나 저속 회복
  - 정부와 석유화학계가 합의한 업스트림 생산능력 축소가 본격화되는 한편 샤큐 프로젝트가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구조전환 시기
- <섬유> 업황은 소폭 개선 전망
  - 글로벌 금리 인하 및 성장세 지속, 주요국의 경기부양 정책 등에 힘입어 수출이 소폭 증가하고, 국내 섬유산업의 고도화 및 내수 성장에 힘입어 업황이 다소 개선될 전망
- <정보통신기기> 해외 생산 확대와 미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AI

수요 확산이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수출과 생산 증가를 견인

- 세계적인 AI 활용 확산에 대응한 클라우드 · 데이터센터의 구축 투자가 더욱 확대되면서 SSD가 정보통신기기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
- 세계 스마트폰 · PC 시장은 생성형 AI 기능이 내재화된 스마트폰과 PC 신제품 출시가 확대되고 이에 대한 교체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수출 증가에 긍정적 영향

○ <가전> 국내외 수요가 회복세에 진입하나 선진권 수요 증가가 제한적이고 미국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면서 소폭의 실적 개선에 그칠 전망

- 국내 생산 감소 및 해외 생산 증가 요인이 수출에 부정적이나, 글로벌 수요가 일부 회복되고 전년도 수출이 급감한 기저효과 영향으로 수출은 소폭 증가 전망

○ <반도체> 현재의 경기 호조세가 지속되어 가파른 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분위기로 전환

- 불투명한 미국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AI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에 따른 경기 호조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
- 2026년 반도체 수출은 2025년 16.6%보다는 성장세가 둔화하여 4.7% 증가하고 수입은 비슷한 수준인 6.9% 증가

○ <디스플레이> 고부가 패널 중심 포트폴리오 확대로 소폭 회복

- OLED 적용 품목 상승으로 성장세가 예상되나, 관세 불확실성의 영향이 지속되어 소폭 증가 전망

○ <이차전지> 내수는 증가하나 수출과 생산 위축은 지속

- 내수 회복에도 불구하고 해외 생산 비중이 국내 생산 비중에 비해 월등히 높아 수출과 국내 생산은 역성장세 기록

○ <바이오헬스> 주력 의약품과 일부 의료기기 수출이 안정적 성장세를 견인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의 고품질 바이오헬스 제품과 안정적 공급 역량에 대한 해외 수요 확대로 생산과 수출 모두 전년 대비 성장 전망

〈표 2-12〉 2026년 13대 주력산업 정책 과제 및 대응 방안

	정책 과제	대응 방안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무역정책 강화 대응을 위한 지원 필요</li> <li>· 모빌리티 전환 등에 대응한 신규 이동 수단에 대한 초기 시장 활성화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 제조설비 구축을 위한 수요 업체 연계 및 운영 인력 지원</li> <li>· 공공 서비스 등의 활용 방안 모색 등 수요 창출 모색</li> </ul>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조선협력, 국내 조선사의 세계 진출 지원 및 미중 해양배권 갈등 모니터링 지속</li> <li>· 전후방산업 및 연관산업 협력 기반 마련</li> <li>· 체계적인 내국인 및 외국인 인력 육성, 미래 기술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산업 한미협력과 국내 조선사의 글로벌 진출 지원방안 마련</li> <li>·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산 현장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조선소의 디지털 전환)과 적용</li> <li>· 조선-해운-철강-화주-금융 상생을 위한 협의체 운영 및 발주 기반 친환경 스마트 선박 시장 대응</li> <li>· 산업의 유지를 위한 건전한 인력 육성과 노사관계 지속</li> </ul>
일반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대미 관세 리스크 대응 및 통상환경 안정화</li> <li>· (수출) 수출시장 다변화 및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li> <li>· (내수) 기계산업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금 및 제도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탄소증립 정책 기조 모니터링 및 친환경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비한 관련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li> <li>·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관세 부과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마련</li> <li>· 중소기업 대상 노후 공작기계 교체 투자 관련 세제 지원 확대</li> </ul>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둔화 영향 최소화</li> <li>· 중장기 경쟁력 강화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 수출로 고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출 다각화 지원 위한 경제영토 확장 추진</li> <li>· 단기적으로 국내 산업·지역의 급격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저가 수입 철강재에 대한 시장 방어조치를 강화하고 철강 지역의 산업 위기 선제대응을 지원(투자 및 고용, 협업 지원)</li> </ul>
석유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미 수출 리스크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시장(인도, 아세안 등) 진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 다변화 로드맵 구축</li> <li>· 국산 고부가, 친환경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예외, 감면 리스트에 편입되도록 협상</li> </ul>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생산기반 강화</li> <li>· 해외시장 진출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섬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섬유 생산기반 강화</li> <li>· 수요가 점차 확대되는 K-패션의 신시장 진출 지원</li> </ul>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 역내 석유제품 수출 경쟁 심화 및 정제마진 악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li> <li>· 석유제품 공급 확대에 대비한 수출 강화 전략 마련</li> <li>· 친환경 석유제품 수요 확대에 대한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수입 산유국과 양자 FTA 추진을 통해 원유 수입관세 철폐 확대</li> <li>· 석유정책용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대상 개별소비세 인하 유지 및 감면 등의 세제 지원</li> <li>· SAF 등의 생산 인프라 확대를 위해 투자세액 공제 강화 및 보조금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li> <li>·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바이오 원유의 생산과 활용을 위해 감축효과 인증 등에 관한 제도 개선과 수급 및 생산 인프라 구축 지원</li> </ul>
정보통신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및 스마트폰 수요 촉진을 위한 지원책 강화로 내수를 활성화</li> <li>·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핵심 부품(플렉시블폰용 부품 등) 경쟁력 강화 지원</li> <li>· 중소기업의 AI·데이터 활용 등 디지털 전환 추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AI PC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구독 지원, AI PC 및 SSD 공공구매 지원 확대 등</li> <li>· 노후 스마트폰 교체 지원(바우처 등)으로 스마트폰 내수를 활성화</li> <li>·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공급망 다변화에 대해 지원(금융, 해외협력 등)</li> <li>· 신제품 개발 및 초기 상용화 위한 R&amp;D 및 실증·인증,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 지원(마케팅 등) 강화</li> <li>· 기업의 AI 전환 추진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 여건을 확충, 컨설팅, 인프라, 세제·자금 등 확대</li> </ul>

(계속)

정책 과제		대응 방안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 · 서비스 R&amp;D 강화, AI 역량 강화, 스마트홈 관련 협업 생태계 구축 지원</li> <li>· AI 제품 또는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지원</li> <li>· 중견 브랜드 기업의 해외사업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관세)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 협력사 지원방안의 다각적 모색 : 수출 다변화, 제품개발, 사업 전환 등</li> <li>· (중국 위협) 차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AI, 친환경, 소비자 맞춤형 디자인 관련 R&amp;D 투자 확대</li> </ul>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에 적절히 대응</li> <li>· 기술 변화에 따른 반도체 수요 변동에 대한 대비가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과 정부 연구기관이 상호 보완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시장 변화를 주목</li> <li>· 미국 반도체산업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li> </ul>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ITC의 수입금지 판결의 조속한 효력발휘를 위한 지원 필요</li> <li>· 전력 수요 확대 대응을 위한 인프라 대응 전략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미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조속한 대통령 인준 지원과 타 주요국에서 소송 지원</li> <li>· RE100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방안 마련</li> </ul>
이차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황 부진, 정책 불확실성 증가 등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li> <li>· 산업공동화 문제 해소를 위한 대응 방안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제(투자세액공제 개선), 금융(첨단전략산업 기금 배정 확대), R&amp;D(차세대 전지 개발 지원) 등 전방위적 적시 지원 강요</li> <li>· '셀업계 해외투자 → 소재 · 장비업계 국내투자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 지속을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전기료 인하 등 소재 · 장비업계에 대한 지원 강화</li> </ul>
바이오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 대비</li> <li>· 신흥국향 수출시장 다변화</li> <li>· CDMO 시장 양극화 완화전략 모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료의약품 등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 자급화 지원</li> <li>· 해외투자를 통한 국내 제약산업의 R&amp;D역량 강화 또는 관세 부담이 적은 품목 위주 생산 등 전략 모색</li> <li>· 진출 대상 국가의 규제, 제도 및 의약품 유통시장 구조 등 현지 정보 제공, 마케팅 비용 및 장기 저리 수출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li> <li>· 공공성이 높은 의약품 생산을 위한 CDMO 시설 구축 시 설비 보조금, 투자 세액 공제</li> <li>· 중소 · 벤처기업을 위한 공동 CDMO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분야 확대</li> </ul>

## □ 시사점

- 2026년에도 13대 주력산업은 보호무역 강화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 대미 관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전반의 안정적 수출 · 공급망 체계 구축이 필요
- AI · 친환경 · 모빌리티 · 스마트 제조 등 기술 전환에 대비한 산업별 기술경쟁력 확보와 생산 기반 강화가 필요
- 수출시장 다변화, 세제 · 금융 · R&D 지원 확대,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한 통상 협력 및 규제 개선 추진과 더불어 친환경 전환 및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 지원 마련이 요구

〈표 2-13〉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4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93,316 (-0.5)	47,121 (-2.5)	45,281 (0.6)	92,402 (-1.0)	45,760 (-2.9)	46,122 (1.9)	91,882 (-0.6)
조선	25,636 (17.6)	13,981 (19.1)	17,597 (26.6)	31,578 (23.2)	14,818 (6.0)	15,508 (-11.9)	30,326 (-4.0)
일반기계	51,172 (-4.2)	23,617 (-9.4)	23,301 (-7.2)	46,918 (-8.3)	22,595 (-4.3)	22,602 (-3.0)	45,197 (-3.7)
철강	33,282 (-5.4)	15,614 (-6.0)	15,282 (-8.3)	30,896 (-7.2)	14,574 (-6.7)	14,782 (-3.3)	29,356 (-5.0)
정유	50,326 (-3.2)	21,572 (-18.4)	24,767 (3.7)	46,339 (-7.9)	18,969 (-12.1)	19,804 (-20.0)	38,773 (-16.3)
석유화학	47,985 (5.0)	21,725 (-11.0)	22,194 (-5.8)	43,919 (-8.5)	21,525 (-0.9)	21,516 (-3.1)	43,041 (-2.0)
섬유	10,463 (-4.1)	4,892 (-8.2)	4,823 (-6.1)	9,715 (-7.1)	4,930 (0.8)	4,875 (1.1)	9,805 (0.9)
정보통신기기	31,510 (29.5)	13,881 (8.8)	17,467 (-6.9)	31,348 (-0.5)	14,363 (3.5)	18,522 (6.1)	32,885 (4.9)
가전	7,974 (0.4)	3,701 (-10.7)	3,517 (-8.2)	7,218 (-9.5)	3,661 (-1.1)	3,583 (1.9)	7,244 (0.4)
반도체	141,920 (43.9)	73,226 (11.4)	92,188 (21.0)	165,414 (16.6)	88,353 (20.7)	84,871 (-7.9)	173,224 (4.7)
디스플레이	18,747 (0.9)	7,601 (-14.5)	9,690 (-1.7)	17,291 (-7.8)	7,755 (2.0)	10,005 (3.3)	17,760 (2.7)
이차전지	8,202 (-16.6)	3,603 (-9.0)	3,493 (-17.7)	7,096 (-13.5)	3,106 (-13.8)	3,137 (-10.2)	6,243 (-12.0)
바이오헬스	15,479 (13.3)	8,489 (11.5)	8,825 (12.2)	17,314 (11.9)	9,132 (7.6)	9,535 (8.0)	18,667 (7.8)
13대 합계	536,012 (10.3) 〈78.4〉	259,023 (-1.1) 〈77.4〉	288,425 (5.3) 〈78.9〉	547,448 (2.1) 〈78.2〉	269,541 (4.1) 〈78.2〉	274,862 (-4.7) 〈78.0〉	544,403 (-0.6) 〈78.1〉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 안은 전체 수출에서 13대 주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표 2-14〉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물량, 원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천 대)	2,783 (0.6)	1,412 (-3.8)	1,291 (-1.8)	2,703 (-2.9)	1,360 (-3.6)	1,350 (4.5)	2,710 (0.3)
조선 (만 CGT)	859 (12.1)	493 (20.8)	476 (5.5)	969 (12.8)	543 (10.1)	503 (5.7)	1,046 (7.9)
일반기계 (십억 원)	69,178 (-0.5)	33,694 (-4.3)	32,484 (-4.4)	66,178 (-4.3)	31,651 (-6.1)	31,247 (-3.8)	62,898 (-5.0)
철강 (천 톤)	28,350 (3.7)	14,227 (4.8)	14,416 (-2.4)	28,643 (1.0)	13,249 (-6.9)	13,571 (-5.9)	26,820 (-6.4)
정유 (십만 배럴)	5,142 (4.0)	2,447 (-5.0)	2,775 (8.1)	5,222 (1.5)	2,565 (4.8)	2,587 (-6.8)	5,152 (-1.3)
석유화학 (천 톤)	39,427 (7.2)	15,991 (-17.8)	19,758 (-1.1)	35,749 (-9.3)	15,954 (-0.2)	19,144 (-3.1)	35,098 (-1.8)
섬유 (십억 원)	14,260 (-0.5)	6,979 (-3.0)	6,724 (-4.8)	13,703 (-3.9)	6,906 (-1.1)	6,740 (0.2)	13,646 (-0.4)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42,598 (33.4)	18,624 (8.1)	22,846 (-10.0)	41,470 (-2.6)	20,119 (8.0)	25,706 (12.5)	45,825 (10.5)
가전 (십억 원)	10,874 (4.8)	5,281 (-5.6)	4,903 (-7.2)	10,184 (-6.4)	5,128 (-2.9)	4,954 (1.1)	10,082 (-1.0)
반도체 (십억 원)	191,879 (48.8)	104,472 (17.7)	128,519 (24.6)	232,991 (21.4)	123,765 (18.5)	117,334 (-8.7)	241,099 (3.5)
디스플레이 (십억 원)	25,346 (4.3)	10,844 (-9.7)	13,509 (1.3)	24,353 (-3.9)	10,863 (0.2)	13,832 (2.4)	24,695 (1.4)
이차전지 (십억 원)	11,090 (-13.6)	5,140 (-3.8)	4,870 (-15.2)	10,011 (-9.7)	4,350 (-15.4)	4,337 (-10.9)	8,687 (-13.2)
바이오헬스 (십억 원)	21,106 (18.3)	12,000 (15.6)	12,475 (16.3)	24,475 (16.0)	12,725 (6.0)	13,286 (6.5)	26,012 (6.3)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  
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표 2-15〉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전망

단위: %

	2024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천 대)	1,646 (-5.7)	836 (3.9)	869 (3.2)	1,704 (3.5)	846 (1.2)	854 (-1.7)	1,700 (-0.3)
조선 (만 CGT)	324 (90.6)	173 (8.8)	146 (-11.5)	319 (-1.5)	81 (-53.2)	43 (-70.5)	124 (-61.1)
일반기계 (십억 원)	125,284 (-0.2)	64,068 (4.6)	64,865 (1.3)	128,933 (2.9)	65,663 (2.5)	66,284 (2.2)	131,947 (2.3)
철강 (천 톤)	47,786 (-8.9)	21,733 (-13.6)	21,652 (-4.3)	43,385 (-9.2)	21,647 (-0.4)	22,085 (2.0)	43,732 (0.8)
정유 (십만 배럴)	11,556 (2.8)	5,609 (-2.7)	5,822 (0.5)	11,432 (-1.1)	5,729 (2.1)	5,780 (-0.7)	11,509 (0.7)
석유화학 (천 톤)	9,304 (-9.0)	4,447 (-8.1)	4,379 (-1.9)	8,827 (-5.1)	4,401 (-1.0)	4,602 (5.1)	9,003 (2.0)
섬유 (십억 원)	65,154 (2.2)	33,667 (0.2)	31,454 (-0.4)	65,120 (-0.1)	33,839 (0.5)	31,785 (1.1)	65,624 (0.8)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45,650 (-10.5)	27,192 (8.7)	22,890 (11.0)	50,082 (9.7)	27,710 (1.9)	23,761 (3.8)	51,471 (2.8)
가전 (십억 원)	27,339 (-2.9)	12,974 (-2.7)	13,669 (-2.4)	26,643 (-2.6)	13,277 (2.3)	13,723 (0.4)	27,000 (1.3)
반도체 (십억 원)	54,858 (-11.1)	27,424 (4.1)	19,388 (-32.0)	46,812 (-14.7)	35,635 (29.9)	44,154 (127.7)	79,789 (70.4)
디스플레이 (십억 원)	29,085 (13.4)	15,509 (15.5)	14,350 (-8.3)	29,859 (2.7)	15,840 (2.1)	14,885 (3.7)	30,726 (2.9)
이차전지 (십억 원)	3,929 (-60.4)	1,754 (3.1)	3,559 (59.7)	5,313 (35.2)	3,202 (82.6)	4,009 (12.6)	7,211 (35.7)
바이오헬스 (십억 원)	57,378 (7.2)	28,732 (7.6)	31,662 (3.3)	60,394 (5.3)	32,108 (11.7)	34,875 (10.1)	66,983 (10.9)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  
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표 2-16〉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전망

단위: %

	2024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천 대)	4,128 (-2.7)	2,111 (-1.6)	1,961 (-1.1)	4,072 (-1.4)	2,056 (-2.6)	2,036 (3.8)	4,092 (0.5)
조선 (만 CGT)	1,152 (24.7)	656 (19.3)	581 (-3.5)	1,237 (7.4)	587 (-10.5)	530 (-8.8)	1,117 (-9.7)
일반기계 (십억 원)	152,719 (-1.5)	75,039 (-0.9)	74,469 (-3.3)	149,508 (-2.1)	74,289 (-1.0)	74,320 (-0.2)	148,609 (-0.6)
철강 (천 톤)	66,486 (-4.9)	31,811 (-5.2)	31,977 (-2.9)	63,788 (-4.1)	30,922 (-2.8)	31,610 (-1.1)	62,532 (-2.0)
정유 (십만 배럴)	12,761 (2.4)	6,190 (-2.6)	6,545 (2.2)	12,735 (-0.2)	6,332 (2.3)	6,388 (-2.4)	12,720 (-0.1)
석유화학 (천 톤)	21,091 (-2.5)	10,019 (-7.8)	10,226 (0.1)	20,245 (-4.0)	10,020 (0.0)	10,124 (-1.0)	20,144 (-0.5)
섬유 (십억 원)	53,140 (-0.2)	27,987 (-2.7)	23,825 (-2.3)	51,812 (-2.5)	28,180 (0.7)	24,050 (0.9)	52,230 (0.8)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51,723 (11.7)	28,068 (14.1)	27,030 (-0.4)	55,098 (6.5)	28,767 (2.5)	28,720 (6.3)	57,487 (4.3)
가전 (십억 원)	26,831 (-3.9)	12,344 (-7.0)	12,743 (-6.0)	25,087 (-6.5)	12,426 (0.7)	12,811 (0.5)	25,237 (0.6)
반도체 (십억 원)	149,099 (36.5)	80,821 (15.3)	90,528 (14.6)	171,349 (14.9)	105,892 (31.0)	100,546 (11.1)	206,438 (20.5)
디스플레이 (십억 원)	49,314 (8.9)	24,028 (6.1)	25,753 (-3.4)	49,780 (0.9)	24,388 (1.5)	26,577 (3.2)	50,965 (2.4)
이차전지 (십억 원)	8,028 (-28.6)	3,566 (-6.7)	3,756 (-10.7)	7,321 (-8.8)	3,131 (-12.2)	3,470 (-7.6)	6,601 (-9.8)
바이오헬스 (십억 원)	50,180 (15.4)	26,244 (14.3)	27,683 (1.7)	53,927 (7.5)	28,248 (7.6)	30,771 (11.2)	59,019 (9.4)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  
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표 2-17〉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4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20,628 (-9.4)	10,233 (-0.8)	11,542 (11.9)	21,775 (5.6)	10,520 (2.8)	11,187 (-3.1)	21,707 (-0.3)
조선	4,007 (60.4)	2,394 (43.6)	2,170 (-7.3)	4,564 (13.9)	2,518 (5.2)	2,472 (13.9)	4,990 (9.3)
일반기계	30,877 (0.4)	15,927 (3.8)	16,412 (5.7)	32,339 (4.7)	16,437 (3.2)	16,789 (2.3)	33,226 (2.7)
철강	21,118 (-6.4)	9,396 (-13.4)	9,300 (-9.4)	18,696 (-11.5)	9,098 (-3.2)	9,289 (-0.1)	18,387 (-1.7)
정유	25,058 (8.2)	11,057 (-13.6)	11,043 (-9.9)	22,100 (-11.8)	9,054 (-18.1)	9,531 (-13.7)	18,585 (-15.9)
석유화학	12,386 (2.0)	5,084 (-19.5)	6,112 (0.6)	11,196 (-9.6)	5,054 (-0.6)	6,177 (1.1)	11,230 (0.3)
섬유	19,261 (2.0)	8,873 (-0.4)	10,295 (-0.5)	19,168 (-0.5)	8,970 (1.1)	10,470 (1.7)	19,440 (1.4)
정보통신기기	27,017 (-3.2)	13,228 (1.2)	14,320 (2.7)	27,548 (2.0)	13,608 (2.9)	14,960 (4.5)	28,568 (3.7)
가전	8,344 (2.8)	4,144 (-1.1)	4,181 (0.6)	8,325 (-0.2)	4,268 (3.0)	4,244 (1.5)	8,512 (2.3)
반도체	72,216 (15.8)	35,799 (7.3)	41,159 (5.9)	76,958 (6.6)	38,198 (6.7)	44,081 (7.1)	82,279 (6.9)
디스플레이	3,785 (5.7)	1,630 (-20.8)	1,511 (-12.5)	3,141 (-17.0)	1,653 (1.4)	1,548 (2.4)	3,201 (1.9)
이차전지	5,169 (-41.5)	2,333 (-2.3)	3,352 (20.5)	5,685 (10.0)	3,157 (35.3)	3,527 (5.2)	6,684 (17.6)
바이오헬스	20,758 (-2.8)	10,249 (-1.1)	11,640 (12.0)	21,889 (5.4)	11,902 (16.1)	12,480 (7.2)	24,381 (11.4)
13대 합계	270,624 (2.2) 〈42.8〉	130,347 (-1.0) 〈42.5〉	143,037 (2.9) 〈44.1〉	273,384 (1.0) 〈43.3〉	134,437 (3.1) 〈43.0〉	146,755 (2.6) 〈46.3〉	281,190 (2.9) 〈44.7〉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 안은 전체 수입에서 13대 주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표 2-18〉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물량, 원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천 대)	281 (-2.2)	145 (11.2)	179 (19.0)	324 (15.4)	150 (3.4)	168 (-6.1)	318 (-2.0)
조선 (만 CGT)	31 (158.3)	10 (-41.2)	41 (192.9)	51 (64.5)	37 (270.0)	16 (-61.0)	53 (3.9)
일반기계 (십억 원)	41,743 (4.4)	22,723 (9.7)	22,880 (8.8)	45,603 (9.2)	23,024 (1.3)	23,211 (1.4)	46,236 (1.4)
철강 (천 톤)	9,650 (-2.5)	4,149 (-20.1)	4,091 (-8.2)	8,240 (-14.6)	3,974 (-4.2)	4,046 (-1.1)	8,020 (-2.7)
정유 (십만 배럴)	3,938 (5.8)	1,866 (-5.8)	2,052 (4.9)	3,918 (-0.5)	1,961 (5.1)	1,979 (-3.6)	3,940 (0.6)
석유화학 (천 톤)	9,297 (2.4)	4,972 (7.0)	5,150 (10.8)	10,122 (8.9)	5,121 (3.0)	5,103 (-0.9)	10,224 (1.0)
섬유 (십억 원)	26,273 (5.9)	12,659 (5.2)	14,352 (0.8)	27,011 (2.8)	12,565 (-0.7)	14,475 (0.9)	27,040 (0.1)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36,525 (-0.3)	17,748 (0.5)	18,706 (-0.9)	36,454 (-0.2)	19,062 (7.4)	20,747 (10.9)	39,809 (9.2)
가전 (십억 원)	11,383 (7.4)	5,912 (4.5)	5,829 (1.8)	11,741 (3.1)	5,978 (1.1)	5,867 (0.7)	11,845 (0.9)
반도체 (십억 원)	97,683 (19.9)	51,074 (13.4)	57,380 (9.1)	108,454 (11.1)	53,508 (4.8)	60,942 (6.2)	114,450 (5.5)
디스플레이 (십억 원)	5,116 (9.3)	2,326 (-16.4)	2,106 (-9.8)	4,432 (-13.4)	2,316 (-0.4)	2,140 (1.6)	4,456 (0.5)
이차전지 (십억 원)	6,991 (-39.3)	3,328 (3.2)	4,674 (24.1)	8,002 (14.5)	4,422 (32.8)	4,876 (4.3)	9,298 (16.2)
바이오헬스 (십억 원)	28,303 (1.5)	14,488 (2.5)	16,454 (16.1)	30,942 (9.3)	16,585 (14.5)	17,390 (5.7)	33,976 (9.8)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  
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 ■ 연구진

### 거시경제 전망

총괄 및 국내 경제	홍성욱 선임연구위원
세계 경제	민성환 선임연구위원
유가 및 환율	이소라 부연구위원
	강성우 연구원
소비	원혜진 연구원
투자	김태훈 부연구위원
수출	이원복 부연구위원
	한정민 전문연구원

### 13대 주력산업 전망

총괄	최동원 부연구위원
자동차	김경유 선임연구위원
조선	이은장 연구위원
일반기계	박상수 연구위원
철강	이재윤 선임연구위원
정유	최동원 부연구위원
석유화학	조용원 연구위원
섬유	이임자 연구위원
정보통신기기	김종기 선임연구위원
가전	심우중 전문연구원
반도체	김양평 전문연구원
디스플레이	남상욱 연구위원
이차전지	황경인 연구위원
바이오헬스	정지은 부연구위원

KIET 경제·산업 전망 2025-02(1)

##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발행일 2025년 11월 24일

발행인 권남훈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록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화 044-287-3114

팩스 044-287-3333

문의 044-287-3146

인쇄처 거목정보산업(주)

ISSN 2983-0338

내용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역재를 금합니다.